

OECD 국가의 건설업 산재 사망사고 실태 비교·분석

2020. 9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차 례>

제 1 장 서론	1
1.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구성	4
제 2 장 OECD 국가별 주요 통계 비교	7
1. 개요	7
(1) 대상 국가	7
(2)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8
(3) 근로자 수	9
(3) 국내총생산(GDP)	10
2. 사고사망자 수 비교	11
(1) 전체 산업	11
(2) 건설산업	12
(3)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 비중	14
(4) 소결	16
3. 근로자 수 비교	16
(1) 전체 산업	16
(2) 건설산업	18
(3) 건설산업 근로자 수 비중	19
(4) 소결	21
4. 국내총생산(GDP) 비교	21
(1) 전체 산업	21
(2) 건설산업	23
(3) 건설산업 GDP 비중	24
(4) 소결	25
제 3 장 OECD 국가별 3대 지표 비교	27
1. 개요	27
(1)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27

(2)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28
(3) 근로자 1인당 GDP	29
2.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교	29
(1) 전체 산업	29
(2) 건설산업	31
(3)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차이	32
(4) 소결	34
3.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비교	34
(1) 전체 산업	34
(2) 건설산업	36
(3)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차이	37
(4) 소결	38
4. 근로자 1인당 GDP 비교	39
(1) 전체 산업	39
(2) 건설산업	40
(3)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차이	42
(4) 소결	43
제 4 장 요약 및 시사점	45
1. 3대 통계 분석으로 본 국내 전체 및 건설산업	45
(1) GDP	45
(2) 근로자 수	46
(3) 사고사망자 수	48
2. 3대 통계 분석이 주는 시사점	49
(1) OECD 회원국 3대 통계 증감률 비교	49
(2) OECD 경제 10대 회원국 3대 통계 비교	51
3. 3대 지표 분석으로 본 국내 전체 및 건설산업	54
(1)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54
(2)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56
(3) 근로자 1인당 GDP	57
4. 3대 지표 분석이 주는 시사점	59
(1) OECD 회원국 3대 지표 증감률 비교	59

(2) OECD 경제 10대 회원국 3대 지표 비교	61
제 5 장 결론	69
부록	75
참고문헌	93
Abstract	95

〈표 차례〉

<표 II-1> OECD 회원국 사고사망자 수 조사 개요	8
<표 II-2> OECD 회원국 근로자 수 조사 개요	9
<표 II-3> OECD 회원국 GDP 조사 개요	10
<표 II-4>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 수	12
<표 II-5> OECD 회원국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	13
<표 II-6> OECD 회원국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 비중	15
<표 II-7>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근로자 수	17
<표 II-8> OECD 회원국 건설산업 근로자 수	19
<표 II-9> OECD 회원국 건설산업 근로자 수 비중	20
<표 II-10>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GDP	22
<표 II-11> OECD 회원국 건설산업 GDP	23
<표 II-12> OECD 회원국 건설산업 GDP 비중	25
<표 III-1>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30
<표 III-2> OECD 회원국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31
<표 III-3> OECD 회원국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차이	33
<표 III-4>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35
<표 III-5> OECD 회원국 건설산업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36
<표 III-6> OECD 회원국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차이	38
<표 III-7>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근로자 1인당 GDP	40
<표 III-8> OECD 회원국 건설산업 근로자 1인당 GDP	41
<표 III-9> OECD 회원국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근로자 1인당 GDP 차이	43
<표 IV-1> 한국 전체 산업 GDP 및 증감률 순위	45
<표 IV-2> 한국 건설산업 GDP 및 증감률 순위	46
<표 IV-3> 한국 전체 산업 근로자 수 및 증감률 순위	47
<표 IV-4> 한국 건설산업 근로자 수 및 증감률 순위	47
<표 IV-5> 한국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 수 및 증감률 순위	48
<표 IV-6> 한국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 및 증감률 순위	49
<표 IV-7>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3대 통계 증감률	50

<표 IV-8> OECD 회원국 건설산업 3대 통계 증감률	51
<표 IV-9> OECD 경제 10대 회원국 전체 산업 주요 통계 비교	53
<표 IV-10> OECD 경제 10대 회원국 건설산업 주요 통계 비교	54
<표 IV-11> 한국 전체 산업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및 증감률 순위	55
<표 IV-12> 한국 건설산업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및 증감률 순위	56
<표 IV-13> 한국 전체 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및 증감률 순위	56
<표 IV-14> 한국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및 증감률 순위	57
<표 IV-15> 한국 전체 산업 근로자 1인당 GDP 및 증감률 순위	58
<표 IV-16> 한국 건설산업 근로자 1인당 GDP 및 증감률 순위	58
<표 IV-17>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3대 지표 증감률	59
<표 IV-18> OECD 회원국 건설산업 3대 지표 증감률	61
<표 IV-19> OECD 경제 10대 회원국 전체 산업 3대 지표 비교	63
<표 IV-20> OECD 경제 10대 회원국 건설산업 3대 지표 비교	65
<표 IV-21> OECD 경제 10대 회원국 전체 산업 3대 통계 및 3대 지표 비교	66
<표 IV-22> OECD 경제 10대 회원국 건설산업 3대 통계 및 3대 지표 비교	67
<부록 1-1> 연도별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 수	75
<부록 1-2> 연도별 OECD 회원국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	76
<부록 1-3> 연도별 OECD 회원국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 비중	77
<부록 2-1> 연도별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근로자 수	78
<부록 2-2> 연도별 OECD 회원국 건설산업 근로자 수	79
<부록 2-3> 연도별 OECD 회원국 건설산업 근로자 수 비중	80
<부록 3-1> 연도별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GDP	81
<부록 3-2> 연도별 OECD 회원국 건설산업 GDP	82
<부록 3-3> 연도별 OECD 회원국 건설산업 GDP 비중	83
<부록 4-1> 연도별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84
<부록 4-2> 연도별 OECD 회원국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85
<부록 4-3> 연도별 OECD 회원국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차이	86
<부록 5-1> 연도별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87
<부록 5-2> 연도별 OECD 회원국 건설산업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88

<부록 5-3> 연도별 OECD 회원국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차이	89
<부록 6-1> 연도별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근로자 1인당 GDP	90
<부록 6-2> 연도별 OECD 회원국 건설산업 근로자 1인당 GDP	91
<부록 6-3> 연도별 OECD 회원국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근로자 1인당 GDP 차이	92

<그림 차례>

<그림 I-1> 연구 흐름도	4
-----------------------	---

요 약

제1장 서론

-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으나, 압축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주를 이룸.
- 국내 산업재해 수준을 타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OECD)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음.
 - 2015년 이후 자료가 제한적으로 제공되어, 최신 경향을 비교하기 힘들.
 - 건설산업을 포함한 산업별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 국가별 산업재해 집계 방법의 차이로 인해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상이하여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 산정 방법에 차이를 보임.
- 본 연구는 국내 전체 산업 및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의 실태를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살펴보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음.

제2장 OECD 국가별 주요 통계 비교

- 국가별 산재 사망사고 실태의 비교·분석을 위해 36개 OECD 회원국의 사고사망자 수, 근로자 수, 국내총생산(GDP)을 조사함.
 - 관련 자료는 OECD 통계, ILO 통계, 유럽연합 통계(Eurostat) 및 각 국가의 통계 사이트를 통해 수집(2010~2017년)하였음.

1. 사고사망자 수 비교

- (전체 산업) 2017년 국내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964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5번째로 많았음. 2010년 대비 감소율은 13.5%로 35개국 평균(7.7%)보다 5.8%p 높음.
 -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미국(5,147명), 터키(1,406명, 2016년 기준), 일본(978명), 멕시코(971명), 한국(964명) 순임.
- (건설산업) 2017년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OECD 35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많았음. 2010년 대비 사고사망자 수가 4.2% 감소하였는데 35개국 평균(5.8%)보다 약 1.6%p 낮음.
 -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미국(1,013명), 한국(506명), 터키(497명, 2016년 기준), 일본(323명), 캐나다(217명) 순임.
 - 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사고사망자 비중은 국내가 2017년 기준 52.5%로 35개국 평균(24.6%)보다 약 2.1배 높음.

2. 근로자 수 비교

- (전체 산업) 2017년 국내 전체 산업의 근로자 수는 약 2,672만명으로 OECD 36개 회원국 중 8번째로 많았음. 2010년 대비 증가율은 11.2%로 36개국 평균(8.7%)보다 2.5%p 높았음.
 - 전체 산업의 근로자 수는 미국(1억 5,333만명), 일본(6,530만명), 멕시코(5,234만명), 독일(4,166만명), 영국(3,196만명) 순임.
- (건설산업) 2017년 국내 건설산업의 근로자 수는 약 196만명으로 36개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많았음. 2010년 대비 근로자 수가 12.4% 증가하여 36개국 평균(6.3%)보다 약 2배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건설산업 근로자 수는 미국(1,121만명), 일본(498만명), 멕시코(427만명), 독일(283만명), 영국(233만명) 순으로 전체 산업의 근로자 수 순위와 동일함.
- 건설산업 근로자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가 2017년 기준 7.4%로 36개국 평균(7.2%)과 유사함.

3. 국내총생산(GDP) 비교

- (전체 산업) 2017년 국내 전체 산업의 GDP는 약 1조 6,239억 달러로 OECD 36개 회원국 중 8번째로 높았음. 2010년 대비 증가율은 41.9%(5위)로 36개국 평균(11.3%)보다 약 3.7배 높았음.
 - 전체 산업의 GDP는 미국(19조 4,853억 달러), 일본(4조 8,668억 달러), 독일(3조 6,658억 달러), 영국(2조 6,663억 달러), 프랑스(2조 5,926억 달러) 순임.
- (건설산업) 2017년 국내 건설산업의 GDP는 약 895억 달러로 전체 산업과 마찬가지로 36개 OECD 회원국 중 8번째로 높았음. 2010년 대비 GDP는 70.6%(5위) 증가하여 36개국 평균(14.9%)보다 약 4.7배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건설산업 GDP는 미국(7,797억 달러), 일본(2,775억 달러), 독일(1,556억 달러), 영국(1,464억 달러), 프랑스(1,297억 달러) 순으로 전체 산업 순위와 동일함.
 - 국내 건설산업의 GDP 비중은 2017년 기준 5.5%로 36개국 평균(4.9%)보다 약 0.6% 높은 것으로 분석됨.

제3장 OECD 국가별 3대 지표 비교

- 앞서 분석한 사고사망자 수, GDP, 근로자 수는 각 국가의 경제 규모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절대 지표임. 이에 국가 간 비교 가능한 경제 규모 등을 반영한 상대적 지표를 도출하여 국내 건설산업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도출한 3가지 지표는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근로자 1인당 GDP임.
-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사고사망자 수와 근로자 수를 조합한 지표로 국내에서 활용 중인 사고사망만인율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분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를 적용함에 있어 차이가 있음.

1.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교

- (전체 산업) 2017년 국내 전체 산업의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3.61로 OECD 35개 회원국(평균 2.43) 중 5번째로 높았음. 2010년 대비 감소율은 22.2%로 35개국 평균(15.1%)보다 7.1%p 높은 감소율을 보임.
 - 전체 산업의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캐나다(5.84), 터키(5.17, 2016년 기준), 칠레(4.04), 룩셈부르크(3.69), 한국(3.61) 순임. 낮은 국가는 네덜란드(0.50), 스위스(0.80), 그리스(0.85), 영국(0.88), 스웨덴(0.88) 순임.
- (건설산업) 2017년 국내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25.45로 OECD 35개 회원국(평균 8.29) 중 가장 높았음. 2010년 대비 감소율은 14.8%로 35개국 건설산업 평균 감소율인 11.4%보다 3.4%p 높았음.
 -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한국(25.45), 터키(25.01, 2016년 기준), 캐나다(21.77), 이스라엘(14.36), 포르투갈(13.64) 순임. 반면에 낮은 국가는 네덜란드(0.98), 핀란드(1.07), 에스토니아(1.75), 스웨덴(2.05), 영국(2.31) 순임.
- 2017년 국내 건설산업의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25.45로, 전체 산업 3.61보다 7.06배(OECD 35개국 평균 차이 3.41배) 높았음. 2010년에 나타났던 6.44배의 차이에 비해 9.5% 증가(35개국 평균 4.3% 증가)하였음.

2.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비교

- (전체 산업) 2017년 국내 전체 산업의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는 5.94로 OECD 35개 회원국(평균 2.87) 중 7번째로 높았음. 2010년 대비 감소율은 39.0%로 35개국 평균인 17.1%보다 약 21.9%p 높았음.
 - 전체 산업의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가 높은 국가는 터키(16.29, 2016년 기준), 칠레(12.53), 멕시코(8.39), 라트비아(6.94), 리투아니아(6.91) 순임. 낮은 국가는 네덜란드(0.52), 스위스(0.54), 스웨덴(0.81), 영국(0.85), 핀란드(0.90) 순임.
- (건설산업) 2017년 국내 건설산업의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는 56.52로 OECD 35개 회원국(평균 14.47) 중 2번째로 높았음. 2010년 대비 감소율은 43.8%로 35개국 건설산업 평균 감소율인 18.1%보다 25.7%p 높았음.
 - 건설산업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가 높은 국가는 터키(67.20, 2016년 기준), 한국(56.52), 포르투갈(54.16), 헝가리(42.70), 칠레(35.31) 순임. 반면, 낮은 국가는 네덜란드(1.18), 핀란드(1.28), 스웨덴(2.19), 호주(2.76), 노르웨이(2.99) 순임.
- 2017년 국내 건설산업의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는 56.52로, 전체 산업의 5.94보다 9.52배(OECD 35개국 평균 차이 5.04배) 높았음. 2010년의 차이 10.33배에 비해 7.8%(35개국 평균 1.2% 감소) 감소하였음.

3. 근로자 1인당 GDP 비교

- (전체 산업) 2017년 국내 전체 산업의 근로자 1인당 GDP는 6만 760달러로 OECD 35개 회원국(평균 8만 4,700달러) 중 22위임. 2010년 대비 증가율은 27.6%로 35개국(평균 2.4%) 중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전체 산업의 근로자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23만 6,830달러), 아일랜드(15만 2,990달러), 노르웨이(15만 680달러), 스위스(14만 6,640달러), 미국(12만 7,080달러) 순임. 반면에 낮은 국가는 멕시코(2만 2,120달러), 터키(3만 240달러), 헝가리(3만 2,010달러), 폴란드(3만 2,050달러), 칠레(3만 2,230달러) 순임.

- (건설산업) 2017년 국내 건설산업 근로자의 1인당 GDP는 4만 5,030달러로 전체 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OECD 35개 회원국의 건설산업(평균 5만 7,290달러) 가운데 22위를 차지함. 2010년 대비 증가율은 51.7%로, 35개국 건설산업(평균 8.1%) 중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건설산업 근로자의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23만 5달러), 스위스(11만 5,340달러), 캐나다(11만 1,890달러), 노르웨이(11만 6달러), 이스라엘(10만 2,230달러) 순임. 낮은 국가는 헝가리(1만 7,000달러), 멕시코(1만 9,850달러), 라트비아(2만 4,700달러), 칠레(2만 4,710달러), 포르투갈(2만 5,180달러) 순으로 분석됨.

- 2017년 국내 전체 산업 근로자의 1인당 GDP는 6만 760달러로 건설산업 4만 5,030달러보다 1.35배(OECD 35개국 평균 차이 1.48배) 높았음. 2010년의 차이 1.60배에 비해 15.9%(35개국 평균 5.3% 감소) 감소하였음.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1. 3대 통계 분석으로 본 국내 전체 및 건설산업

- (전체 산업) 2010년 대비 2017년 GDP는 41.9%, 근로자 수는 11.2% 증가하였음. 반면, 사고사망자 수는 13.5% 감소하였음.

- 이는 OECD 36개국 평균 수준인 GDP 11.3% 증가, 근로자 수 8.7% 증가, 사고

사망자 수 7.7% 감소 폭을 각각 3.7배, 1.3배, 1.8배 웃도는 수치로 향상되었음을 의미함.

- OECD 경제 10대 회원국 내에서는 GDP 증가율 1위, 근로자 수 증가율 2위, 사고사망자 수 감소율 5위임. OECD 경제 10대 회원국 중 3가지 통계의 증감률이 평균을 모두 웃도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 (건설산업) 국내 건설산업의 경우 동 기간 GDP가 70.6% 증가, 근로자가 12.4% 증가, 사고사망자 수가 4.2% 감소하였음.

- OECD 36개국 평균인 GDP 14.9% 증가, 근로자 수 6.3% 증가보다 각각 4.7배, 1.9배 개선되었음을 의미함. 이에 비해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하긴 하였지만, OECD 35개국 평균인 5.8%보다는 감소 폭이 작음.

- OECD 경제 10대 회원국 내에서는 GDP 증가율 1위, 근로자 수 증가율 4위, 사고사망자 수 감소율 7위임.

- 3가지 통계 모두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국가는 한국과 호주가 유일하며, 3가지 통계 모두가 10개국 평균 이상으로 향상된 국가는 전체 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 건설산업이 유일함.

2. 3대 지표 분석으로 본 국내 전체 및 건설산업

- (전체 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와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가 각각 22.2%, 39.0% 감소한 반면, 근로자 1인당 GDP는 27.6% 증가하였음.

- 이는 OECD 35개국 평균 수준인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15.1% 감소,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17.1% 감소, 근로자 1인당 GDP 2.4% 증가 폭을 각각 1.5배, 2.3배, 11.6배 웃도는 수치로 향상되었음을 의미함.

- 우리나라는 10대 회원국 중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10개국 평균과 같은 감소율(10개국 중 4위)을 보임. 또한, 근로자 1인당 GDP는 한국이 51.7%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OECD 경제 10대 회원국 중 3가지 지표의 증감률이 평균을 모두 웃도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 물론 2017년 전체 산업의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가 35개국 중 5번째 높고,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가 7번째로 높아 개선의 여지도 많음.

- (건설산업) 국내 건설산업의 경우 동 기간에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가 14.8% 감소,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가 43.8% 감소, 근로자 1인당 GDP가 51.7% 증가하였음.

- 이는 OECD 35개국 평균인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11.4% 감소,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18.1% 감소, 근로자 1인당 GDP 8.1% 증가 폭을 각각 1.4배, 2.4배, 6.4배 상회하는 수치임.
- OECD 경제 10대 회원국 내에서는 GDP 증가율 1위, 근로자 수 증가율 4위, 사고사망자 수 감소율 7위임.
- 또한, OECD 경제 10대 회원국 중 3가지 지표의 증감률이 평균을 모두 웃도는 국가는 전체 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 건설산업이 유일함.
- 2017년 지표만 놓고 봤을 때, 국내 건설산업의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35개국 중 가장 높고,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도 2번째로 높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제4장 결론

-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국가별 산업재해 자료를 제공하는 국제기관은 국제노동기구 통계(ILO Statistics)와 유럽연합 통계(Eurostat)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하지만 이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와 같은 자료도 국가별로 산정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 사고사망(십)만인율 산정 방법의 차이는 분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차이에서 주로 기인하게 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OECD에서 집계하는 연평균 근로자 수를 적용하여, 분모의 산정 방법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음.
- 사고사망재해 관련 통계나 지표를 특정 연도에서만 비교하지 않고, 과거 대비 변화, 즉 개선도 측면에서의 비교도 함께 수행함.
- 사고사망재해 관한 자료의 국가별 비교뿐만 아니라 GDP, 근로자 수와 같은 경제 규모의 비교도 함께 수행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별 사고사망재해 변화 추이와 차이를 이해하고자 하였음.
- OECD 회원국 전체와 OECD 10대 회원국 내에서 국내 전체 및 건설산업의 수준을 비교하였음. OECD 회원국에는 국내 경제 규모와 큰 차이를 보이는 국가들도 다수 존재하기에 이러한 규모의 차이로 인해 비교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경우가 존재함.

- OECD 국가와의 비교·분석 결과, 국내 전체 및 건설산업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경제(GDP), 고용(근로자 수), 안전(사고사망자 수 등)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OECD 평균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음.

-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일명 중대재해 기업살인법과 같은 징벌 중심의 조치는 건설안전 개선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경제와 고용 측면에서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음.

- 국내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는 추가적인 징벌과 규제가 아니라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다방면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하고 가이드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1.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등 단기간에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음. 2017년 기준 한국의 GDP는 약 1조 6,239억 달러로 OECD 가입국 36개국 중 8위임.
-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GDP는 약 1조 7,208억 달러로 세계 10위, 1인당 GDP는 3만 3,433.6달러로 세계 24위로 나타남.
- 하지만, 압축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한국은 산재 공화국, 산재 후진국과 같은 오명을 안고 있으며, 여러 언론에서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 혹은 압도적 1위라고 얘기하고 있음.
- 다양한 언론에서 국내 산재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OECD 통계¹⁾를 살펴본 결과 OECD는 산업재해와 관련한 통계는 집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문헌검토 결과, 국가별 산업재해 수준을 사고사망만인율과 같은 정량적 지표로 비교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건설산업 재해 수준을 정량적 지표로 OECD 국가 등과 비교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통계청은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OECD)를 국제통계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2015년 이후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며, 건설산업을 포함한 산업별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OECD) 자료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 통계²⁾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사고사망십만인율(Fatal Occupational Injuries per 100,000 Workers) 중 OECD 국

1) OECD Statistics : <https://stats.oecd.org/>.

2) ILO Statistics : <https://www.ilo.org/global/lang-en/index.htm>.

가만을 선별한 자료임.

- 이로 인해 국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OECD 국가별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 자료는 ILO에 가입하지 않은 OECD 국가(예를 들어 캐나다 등) 자료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 자료는 앞서 언급한 단점 이외에도, 국가별로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상이하여 국가별 비교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음.
-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에서 치명적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의미하기에 국가별로 집계방식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³⁾
- 하지만,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총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국가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가입자, 취업자, 임금근로자 등 다양하여 국가별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 산정방법에 차이를 보이게 됨.
- 국내 연간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는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을 사고사망십만인율로 환산한 자료이며, 국내는 연간 총근로자 수에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를 적용하고 있음.⁴⁾
- 고용노동부에서 집계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와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집계하는 근로자 수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보임.
- 전체 산업 : 2018년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⁵⁾는 약 1,907만명, 통계청에서 조사한 근로자 수는 약 2,682만명으로, 2018년 전체 산업 근로자 수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약 1.41배 많음.
- 건설산업 : 2018년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는 약 294만명, 통계청에서 조사한 근로자 수는 약 203만명으로, 전체 산업 결과와는 반대로 2018년 건설산업 근로자 수는

3)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은폐는 크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통계자료를 활용함.

4) 연도별 산업재해현황분석, 고용노동부.

5) 2018년 산업재해현황분석(201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집계한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가 약 1.4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는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 산정에서 연간 근로자 수를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를 적용하기에 미국, 일본 등과 같이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취업자 기준 근로자 수를 적용하는 국가와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음.
- 국내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는 산재로 신청되는 신청서를 기준으로 집계되어 왔기에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 수에 산재보험 가입자 수를 적용하는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님.
- 국가별로 연간 근로자 수에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것은 산업재해를 집계하는 모집단이 다르기 때문이지 특정 국가가 적용하는 방법이 옳고 국내 방법이 그르다고 얘기하기는 힘든 부분임.
- 본 연구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OECD 국가별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가 국내 산업재해 수준을 국가 비교를 통해 파악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 시작함.
- 첫째, 국가별 산업재해 집계 방법의 차이로 인해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상이하여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 산정 방법에 차이를 보임.
- 둘째, 국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2015년 이후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기에, 최신 경향을 비교하기 힘들.
- 셋째, 산업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국내 건설산업의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를 타 국가와 비교하여 국내 건설산업의 재해 수준을 평가할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음.
- 본 연구는 국내 전체 산업 및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실태가 OECD 국가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관련한 다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에 주된 목적이 있음.
- 연구를 수행 도중 수집한 자료들은 부록에 모두 담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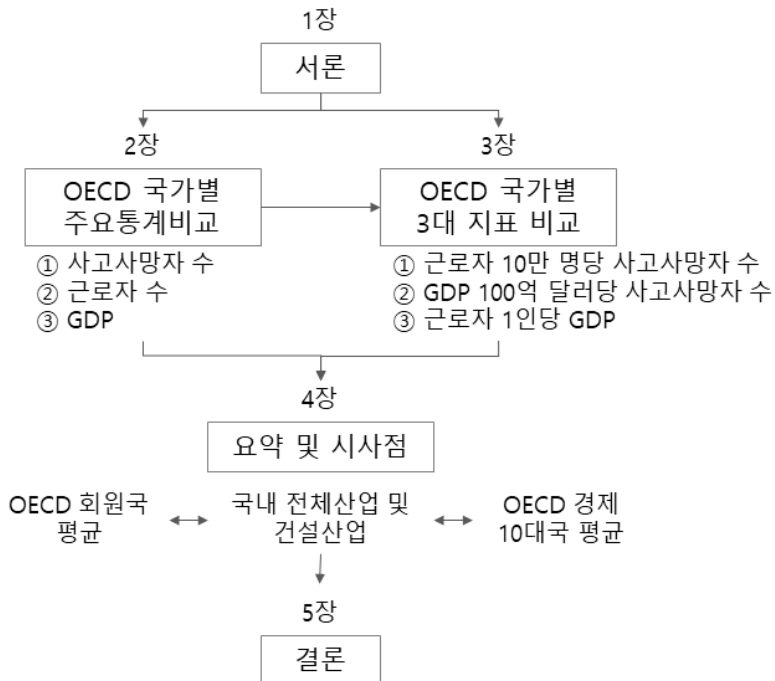
2. 연구의 구성

- 본 연구는 OECD 가입국의 산재 사망사고 수 실태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자료를 조사하고, 필요한 통계들을 조합하여 비교 가능한 지표를 도출하였음.

· 국가별 산재 사망사고 수준은 수집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최신 자료 비교와 과거 대비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개선도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음.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그림 1-1> 연구 흐름도



- 2장에서는 OECD 36개 회원국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근로자 수, 국내 총생산(GDP) 자료(2010~2017년)를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비교·분석함.
- 3장은 2장에서 조사한 3대 주요 통계자료를 조합하여 각 나라의 경제 규모(근로자 수 혹은 GDP)를 반영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한 지표를 도출하고 연도별, 그리고 국가별로 분석함.
- 4장에서는 2장에서 분석한 3대 통계자료와 3장에서 분석한 3대 지표를 국내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OECD 회원국 평균 및 OECD 경제 10대 회원국과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1. 개요

(1) 대상 국가

- 국내 건설산업의 산재 사망사고 실태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경제협력 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36개⁶⁾ 회원국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근로자 수, 국내총생산(GDP)을 조사함.
 - 아시아(4개국) : 한국, 일본, 터키, 이스라엘
 - 북아메리카(3개국) : 미국, 캐나다, 멕시코
 - 남아메리카(1개국) : 칠레
 - 유럽(26개국) : 영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독일, 그리스,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핀란드,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오세아니아(2개국) : 호주, 뉴질랜드
- OECD 회원국의 주요 통계는 OECD 통계, ILO 통계, 유럽연합 통계(Eurostat) 및 각 국가의 통계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음.
 - 통계자료는 국가별로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으로 구분하고, 2010년 이후부터 수집 가능한 최신 자료를 조사하였음.
 - 2010년을 비교 대상 연도로 선택한 이유는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 추정이 2010년부터 가능하기 때문임. 다른 자료의 경우 2010년 이전 자료도 조사 가능함.

6) 2020년 5월 기준 OECD 회원국은 37개국이나, 2020년 4월 28일 최종 가입한 콜롬비아는 관련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국가에서 제외함.

(2)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 OECD 회원국의 전체 산업 및 건설산업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이하 사고사망자 수)는 유럽연합 통계자료·각 회원국 통계자료·ILO 통계자료를 통해 조사했으며, 조사 개요는 다음 표와 같음.
- 유럽 국가는 유럽연합 통계를 통해 수집하였으나, 최신 자료가 2017년임. 또한, 26개국 중 아이슬란드의 사고사망자 수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 터키와 이스라엘은 자국 통계에서 사고사망자 수가 파악되지 않아 ILO 통계를 활용함. 하지만, ILO는 자료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터키는 2016년까지 자료를 제공하고, 이스라엘의 경우 2010~2011년, 2013년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는 각 국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일부 국가(칠레와 뉴질랜드)의 경우 과거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표 II-1> OECD 회원국 사고사망자 수 조사 개요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출처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일본											ILO 및 자국 통계
터키											ILO
이스라엘											ILO
미국											자국 통계
캐나다											자국 통계
멕시코											자국 통계
칠레											자국 통계
유럽 25개국											유럽연합 통계
호주											자국 통계
뉴질랜드											자국 통계

- 국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OECD 가입국의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사고사망십만인율)는 ILO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됨. 하지만,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며, 건설산업에 대한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음.

- 국내 통계청은 ILO에 가입한 OECD 회원국의 전체 산업 사고사망십만인율만을 제공하며, 전체 산업 및 건설산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 사고사망십만인율은 국가별 산정 방식이 다르기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 비교를 하지 않음.

(3) 근로자 수

- OECD 회원국의 전체 산업 및 건설산업 근로자 수는 ILO와 각 회원국 통계자료를 통해 조사했으며,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유럽 26개국을 포함한 대부분 회원국의 근로자 수는 ILO 통계자료를 조사하였으며, ILO에서 제공하지 않는 3개국(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및 국내 자료는 자국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수집함.

<표 II-2> OECD 회원국 근로자 수 조사 개요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출처
한국											통계청
일본											ILO
터키											ILO
이스라엘											ILO
미국											ILO
캐나다											자국 통계
멕시코											ILO
칠레											자국 통계
유럽 26개국											ILO
호주											ILO
뉴질랜드											ILO 및 자국 통계

- 국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OECD 가입국의 산업별 취업자 수는 ILO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 하지만, 국내 통계청 자료는 ILO에 가입하지 않은 OECD 가입국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국가(이스라엘, 호주 등)에 대한 자료는 ILO에서 제공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통계청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3) 국내총생산(GDP)

- OECD 회원국의 전체 산업 및 건설산업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GDP)은 OECD 통계자료에서 조사했으며,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음.
- GDP는 경상가격(Current Prices)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단위는 연도별 평균 환율(Current Exchange Rates)을 적용한 미국 달러로 환산한 금액으로 조사함.
- 캐나다는 전체 산업 GDP는 2019년까지 조사하였으나, 건설산업 GDP는 2016년까지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음.
- 일부 국가의 최근 연도 자료는 잠정적 수치(Provisional Value)를 포함하고 있음.

<표 II-3> OECD 회원국 GDP 조사 개요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출처
한국											OECD Statistics
일본											
터키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유럽 26개국											
호주											
뉴질랜드											

- 조사한 3가지 통계자료의 경우 유럽 26개국의 사고사망자 수 최신 자료가 2017년임을 감안하여 2017년 자료를 최신 자료로 비교하였음.
- 근로자 수와 GDP 통계자료는 2018년 국가별 비교가 가능함.
- 2017년 자료가 부재한 터키(사고사망자 수)와 캐나다(건설산업 GDP)는 2016년을 최신 자료로 분석하였음.

- 증감률의 경우 2010년 대비 2017년 변화를 분석하였으나, 2010년 자료가 부재한 이스라엘, 칠레, 뉴질랜드는 각각 2012년, 2013년, 2011년 대비 2017년 자료의 증감률을 분석하였음.

2. 사고사망자 수 비교

(1) 전체 산업

-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OECD 회원국 35개국에서 발생한 2017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1만 4,341명으로 집계되며, 2010년 1만 5,534명에 비해 약 7.7% 감소하였음.
- 터키는 2017년 대신 2016년 자료를, 이스라엘, 칠레, 뉴질랜드는 2010년 대신 각각 2012년, 2013년, 2011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 2017년 기준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5,147명)이며, 한국은 964명으로 35개국 중 5번째로 사고사망자 수가 많음.
-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미국(5,147명), 터키(1,406명, 2016년 기준), 일본(978명), 멕시코(971명), 한국(964명) 순으로 조사됨.
-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에스토니아(8명), 룩셈부르크(10명), 슬로베니아(16명), 라트비아(21명), 핀란드(23명) 순임.
- 2010년 대비 2017년 사고사망자 수 증감률은 스위스가 59.3%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으나, 영국의 경우 동기간 오히려 62.8%가 증가하였음.⁷⁾ 한국의 경우 2010년 1,114명에서 2017년 964명으로 13.5% 감소하여 35개국 중 25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보임.
- 35개국 중 31개국이 동기간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59.3%)이며, 에스토니아(52.9%), 오스트리아(47.3%), 네덜란드(45.6%),

7) 영국은 2012년까지 Great Britain 통계만을 제공하였으나, 2013년부터 North Ireland 지역의 통계를 추가한 현재의 United Kingdom 통계를 제공함. 이로 인해 2013년부터 사고사망자 수를 포함한 통계 수치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됨.

뉴질랜드(42.6%, 2011년 대비 2017년 감소율) 순임.

· 35개국 중 3개국은 동기간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하였음. 영국이 62.8%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미국(9.7%), 프랑스(8.9%) 순임.

- 국가별 사고사망자 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근로자 수, 산업 규모 등의 경제 규모가 고려되지 않아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

<표 II-4>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 수

국가		2010	2017	증감률(%)	국가		2010	2017	증감률(%)
아시아	한국	1,114	964	▽13.5	유럽	스웨덴	54	44	▽18.5
	일본	1,195	978	▽18.2		스위스	91	37	▽59.3
	터키	1,444	1,406	▽2.6		오스트리아	182	96	▽47.3
	이스라엘	62	50	▽19.4		네덜란드	79	43	▽45.6
북미	미국	4,690	5,147	△9.7		룩셈부르크	15	10	▽33.3
	캐나다	1,014	951	▽6.2		이탈리아	718	484	▽32.6
	멕시코	1,146	971	▽15.3		핀란드	37	23	▽37.8
남미	칠레	454	347	▽23.6		체코	121	95	▽21.5
유럽	영국	172	280	△62.8		헝가리	96	80	▽16.7
	덴마크	41	28	▽31.7		폴란드	446	270	▽39.5
	노르웨이	46	44	▽4.3		슬로바키아	48	43	▽10.4
	스페인	338	317	▽6.2		슬로베니아	24	16	▽33.3
	포르투갈	204	140	▽31.4	에스토니아	17	8	▽52.9	
	프랑스	537	585	△8.9	라트비아	25	21	▽16.0	
	아일랜드	42	41	▽2.4	리투아니아	50	33	▽34.0	
	벨기에	74	59	▽20.3	오세아	호주	223	190	▽14.8
	독일	567	430	▽24.2	니아	뉴질랜드	136	78	▽42.6
	그리스	32	32	0.0	35개국 합계	15,534	14,341	▽7.7	

주 : 1)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35개국을 대상으로 함.

2) 터키는 2017년 대신 2016년 자료를, 이스라엘, 칠레, 뉴질랜드는 2010년 대신 각각 2012년, 2013년, 2011년 자료임. 증감률은 2010년 대비 2017년 증감률 분석을 원칙으로 하되, 4개국의 경우 가능한 범위 안에서 비교하여 산출함.

3)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하여 악화되었음을 의미함.

(2) 건설산업

-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OECD 회원국 35개국에서 발생한 2017년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총 3,534명으로 집계되며, 2010년 3,752명에 비해 약 5.8% 감소하였음.

- 2017년 건설산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1,013명)이며, 한국은 506명으로 35개국 중 2번째로 건설산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가 많은 국가임.
-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미국(1,013명), 한국(506명), 터키(497명, 2016년 기준), 일본(323명), 캐나다(217명) 순으로, 국가별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 수 순위가 높은 나라에서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도 높게 나타남.
-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에스토니아와 룩셈부르크가 각각 1명, 핀란드 2명, 라트비아 5명, 아일랜드·네덜란드·슬로베니아·리투아니아가 각각 4명으로 조사됨.

<표 II-5> OECD 회원국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

국가		2010	2017	증감률(%)	국가		2010	2017	증감률(%)
아시아	한국	528	506	▽4.2	유럽	스웨덴	14	7	▽50.0
	일본	364	323	▽11.4		스위스	19	14	▽26.3
	터키	475	497	△4.6		오스트리아	21	23	△9.5
	이스라엘	32	28	▽12.5		네덜란드	15	4	▽73.3
북미	미국	802	1,013	△26.3		룩셈부르크	2	1	▽50.0
	캐나다	232	217	▽6.5		이탈리아	183	89	▽51.4
	멕시코	232	187	▽19.4		핀란드	7	2	▽71.4
남미	칠레	105	63	▽40.0		체코	27	19	▽29.6
	영국	50	54	△8.0		헝가리	26	22	▽15.4
유럽	덴마크	8	5	▽37.5		폴란드	114	58	▽49.1
	노르웨이	9	7	▽22.2		슬로바키아	3	9	△200.0
	스페인	100	73	▽27.0		슬로베니아	12	4	▽66.7
	포르투갈	67	42	▽37.3		에스토니아	4	1	▽75.0
	프랑스	113	105	▽7.1		라트비아	5	5	0.0
	아일랜드	5	4	▽20.0	리투아니아	6	4	▽33.3	
	벨기에	22	12	▽45.5	오세아니아	호주	44	30	▽31.8
	독일	85	89	△4.7	뉴질랜드	8	10	△25.0	
	그리스	13	7	▽46.2	35개국 합계	3,752	3,534	▽5.8	

주 : 1)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35개국을 대상으로 함.

2) 터키는 2017년 대신 2016년 자료를, 이스라엘, 칠레, 뉴질랜드는 2010년 대신 각각 2012년, 2013년, 2011년 자료임. 증감률은 2010년 대비 2017년 증감률 분석을 원칙으로 하되, 4개국의 경우 가능한 범위 안에서 비교하여 산출함.

3)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하여 악화되었음을 의미함.

- 2010년 대비 2017년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 증감률은 에스토니아가 75.0% 하락하

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으나, 슬로바키아의 경우 동기간 200.0%가 증가하였음. 한국의 경우 2010년 528명에서 2017년 506명으로 4.2% 감소하여 35개국 중 27번째로 분석됨.

- 35개국 중 28개국이 동기간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에스토니아(75.0%)이며, 네덜란드(73.3%), 핀란드(71.4%), 슬로베니아(66.7%), 이탈리아(51.4%) 순임.
- 35개국 중 7개국은 동기간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슬로바키아가 200.0%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미국(26.3%), 오스트리아(9.5%), 영국(8.0%), 독일(4.7%) 순임.
- 건설산업의 경우 2017년 사고사망자 수가 10명 미만인 국가가 13개임을 고려하면 증감률 분석 결과를 해석함에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증감률 분석 결과의 경우 전체 산업에서는 동기간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한 국가가 3개국에 불과하였음. 하지만, 건설산업의 경우 7개국에서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했음을 고려하면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 관리가 부신했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나, 샘플 수가 적은 국가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

(3)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 비중

- OECD 회원국 35개국의 2017년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 비중은 약 24.6%로, 2010년 24.2%에 비해 약 0.4%p 증가하였음.
- 2017년 전체 산업 대비 건설산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56.0%)이며, 한국은 52.5%로 35개국 중 2번째로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비중이 높은 국가임.
-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비중은 이스라엘(56.0%), 한국(52.5%), 스위스(37.8%), 터키(35.3%, 2016년 기준), 일본(33.0%) 순으로 분석됨.
-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비중이 낮은 국가는 핀란드(8.7%), 네덜란드(9.3%), 아일랜드(9.8%), 룩셈부르크(10.0%), 리투아니아(12.1%) 순임.

- 2010년 대비 2017년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비중은 슬로베니아가 25.0%p 줄어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스위스의 경우 동기간 17.0%p가 늘어 가장 크게 증가함. 한국의 경우 2010년 47.4%에서 2017년 52.5%로 5.1%p 증가하여 35개국 중 6번째 높게 증가한 국가로 분석됨.
- 35개국 중 22개국이 동기간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감소 폭은 슬로베니아(25.0%p), 그리스(18.8%p), 에스토니아(11.0%p), 핀란드(10.2%p), 스웨덴 (10.0%p) 순임.
- 35개국 중 13개국은 동기간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폭은 스위스(17.0%p)가 가장 크며, 슬로바키아(14.7%p), 오스트리아(12.4%p), 뉴질랜드 (6.9%p), 독일(5.7%p) 순임.

<표 II-6> OECD 회원국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 비중

(단위 : %, %p)

국가		2010	2017	증감	국가		2010	2017	증감
아시아	한국	47.4	52.5	△5.1	유럽	스웨덴	25.9	15.9	▽10.0
	일본	30.5	33.0	△2.5		스위스	20.9	37.8	△17.0
	터키	32.9	35.3	△2.5		오스트리아	11.5	24.0	△12.4
	이스라엘	51.6	56.0	△4.4		네덜란드	19.0	9.3	▽9.7
북미	미국	17.1	19.7	△2.6		룩셈부르크	13.3	10.0	▽3.3
	캐나다	22.9	22.8	▽0.1		이탈리아	25.5	18.4	▽7.1
	멕시코	20.2	19.3	▽1.0		핀란드	18.9	8.7	▽10.2
남미	칠레	23.1	18.2	▽5.0		체코	22.3	20.0	▽2.3
유럽	영국	29.1	19.3	▽9.8		헝가리	27.1	27.5	△0.4
	덴마크	19.5	17.9	▽1.7		폴란드	25.6	21.5	▽4.1
	노르웨이	19.6	15.9	▽3.7		슬로바키아	6.3	20.9	△14.7
	스페인	29.6	23.0	▽6.6		슬로베니아	50.0	25.0	▽25.0
	포르투갈	32.8	30.0	▽2.8		에스토니아	23.5	12.5	▽11.0
	프랑스	21.0	17.9	▽3.1	라트비아	20.0	23.8	△3.8	
	아일랜드	11.9	9.8	▽2.1	리투아니아	12.0	12.1	△0.1	
	벨기에	29.7	20.3	▽9.4	오세아	호주	19.7	15.8	▽3.9
	독일	15.0	20.7	△5.7	니아	뉴질랜드	5.9	12.8	△6.9
	그리스	40.6	21.9	▽18.8	35개국 합계		24.2	24.6	△0.4

주 : 1)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35개국을 대상으로 함.

2) 터키는 2017년 대신 2016년 자료를, 이스라엘, 칠레, 뉴질랜드는 2010년 대신 각각 2012년, 2013년, 2011년 자료임. 증감률은 2010년 대비 2017년 증감률 분석을 원칙으로 하되, 4개국의 경우 가능한 범위 안에서 비교하여 산출함.

3)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함.

(4) 소결

- (전체 산업) 2017년 국내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OECD 35개 회원국 중 5번째로 많으나, 2010년 대비 감소율은 13.5%로 35개국 평균 7.7%보다 5.8%p 높았음.
- 국가별 사고사망자 수 비교는 각 국가의 근로자 수, GDP 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로서 의미가 크지 않음.
- (건설산업) 2017년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OECD 35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많으며, 2010년 대비 사고사망자 수가 4.2% 감소하였음. 35개국 평균(5.8%)과 비교할 때 약 1.6%p 낮음.
-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비중은 국내가 2017년 기준 52.5%로 35개국 평균(24.6%)보다 약 2.1배 높은 것으로 분석됨.

3. 근로자 수 비교

- OECD 회원국의 근로자 수 자료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35개국이 2018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앞서 분석한 사고사망자 수 분석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2017년 자료를 최신 자료로 활용함.
- 이스라엘과 칠레는 2010년 대신 각각 2012년, 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회원국별 근로자 수 분석은 아이슬란드를 포함한 36개국을 대상으로 함.

(1) 전체 산업

- OECD 회원국 36개국에서 집계한 2017년 전체 산업 근로자는 약 5억 9,047만명으로, 2010년 약 5억 4,301만명보다 약 8.7% 증가하였음.
- 2017년 기준 전체 산업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약 1억 5,333만명)이며, 한국은 약 2,672만명으로 36개국 중 8번째로 근로자 수가 많은 국가임.

- 전체 산업 근로자 수는 미국(1억 5,333만명), 일본(6,530만명), 멕시코(5,234만명), 독일(4,166만명), 영국(3,196만명) 순임.
 - 근로자 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아이슬란드(19만명), 룩셈부르크(27만명), 에스토니아(65만명), 라트비아(89만명), 슬로베니아(95만명) 순임.
- 2010년 대비 2017년 근로자 수 증감률은 터키가 24.8%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나, 그리스는 동기간 14.5%가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임. 한국은 2010년 2,403만명에서 2017년 2,672만명으로 11.2% 증가하여 36개국 중 11번째로 높은 근로자 수 증가율을 보임.

<표 II-7>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근로자 수

(단위 : 천명)

국가		2010	2017	증감률(%)	국가		2010	2017	증감률(%)
아시아	한국	24,033	26,725	△11.2	유럽	스웨덴	4,524	5,022	△11.0
	일본	62,980	65,300	△3.7		스위스	4,208	4,637	△10.2
	터키	22,593	28,197	△24.8		오스트리아	4,017	4,260	△6.0
	이스라엘	3,347	3,814	△14.0		네덜란드	8,290	8,605	△3.8
북미	미국	139,064	153,337	△10.3		룩셈부르크	220	271	△23.2
	캐나다	14,738	16,273	△10.4		이탈리아	22,527	23,023	△2.2
	멕시코	46,122	52,341	△13.5		핀란드	2,447	2,473	△1.1
남미	칠레	8,041	8,595	△6.9		체코	4,885	5,222	△6.9
	영국	29,125	31,963	△9.7		헝가리	3,732	4,421	△18.5
유럽	덴마크	2,706	2,816	△4.1		폴란드	15,473	16,423	△6.1
	아이슬란드	166	194	△16.9		슬로바키아	2,317	2,531	△9.2
	노르웨이	2,501	2,644	△5.7		슬로베니아	966	959	▽0.7
	스페인	18,724	18,825	△0.5		에스토니아	568	659	△16.0
	포르투갈	4,898	4,757	▽2.9		라트비아	851	895	△5.2
	프랑스	25,731	26,880	△4.5		리투아니아	1,248	1,355	△8.6
	아일랜드	1,926	2,194	△13.9		오세아니아	호주	10,991	12,276
	벨기에	4,489	4,638	△3.3	니아	뉴질랜드	2,180	2,529	△16.0
	독일	37,993	41,664	△9.7	36개국 합계		543,011	590,471	△8.7
	그리스	4,390	3,753	▽14.5					

주 : 1) 이스라엘과 칠레는 2010년 대신 각각 2012년, 2013년 자료임. 증감률은 2010년 대비 2017년 증감률 분석을 원칙으로 하되, 2개국의 경우 가능한 범위 안에서 비교하여 산출함.

2)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함.

- 36개국 중 33개국이 동기간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터키(24.8%)이며, 룩셈부르크(23.2%), 헝가리(18.5%), 아이슬란드(16.9%), 에스토니아(16.0%) 순임.

- 동기간 3개국은 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그리스(14.5%), 포르투갈(2.9%), 슬로베니아(0.7%) 순임.

(2) 건설산업

- 2017년 OECD 36개 회원국 건설산업 근로자는 약 4,264만명으로, 2010년 약 4,009만 명보다 약 6.3% 증가하였음.
- 2017년 기준 건설산업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약 1,121만명)이며, 한국은 약 198만명으로 36개국 중 7번째로 건설산업 근로자 수가 많은 국가임.
 - 건설산업 근로자 수는 미국(1,121만명), 일본(498만명), 멕시코(427만명), 독일(283만명), 영국(233만명) 순으로 전체 산업 근로자 수 순위와 동일함.
 - 근로자 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아이슬란드(1.2만명), 룩셈부르크(1.5만명), 슬로베니아(5.3만명), 에스토니아(5.7만명), 라트비아(6.3만명) 순임.
- 2010년 대비 2017년 건설산업 근로자 수 증감률은 터키가 46.4%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나, 그리스는 동기간 53.4%가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임. 한국은 2010년 176만명에서 2017년 198만명으로 12.4% 증가하여 36개국 중 14번째로 높은 건설산업 근로자 수 증가율을 보임.
 - 36개국 중 24개국이 동기간 건설산업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터키(46.4%)이며, 뉴질랜드(35.8%), 아일랜드(29.0%), 이스라엘(28.3%, 2012년 대비 2017년 증가율), 캐나다(20.3%) 순임.
 - 동기간 12개국은 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그리스(53.4%), 포르투갈(34.0%), 스페인(31.7%), 이탈리아(25.0%), 체코(15.7%) 순임.
- 동기간 전체 산업 근로자 수가 감소한 국가(3개국)에 비해 건설산업 근로자 수가 감소한 국가가 12개국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36개국 건설산업 평균 근로자 수 증가율은 6.3%로 전체 산업 평균 증가율 8.7%보다 약 2.4%p 낮았음.
- 하지만 국내의 경우 전체 산업 근로자 수 증가율 11.2%보다 건설산업 근로자 수 증가율(12.4%)이 약 1.2%p 높았으며, OECD 36개국 건설산업 근로자 수 평균 증가율 6.3%보다 약 2배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표 II-8> OECD 회원국 건설산업 근로자 수

(단위 : 천명)

국가		2010	2017	증감률(%)	국가		2010	2017	증감률(%)
아시아	한국	1,768	1,988	△12.4	유럽	스웨덴	302	342	△13.2
	일본	5,040	4,980	▽1.2		스위스	275	311	△13.1
	터키	1,432	2,097	△46.4		오스트리아	335	342	△2.1
	이스라엘	152	195	△28.3		네덜란드	452	409	▽9.5
북미	미국	9,607	11,214	△16.7		룩셈부르크	14	14	0.0
	캐나다	829	997	△20.3		이탈리아	1,889	1,416	▽25.0
	멕시코	3,602	4,275	△18.7		핀란드	172	187	△8.7
남미	칠레	691	722	△4.5		체코	465	392	▽15.7
유럽	영국	2,216	2,336	△5.4		헝가리	273	303	△11.0
	덴마크	158	168	△6.3		폴란드	1,257	1,223	▽2.7
	아이슬란드	11	12	△9.1		슬로바키아	258	244	▽5.4
	노르웨이	180	213	△18.3		슬로베니아	58	53	▽8.6
	스페인	1,651	1,128	▽31.7		에스토니아	48	57	△18.8
	포르투갈	467	308	▽34.0		라트비아	58	63	△8.6
	프랑스	1,900	1,740	▽8.4	리투아니아	87	99	△13.8	
	아일랜드	100	129	△29.0	오세아니아	호주	999	1,138	△13.9
	벨기에	323	318	▽1.5	니아	뉴질랜드	179	243	△35.8
	독일	2,530	2,837	△12.1	36개국 합계		40,098	42,642	△6.3
	그리스	320	149	▽53.4					

주 : 1) 이스라엘과 칠레는 2010년 대신 각각 2012년, 2013년 자료임. 증감률은 2010년 대비 2017년 증감률 분석을 원칙으로 하되, 2개국의 경우 가능한 범위 안에서 비교하여 산출함.

2)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함.

(3) 건설산업 근로자 수 비중

- OECD 36개 회원국의 2017년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근로자 수 비중은 약 7.2%(4.0~9.6%)로, 2010년 7.4%에 비해 약 0.2%p 감소하였음.

- 2017년 전체 산업 대비 건설산업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슬로바키아(9.6%)이며, 한국은 7.4%로 36개국 평균과 유사함.
- 건설산업 근로자 비중은 슬로바키아(9.6%), 뉴질랜드(9.6%), 호주(9.3%), 에스토니아(8.6%), 칠레(8.4%) 순임.
- 건설산업 근로자 비중이 적은 국가는 그리스(4.0%), 네덜란드(4.8%), 이스라엘(5.1%), 룩셈부르크(5.2%), 슬로베니아(5.5%) 순임.
- 2010년 대비 2017년 건설산업 근로자 비중 증감은 뉴질랜드가 1.4%p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으며, 그리스의 경우 동기간 3.3%p가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임. 한국의 경우 2010년과 2017년 비중이 7.4%로 동일함.
- 35개국 중 18개국이 동기간 건설산업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17개국은 건설산업 근로자 비중이 감소하였음.

<표 II-9> OECD 회원국 건설산업 근로자 수 비중

(단위 : %, %p)

국가		2010	2017	증감	국가		2010	2017	증감
아시아	한국	7.4	7.4	△0.1	유럽	스웨덴	6.7	6.8	△0.1
	일본	8.0	7.6	▽0.4		스위스	6.5	6.7	△0.2
	터키	6.3	7.4	△1.1		오스트리아	8.3	8.0	▽0.3
	이스라엘	4.5	5.1	△0.6		네덜란드	5.5	4.8	▽0.7
북미	미국	6.9	7.3	△0.4		룩셈부르크	6.4	5.2	▽1.2
	캐나다	5.6	6.1	△0.5		이탈리아	8.4	6.2	▽2.2
	멕시코	7.8	8.2	△0.4		핀란드	7.0	7.6	△0.5
남미	칠레	8.6	8.4	▽0.2		체코	9.5	7.5	▽2.0
	영국	7.6	7.3	▽0.3		헝가리	7.3	6.9	▽0.5
유럽	덴마크	5.8	6.0	△0.1		폴란드	8.1	7.4	▽0.7
	아이슬란드	6.6	6.2	▽0.4		슬로바키아	11.1	9.6	▽1.5
	노르웨이	7.2	8.1	△0.9		슬로베니아	6.0	5.5	▽0.5
	스페인	8.8	6.0	▽2.8		에스토니아	8.5	8.6	△0.2
	포르투갈	9.5	6.5	▽3.1		라트비아	6.8	7.0	△0.2
	프랑스	7.4	6.5	▽0.9	리투아니아	7.0	7.3	△0.3	
	아일랜드	5.2	5.9	△0.7	호주	9.1	9.3	△0.2	
	벨기에	7.2	6.9	▽0.3	뉴질랜드	8.2	9.6	△1.4	
	독일	6.7	6.8	△0.2					
	그리스	7.3	4.0	▽3.3	36개국 합계	7.4	7.2	▽0.2	

주 : 1) 이스라엘과 칠레는 2010년 대신 각각 2012년, 2013년 자료임. 증감률은 2010년 대비 2017년 증감률 분석을 원칙으로 하되, 2개국의 경우 가능한 범위 안에서 비교하여 산출함.

2)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함.

(4) 소결

- (전체 산업) 2017년 국내 전체 산업 근로자 수는 OECD 36개 회원국 중 8번째로 많으며, 2010년 대비 증가율은 11.2%로 36개국 평균 8.7%보다 2.5%p 높았음.
- (건설산업) 2017년 국내 건설산업 근로자 수는 36개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많으며, 2010년 대비 근로자 수는 12.4% 증가하여 36개국 평균 6.3%보다 약 6.1%p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건설산업 근로자 비중은 국내가 2017년 기준 7.4%로 36개국 평균 7.2%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됨.

4. 국내총생산(GDP) 비교

- OECD 회원국의 GDP 자료는 미국을 제외한 35개국이 2018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앞서 분석과의 비교를 위해 2017년 자료를 최신 자료로 활용함.
 - 캐나다는 건설산업 2017년 GDP 자료가 부재하여 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회원국별 GDP 분석은 36개국을 대상으로 함.

(1) 전체 산업

- OECD 36개 회원국의 2017년 전체 산업 GDP는 약 50조 130억 U.S. 달러(이하 달러)로, 2010년 약 44조 9,207억 달러보다 약 11.3% 증가하였음.
- 2017년 기준 전체 산업 GDP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약 19조 4,853억 달러)이며, 한국은 약 1조 6,239억 달러로 36개국 중 8번째로 GDP가 높은 국가임.
 - 전체 산업 GDP는 미국(19조 4,853억 달러), 일본(4조 8,668억 달러), 독일(3조 6,658억 달러), 영국(2조 6,663억 달러), 프랑스(2조 5,926억 달러) 순임.
 - GDP가 낮은 국가는 아이슬란드(244억 달러), 에스토니아(268억 달러), 라트비아(302억 달러), 리투아니아(477억 달러), 슬로베니아(485억 달러) 순임.

- 2010년 대비 2017년 GDP 증감률은 아이슬란드가 79.0%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리스는 동기간 32.1%가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임. 한국은 2010년 1조 1,440억 달러에서 2017년 1조 6,239억 달러로 41.9% 증가하여 36개국 중 4번째로 높은 GDP 증가율을 보임.
- 36개국 중 28개국이 동기간 GDP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이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79.0%), 이스라엘(51.0%), 아일랜드(51.0%), 한국(41.9%), 에스토니아(36.4%) 순임.
- 동기간 8개국은 GDP가 감소하였으며, 그리스(32.1%), 일본(14.6%), 이탈리아(8.2%), 스페인(7.7%), 노르웨이(7.1%) 순임.

<표 II-10>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GDP

(단위 : 백만 US 달러, %)

국가	2010	2017	증감률	국가	2010	2017	증감률		
아시아	한국	1,144,067.0	1,623,901.5	△41.9	유럽	스웨덴	495,328.6	540,545.2	△9.1
	일본	5,700,098.1	4,866,864.4	▽14.6		스위스	583,783.0	679,950.5	△16.5
	터키	771,876.8	852,669.2	△10.5		오스트리아	392,275.1	418,316.2	△6.6
	이스라엘	233,995.7	353,253.4	△51.0		네덜란드	847,380.9	833,869.6	▽1.6
북미	미국	14,992,052.7	19,485,393.9	△30.0		룩셈부르크	53,264.4	64,181.9	△20.5
	캐나다	1,613,542.8	1,649,624.7	△2.2		이탈리아	2,136,100.0	1,961,796.2	▽8.2
	멕시코	1,057,800.6	1,157,735.2	△9.4		핀란드	249,424.3	255,122.5	△2.3
남미	칠레	218,537.6	277,045.0	△26.8		체코	207,477.9	215,913.5	△4.1
유럽	영국	2,475,244.3	2,666,318.1	△7.7		헝가리	131,135.6	141,510.6	△7.9
	덴마크	321,995.3	329,417.1	△2.3		폴란드	479,321.5	526,376.2	△9.8
	아이슬란드	13,683.7	24,488.2	△79.0		슬로바키아	90,272.0	95,482.0	△5.8
	노르웨이	428,757.0	398,394.0	▽7.1		슬로베니아	48,208.2	48,561.7	△0.7
	스페인	1,422,108.2	1,312,551.7	▽7.7		에스토니아	19,693.6	26,859.1	△36.4
	포르투갈	238,113.0	221,357.9	▽7.0		라트비아	23,803.9	30,273.0	△27.2
	프랑스	2,645,187.9	2,592,689.5	▽2.0		리투아니아	37,034.5	47,750.9	△28.9
	아일랜드	222,365.5	335,663.1	△51.0		오세아니아	호주	1,299,463.1	1,417,795.4
	벨기에	481,420.9	503,788.8	△4.6	뉴질랜드	146,619.1	188,223.7	△28.4	
	독일	3,399,667.8	3,665,804.1	△7.8	36개국 합계	44,920,754.1	50,013,076.1	△11.3	
그리스	299,653.7	203,588.4	▽32.1						

주 :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GDP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함.

(2) 건설산업

- OECD 36개 회원국의 2017년 건설산업 GDP는 약 2조 4,429억 달러로, 2010년 약 2조 1,255억 달러보다 약 14.9% 증가하였음.
- 2017년 기준 건설산업 GDP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약 7,797억 달러)이며, 한국은 약 895억 달러로 36개국 중 8번째로 건설산업 GDP가 높은 국가임.
- 건설산업 GDP는 미국(7,797억 달러), 일본(2,775억 달러), 독일(1,556억 달러), 영국(1,464억 달러), 프랑스(1,297억 달러) 순으로 조사되어, 전체 산업 GDP 순위와 동일함.
- GDP가 낮은 국가는 라트비아(15억 달러), 에스토니아(15억 달러), 아이슬란드(16억 달러), 슬로베니아(22억 달러), 리투아니아(28억 달러) 순임.

<표 II-11> OECD 회원국 건설산업 GDP

(단위 : 백만 US 달러, %)

국가	2010	2017	증감률	국가	2010	2017	증감률		
아시아	한국	52,479.4	89,520.9	△70.6	유럽	스웨덴	24,443.3	31,968.9	△30.8
	일본	273,227.8	277,592.7	△1.6		스위스	28,191.4	35,872.0	△27.2
	터키	47,044.9	72,932.0	△55.0		오스트리아	22,701.0	24,081.3	△6.1
	이스라엘	11,182.2	19,935.6	△78.3		네덜란드	40,018.1	33,856.5	▽15.4
북미	미국	524,029.8	779,727.3	△48.8		룩셈부르크	2,559.6	3,220.7	△25.8
	캐나다	112,061.5	108,642.4	▽3.1		이탈리아	108,112.7	74,655.0	▽30.9
남미	멕시코	81,143.9	84,847.2	△4.6		핀란드	14,223.6	15,684.5	△10.3
	칠레	13,079.9	17,839.6	△36.4		체코	12,885.2	10,322.3	▽19.9
유럽	영국	124,537.3	146,479.3	△17.6		헝가리	4,649.4	5,152.0	△10.8
	덴마크	12,267.5	15,893.3	△29.6		폴란드	35,800.7	32,466.6	▽9.3
	아이슬란드	549.6	1,607.7	△192.5		슬로바키아	7,061.6	7,106.5	△0.6
	노르웨이	20,381.8	23,442.1	△15.0		슬로베니아	2,665.1	2,275.4	▽14.6
	스페인	116,079.8	71,381.2	▽38.5		에스토니아	994.5	1,569.4	△57.8
	포르투갈	12,229.7	7,754.5	▽36.6		라트비아	1,036.6	1,556.2	△50.1
	프랑스	143,328.5	129,760.8	▽9.5		리투아니아	1,939.1	2,870.0	△48.0
	아일랜드	3,034.1	8,485.1	△179.7		호주	96,271.2	108,577.2	△12.8
	벨기에	23,491.8	22,922.0	▽2.4	뉴질랜드	7,583.8	13,173.1	△73.7	
	독일	132,473.6	155,621.5	△17.5	36개국 합계	2,125,542.7	2,442,972.1	△14.9	
그리스	11,782.6	4,179.2	▽64.5						

주 : 1) 캐나다는 2017년 대신 2016년 자료임.

2)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GDP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함.

- 2010년 대비 2017년 건설산업 GDP 증감률은 아이슬란드가 192.5%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나, 그리스는 동기간 64.5%가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임. 한국은 2010년 524억 달러에서 2017년 895억 달러로 70.6% 증가하여 36개국 중 5번째로 높은 건설산업 GDP 증가율을 보임.
- 36개국 중 25개국이 동기간 건설산업 GDP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192.5%)이며, 아일랜드(179.7%), 이스라엘(78.3%), 뉴질랜드(73.7%), 한국(70.6%) 순임.
- 동기간 11개국은 GDP가 감소하였으며, 그리스(64.5%), 스페인(38.5%), 포르투갈(36.6%), 이탈리아(30.9%), 체코(19.9%) 순임.

(3) 건설산업 GDP 비중

- OECD 36개 회원국의 2017년 전체 GDP 중 건설산업의 비중은 약 4.9%(2.1~8.6%)로, 2010년 4.7%에 비해 약 0.2%p 증가하였음.
- 2017년 건설산업 GDP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터키(8.6%)이며, 한국은 5.5%로 36개국 평균 4.9%보다 약 0.6% 높음.
- 건설산업 GDP 비중은 터키(8.6%), 호주(7.7%), 슬로바키아(7.4%), 멕시코(7.3%), 뉴질랜드(7.0%) 순임.
- 건설산업 GDP 비중이 낮은 국가는 그리스(2.1%), 아일랜드(2.5%), 포르투갈(3.5%), 헝가리(3.6%), 이탈리아(3.8%) 순임.
- 2010년 대비 2017년 전체 산업 대비 건설산업 GDP 비중 증감은 아이슬란드가 2.5%p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으며, 스페인이 동기간 2.7%p가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임. 한국의 경우 2010년 4.6%에서 2017년 5.5%로 약 0.9%p 증가함.
- 36개국 중 23개국이 동기간 건설산업 GDP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13개국은 건설산업 GDP 비중이 감소하였음.

<표 II-12> OECD 회원국 건설산업 GDP 비중

(단위 : %, %p)

국가		2010	2017	증감	국가		2010	2017	증감
아시아	한국	4.6	5.5	△0.9	유럽	스웨덴	4.9	5.9	△1.0
	일본	4.8	5.7	△0.9		스위스	4.8	5.3	△0.4
	터키	6.1	8.6	△2.5		오스트리아	5.8	5.8	△0.0
	이스라엘	4.8	5.6	△0.9		네덜란드	4.7	4.1	▽0.7
북미	미국	3.5	4.0	△0.5		룩셈부르크	4.8	5.0	△0.2
	캐나다	6.9	6.6	▽0.4		이탈리아	5.1	3.8	▽1.3
	멕시코	7.7	7.3	▽0.3		핀란드	5.7	6.1	△0.4
남미	칠레	6.0	6.4	△0.5		체코	6.2	4.8	▽1.4
	영국	5.0	5.5	△0.5		헝가리	3.5	3.6	△0.1
유럽	덴마크	3.8	4.8	△1.0		폴란드	7.5	6.2	▽1.3
	아이슬란드	4.0	6.6	△2.5		슬로바키아	7.8	7.4	▽0.4
	노르웨이	4.8	5.9	△1.1		슬로베니아	5.5	4.7	▽0.8
	스페인	8.2	5.4	▽2.7		에스토니아	5.0	5.8	△0.8
	포르투갈	5.1	3.5	▽1.6		라트비아	4.4	5.1	△0.8
	프랑스	5.4	5.0	▽0.4		리투아니아	5.2	6.0	△0.8
	아일랜드	1.4	2.5	△1.2		오세아니아	호주	7.4	7.7
	벨기에	4.9	4.5	▽0.3	뉴질랜드	5.2	7.0	△1.8	
	독일	3.9	4.2	△0.3	36개국 합계		4.7	4.9	△0.2
	그리스	3.9	2.1	▽1.9					

주 : 1) 캐나다 건설산업 GDP 비중은 2017년 대신 2016년 자료임.

2)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건설산업 GDP 비중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함.

(4) 소결

- (전체 산업) 2017년 국내 전체 산업 GDP는 OECD 36개 회원국 중 8번째로 높으며, 2010년 대비 증가율은 41.9%(5위)로 36개국 평균(11.3%)보다 약 3.7배 높았음.
- (건설산업) 2017년 국내 건설산업 GDP 역시 36개 OECD 회원국 중 8번째로 높으며, 2010년 대비 GDP가 70.6%(5위) 증가하여 36개국 평균(14.9%)보다 약 4.7배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국내 건설산업 GDP 비중은 2017년 기준 5.5%로 36개국 평균(4.9%)보다 약 0.6%p 높은 것으로 분석됨.

1. 개요

- 앞서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한 사고사망자 수, GDP, 근로자 수를 조합하여 3장에서는 상대적인 3가지 지표를 국가별로 비교·분석함.
- 사고사망자 수, GDP, 근로자 수는 각 국가의 경제 규모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절대 지표임.
- 이에 국가 간 비교 가능한 경제 규모 등을 반영한 상대적 지표를 도출하여 국내 건설산업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도출한 3가지 지표는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근로자 1인당 GDP임.

(1)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사고사망자 수와 근로자 수를 조합한 지표로 국내에서 활용 중인 사고사망십만인율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분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를 적용함에 있어 차이가 있음.
-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 $\text{사고사망자 수} / \text{근로자 10만명}$
- 사고사망(십)만인율 = $\text{사고사망자 수} / \text{보험가입 근로자 1(0)만명}$
- 유럽연합 통계에서도 사고사망십만인율을 회원국별로 공개하고 있으나 지표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집단을 근로자 수, 보험가입 근로자 수, 근로시간 등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음.
- 사고사망자 수/근로자 수(11개국) : 영국,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일랜드,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 사고사망자 수/보험가입 근로자 수(1개국) : 그리스
 - 사고사망자 수/근로시간(Hours Worked, 1개국) : 벨기에
 - 알 수 없음 : 그 외 12개국
- 근로자 수를 사고사망십만인율의 분모로 사용하는 11개국 중 8개국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와 2017년 기준 전체 산업의 결과값이 동일하였으며, 나머지 3개국은 조정된(Adjusted) 근로자 수를 사용하여 결과값에 차이가 있었음.
 - 결과값이 동일한 8개국 : 영국,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웨덴, 이탈리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 미국의 경우 사고사망십만인율 분모에 근로시간(Hours Worked)을 사용하며, 일본은 연평균 근로자 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별 산재 사망사고 비교를 위해 사용되는 사고사망십만인율은 분모로 사용하는 모집단이 국가별로 상이한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ILO나 유럽연합 통계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사고사망십만인율 자료로 국가별 산재 사망사고 실태를 비교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고사망자 수와 근로자 수를 조합하여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공통적으로 도출하고 국가별 비교·분석을 하고자 함.

(2)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는 사고사망자 수와 GDP를 조합한 지표로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와는 달리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사고사망자 수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임.
-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 사고사망자 수 / GDP 100억 달러

- GDP와 사고사망자 수 비율을 비교하는 지표는 ILO, 유럽연합 통계 등에서도 찾아볼 수 없음.
-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교와 함께 경제적 측면에서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를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근로자 1인당 GDP

- 근로자 1인당 GDP는 근로자 수와 GDP를 조합한 지표로 안전관리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님. 하지만 근로자 1인당 생산성 측면에서 분석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근로자 1인당 GDP = GDP 1천 달러 / 근로자 수
-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노동생산성지수⁸⁾와는 산출 방법이 다르기에 한 국가의 생산성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에서 분석한 3가지 지표 중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와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는 낮을수록, 근로자 1인당 GDP는 높을수록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 3가지 지표의 국가별 비교·분석은 사고사망자 수 자료가 없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OECD 회원국 35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간은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2010년부터 2017년 자료를 비교·분석하였음.

2.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교

(1) 전체 산업

- 2017년 기준 OECD 회원국 35개국에서는 근로자 10만명당 2.43명의 사고사망자가

8) 노동생산성지수 = (산출량지수 / 노동투입량지수) x 100

발생하였으며, 이는 2010년 2.86명보다 15.1% 감소한 수치임.

· 터키는 2017년 대신 2016년 자료를, 이스라엘, 칠레, 뉴질랜드는 2010년 대신 각각 2012년, 2013년, 2011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 2017년 기준 전체 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캐나다 (5.84)이며, 한국은 3.61로 35개국 중 5번째로 높음.

· 전체 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캐나다(5.84), 터키(5.17, 2016년 기준), 칠레(4.04), 룩셈부르크(3.69), 한국(3.61) 순임.

·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네덜란드(0.50), 스위스(0.80), 그리스(0.85), 영국(0.88), 스웨덴(0.88) 순임.

<표 III-1>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국가		2010	2017	증감률(%)	국가		2010	2017	증감률(%)
아시아	한국	4.64	3.61	▽22.2	유럽	스웨덴	1.19	0.88	▽26.6
	일본	1.90	1.50	▽21.1		스위스	2.16	0.80	▽63.1
	터키	6.39	5.17	▽19.2		오스트리아	4.53	2.25	▽50.3
	이스라엘	1.85	1.31	▽29.2		네덜란드	0.95	0.50	▽47.6
북미	미국	3.37	3.36	▽0.5		룩셈부르크	6.82	3.69	▽45.9
	캐나다	6.88	5.84	▽15.1		이탈리아	3.19	2.10	▽34.0
	멕시코	2.48	1.86	▽25.3		핀란드	1.51	0.93	▽38.5
남미	칠레	5.65	4.04	▽28.5		체코	2.48	1.82	▽26.6
	영국	0.59	0.88	△48.3		헝가리	2.57	1.81	▽29.7
유럽	덴마크	1.52	0.99	▽34.4		폴란드	2.88	1.64	▽43.0
	노르웨이	1.84	1.66	▽9.5		슬로바키아	2.07	1.70	▽18.0
	스페인	1.81	1.68	▽6.7		슬로베니아	2.48	1.67	▽32.8
	포르투갈	4.16	2.94	▽29.3		에스토니아	2.99	1.21	▽59.4
	프랑스	2.09	2.18	△4.3		라트비아	2.94	2.35	▽20.1
	아일랜드	2.18	1.87	▽14.3		리투아니아	4.01	2.44	▽39.2
	벨기에	1.65	1.27	▽22.8		오세아	호주	2.03	1.55
	독일	1.49	1.03	▽30.8	니아	뉴질랜드	6.24	3.08	▽50.6
	그리스	0.73	0.85	△17.0	35개국 평균	2.86	2.43	▽15.1	

주 : 1) 터키는 2017년 대신 2016년 자료를, 이스라엘, 칠레, 뉴질랜드는 2010년 대신 각각 2012년, 2013년, 2011년 자료임.

2)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전체 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함.

- 2010년 대비 2017년 증감률은 스위스가 63.1%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으나,

영국은 48.3%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한국의 경우 2010년 4.64에서 2017년 3.61로 22.2% 감소하여 평균 감소율 15.1%를 상회함.

- 35개국 중 32개국이 동기간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63.1%)이며, 에스토니아(59.4%), 오스트리아(50.3%), 뉴질랜드(49.8%), 네덜란드(47.6%) 순임.
- 35개국 중 3개국은 동기간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영국이 48.3%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그리스(17.0%), 프랑스(4.3%) 순임.

(2) 건설산업

- 2017년 기준 OECD 회원국 35개국의 건설산업에서는 근로자 10만명당 8.29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2010년 9.36명보다 11.4%가 감소하였음.

<표 III-2> OECD 회원국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국가		2010	2017	증감률(%)	국가		2010	2017	증감률(%)
아시아	한국	29.86	25.45	▽14.8	유럽	스웨덴	4.64	2.05	▽55.8
	일본	7.23	6.49	▽10.3		스위스	6.91	4.50	▽34.8
	터키	33.17	25.01	▽24.6		오스트리아	6.27	6.73	△7.3
	이스라엘	21.05	14.36	▽31.8		네덜란드	3.32	0.98	▽70.5
북미	미국	8.35	9.03	△8.2		룩셈부르크	14.29	7.14	▽50.0
	캐나다	27.99	21.77	▽22.2		이탈리아	9.69	6.29	▽35.1
	멕시코	6.44	4.37	▽32.1		핀란드	4.07	1.07	▽73.7
남미	칠레	15.20	8.73	▽42.6		체코	5.81	4.85	▽16.5
	영국	2.26	2.31	△2.5		헝가리	9.52	7.26	▽23.8
유럽	덴마크	5.06	2.98	▽41.2		폴란드	9.07	4.74	▽47.7
	노르웨이	5.00	3.29	▽34.3		슬로바키아	1.16	3.69	△217.2
	스페인	6.06	6.47	△6.8		슬로베니아	20.69	7.55	▽63.5
	포르투갈	14.35	13.64	▽5.0		에스토니아	8.33	1.75	▽78.9
	프랑스	5.95	6.03	△1.5		라트비아	8.62	7.94	▽7.9
	아일랜드	5.00	3.10	▽38.0	리투아니아	6.90	4.04	▽41.4	
	벨기에	6.81	3.77	▽44.6	오세아니아	호주	4.40	2.64	▽40.1
	독일	3.36	3.14	▽6.6	니아	뉴질랜드	4.65	4.12	▽11.5
그리스	4.06	4.70	△15.6	35개국 평균	9.36	8.29	▽11.4		

주 : 1) 터키는 2017년 대신 2016년 자료를, 이스라엘, 칠레, 뉴질랜드는 2010년 대신 각각 2012년, 2013년, 2011년 자료임.

2)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함.

- 2017년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25.45)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네덜란드(0.98)임.
-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한국(25.45), 터키(25.01, 2016년 기준), 캐나다(21.77), 이스라엘(14.36), 포르투갈(13.64) 순임.
-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가 낮은 국가는 네덜란드(0.98), 핀란드(1.07), 에스토니아(1.75), 스웨덴(2.05), 영국(2.31) 순으로 분석됨.

- 2010년 대비 2017년 증감률은 에스토니아가 78.9%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으나, 슬로바키아는 217.2%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한국 건설산업은 2010년 29.86에서 2017년 25.45로 14.8% 감소하여 평균 감소율 11.4%를 상회함.
- 35개국 중 28개국의 건설산업에서 동기간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하였음. 감소율이 가장 큰 국가는 에스토니아(78.9%)이며, 핀란드(73.7%), 네덜란드(70.5%), 슬로베니아(63.5%), 스웨덴(55.8%) 순임.
- 35개국 중 7개국은 동기간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하였음. 슬로바키아가 217.2%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그리스(15.6%), 미국(8.2%), 오스트리아(7.3%), 스페인(6.8%) 순임.

(3)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차이

- OECD 회원국 35개국의 2017년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전체 산업보다 평균 3.41배 높았으며, 2010년 3.27배보다 격차가 약간 증가하였음.
-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조사된 35개국 모두에서 건설산업의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가 전체 산업보다 높음.

- 2017년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의 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이스라엘(10.95배)이며, 한국은 7.06배로 35개국 중 2번째로 차이가 큰 국가로 나타남.
-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차이가 큰 국가는 이스라엘(10.95배), 한국(7.06배), 스위스(5.64배), 그리스(5.51배), 터키(4.84배, 2016년 기준) 순임.

· 차이가 작은 국가는 핀란드(1.15배), 뉴질랜드(1.33배), 에스토니아(1.45배), 라투아니아(1.66배), 아일랜드(1.66배) 순임.

- 2010년 대비 2017년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차이의 증감은 핀란드가 57.3%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 보였으며, 슬로바키아는 동기간 286.8%가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한국의 경우 2010년 6.44배에서 2017년 7.06배로 9.5% 증가하여 35개국 평균 증가율인 4.3%를 웃돌.

<표 III-3> OECD 회원국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차이

(단위 : 배)

국가		2010	2017	증감률(%)	국가		2010	2017	증감률(%)
아시아	한국	6.44	7.06	△9.5	유럽	스웨덴	3.88	2.34	▽39.8
	일본	3.81	4.33	△13.6		스위스	3.19	5.64	△76.6
	터키	5.19	4.84	▽6.7		오스트리아	1.38	2.98	△115.7
	이스라엘	11.37	10.95	▽3.6		네덜란드	3.48	1.96	▽43.8
북미	미국	2.48	2.69	△8.7		룩셈부르크	2.10	1.94	▽7.6
	캐나다	4.07	3.72	▽8.4		이탈리아	3.04	2.99	▽1.6
	멕시코	2.59	2.36	▽9.0		핀란드	2.69	1.15	▽57.3
남미	칠레	2.69	2.16	▽19.7		체코	2.34	2.66	△13.7
유럽	영국	3.82	2.64	▽30.9		헝가리	3.70	4.01	△8.4
	덴마크	3.34	2.99	▽10.4		폴란드	3.15	2.88	▽8.3
	노르웨이	2.72	1.97	▽27.4		슬로바키아	0.56	2.17	△286.8
	스페인	3.36	3.84	△14.5		슬로베니아	8.33	4.52	▽45.7
	포르투갈	3.44	4.63	△34.5		에스토니아	2.78	1.45	▽48.1
	프랑스	2.85	2.77	▽2.7		라트비아	2.93	3.38	△15.3
	아일랜드	2.29	1.66	▽27.6	리투아니아	1.72	1.66	▽3.6	
	벨기에	4.13	2.97	▽28.2	오세아니아	호주	2.17	1.70	▽21.5
	독일	2.25	3.04	△35.0	뉴질랜드	0.76	1.33	△76.1	
	그리스	5.57	5.51	▽1.1	35개국 평균	3.27	3.41	△4.3	

주 : 1) 터키는 2017년 대신 2016년 자료, 이스라엘, 칠레, 뉴질랜드는 2010년 대신 각각 2012년, 2013년, 2011년 자료임.
2)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차이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함.

· 35개국 중 22개국이 동기간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차이가 감소하였으며, 감소 폭은 핀란드(57.3%), 에스토니아(48.1%), 슬로베니아(45.7%), 네덜란드(43.8%), 스웨덴(39.8%) 순임.

- 35개국 중 13개국이 동기간 차이가 증가하였으며, 증가 폭은 슬로바키아(286.8%), 오스트리아(115.7%), 스위스(76.6%), 뉴질랜드(76.1%), 독일(35.0%) 순임.
-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차이 분석은 국가별 산업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

(4) 소결

- (전체 산업) 2017년 국내 전체 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3.61로 OECD 35개 회원국(평균 2.43) 중 5번째로 높으나, 2010년 대비 감소율은 22.2%로 35개국 평균 15.1%보다 7.1%p 높았음.
- (건설산업) 2017년 국내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25.45로 OECD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나, 2010년 대비 감소율은 14.8%로 35개국 건설산업 평균 감소율 11.4%보다 3.4%p 높았음.
-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차이) 2017년 국내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25.45로 전체 산업 3.61보다 7.06배(OECD 35개국 평균 차이 3.41배) 높았으며, 2010년보다 차이 6.44배에 비해 9.5% 증가(35개국 평균 4.3% 증가)하였음.

3.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비교

(1) 전체 산업

- 2017년 기준 OECD 회원국 35개국의 평균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는 2.87이며, 2010년 3.46에 비해 17.1% 감소하였음.
- 전체 산업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2017년 기준으로 터키(16.28, 2016년 기준)이며, 한국은 5.94로 35개국 중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전체 산업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가 높은 국가는 터키(16.29, 2016년 기준), 칠레(12.53), 멕시코(8.39), 라트비아(6.94), 리투아니아(6.91) 순임.
 -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가 낮은 국가는 네덜란드(0.52), 스위스(0.54), 스웨덴(0.81), 영국(0.85), 핀란드(0.90) 순임.
- 2010년 대비 2017년 증감률은 에스토니아가 65.5%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으나, 영국은 51.1%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한국의 경우 2010년 9.74에서 2017년 5.94로 39.0% 감소하여 평균 감소율 17.1%를 상회함.
- 35개국 중 30개국이 동기간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이 높은 국가는 에스토니아(65.5%), 스위스(65.1%), 오스트리아(50.5%), 리투아니아(48.8%), 뉴질랜드(48.7%) 순임.
 - 35개국 중 5개국은 동기간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영국(51.1%), 그리스(47.2%), 프랑스(11.1%), 노르웨이(2.9%), 스페인(1.6%) 순임.

<표 III-4>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국가		2010	2017	증감률(%)	국가		2010	2017	증감률(%)
아시아	한국	9.74	5.94	▽39.0	유럽	스웨덴	1.09	0.81	▽25.3
	일본	2.10	2.01	▽4.1		스위스	1.56	0.54	▽65.1
	터키	18.71	16.28	▽13.0		오스트리아	4.64	2.29	▽50.5
	이스라엘	2.41	1.42	▽41.3		네덜란드	0.93	0.52	▽44.7
북미	미국	3.13	2.64	▽15.6		룩셈부르크	2.82	1.56	▽44.7
	캐나다	6.28	5.76	▽8.3		이탈리아	3.36	2.47	▽26.6
	멕시코	10.83	8.39	▽22.6		핀란드	1.48	0.90	▽39.2
남미	칠레	16.31	12.53	▽23.2		체코	5.83	4.40	▽24.6
	영국	0.69	1.05	△51.1		헝가리	7.32	5.65	▽22.8
유럽	덴마크	1.27	0.85	▽33.2		폴란드	9.30	5.13	▽44.9
	노르웨이	1.07	1.10	△2.9		슬로바키아	5.32	4.50	▽15.3
	스페인	2.38	2.42	△1.6		슬로베니아	4.98	3.29	▽33.8
	포르투갈	8.57	6.32	▽26.2		에스토니아	8.63	2.98	▽65.5
	프랑스	2.03	2.26	△11.1		라트비아	10.50	6.94	▽34.0
	아일랜드	1.89	1.22	▽35.3	리투아니아	13.50	6.91	▽48.8	
	벨기에	1.54	1.17	▽23.8	오세아니아	호주	1.72	1.34	▽21.9
	독일	1.67	1.17	▽29.7	뉴질랜드	8.07	4.14	▽48.7	
	그리스	1.07	1.57	△47.2	35개국 평균	3.46	2.87	▽17.1	

주 : 1) 터키는 2017년 대신 2016년 자료, 이스라엘, 칠레, 뉴질랜드는 2010년 대신 각각 2012년, 2013년, 2011년 자료임.
 2)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전체 산업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함.

(2) 건설산업

- 2017년 기준 OECD 회원국 35개국의 평균 건설산업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는 14.47이며, 2010년 17.65에 비해 18.1% 감소하였음.
- 건설산업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2017년 기준으로 터키(67.20, 2016년 기준)이며, 한국은 56.52로 35개국 중 2번째로 높음.
- 건설산업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가 높은 국가는 터키(67.20, 2016년 기준), 한국(56.52), 포르투갈(54.16), 헝가리(42.70), 칠레(35.31) 순임.
-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가 낮은 국가는 네덜란드(1.18), 핀란드(1.28), 스웨덴(2.19), 호주(2.76), 노르웨이(2.99) 순임.

<표 III-5> OECD 회원국 건설산업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국가	2010	2017	증감률(%)	국가	2010	2017	증감률(%)		
아시아	한국	100.61	56.52	▽43.8	유럽	스웨덴	5.73	2.19	▽61.8
	일본	13.34	11.64	▽12.8		스위스	6.74	3.90	▽42.1
	터키	100.97	67.20	▽33.4		오스트리아	9.25	9.55	△3.2
	이스라엘	23.21	14.05	▽39.5		네덜란드	3.75	1.18	▽68.5
북미	미국	15.30	12.99	▽15.1		룩셈부르크	7.81	3.10	▽60.3
	캐나다	20.70	19.97	▽3.5		이탈리아	16.93	11.92	▽29.6
	멕시코	28.59	22.04	▽22.9		핀란드	4.92	1.28	▽74.1
남미	칠레	57.81	35.31	▽38.9		체코	20.95	18.41	▽12.2
	영국	4.01	3.69	▽8.2		헝가리	55.92	42.70	▽23.6
유럽	덴마크	6.52	3.15	▽51.8		폴란드	31.84	17.86	▽43.9
	노르웨이	4.42	2.99	▽32.4		슬로바키아	4.25	12.66	△198.1
	스페인	8.61	10.23	△18.7		슬로베니아	45.03	17.58	▽61.0
	포르투갈	54.78	54.16	▽1.1		에스토니아	40.22	6.37	▽84.2
	프랑스	7.88	8.09	△2.6		라트비아	48.23	32.13	▽33.4
	아일랜드	16.48	4.71	▽71.4	리투아니아	30.94	13.94	▽55.0	
	벨기에	9.36	5.24	▽44.1	오세아	호주	4.57	2.76	▽39.5
	독일	6.42	5.72	▽10.9	니아	뉴질랜드	9.30	7.59	▽18.4
그리스	11.03	16.75	△51.8	35개국 평균	17.65	14.47	▽18.1		

주 : 1) 터키는 2017년 대신 2016년 자료, 이스라엘, 칠레, 뉴질랜드는 2010년 대신 각각 2012년, 2013년, 2011년 자료임.
 2)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건설산업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함.

- 2010년 대비 2017년 증감률은 에스토니아가 84.2%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

였으나, 슬로바키아는 198.1%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한국 건설산업은 2010년 100.61에서 2017년 56.52로 43.8% 감소하여 평균 감소율 18.1%를 훨씬 웃도는 감소율을 보임.

- 35개국 중 30개국의 건설산업에서 동기간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에스토니아(84.2%), 핀란드(74.1), 아일랜드(71.4%), 네덜란드(68.5%), 스웨덴(61.8%) 순임.
- 35개국 중 5개국은 동기간 건설산업에서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슬로바키아(198.1%), 그리스(51.8%), 스페인(18.7%), 오스트리아(3.2%), 프랑스(2.6%) 순임.

(3)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차이

- OECD 회원국 35개국의 2017년 건설산업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는 전체 산업보다 평균 5.04배 높았으며, 2010년 5.11배보다 격차보다 약간 감소하였음.
-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차이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조사된 35개국 모두 건설산업의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가 전체 산업보다 높게 나타남.
- 2017년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의 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그리스(10.66배)이며, 한국은 9.52배로 35개국 중 3번째로 차이가 큰 국가임.
-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차이가 큰 국가는 그리스(10.66배), 이스라엘(9.92배), 한국(9.52배), 포르투갈(8.56배), 그리스(5.51배), 헝가리(7.55배) 순임.
- 차이가 작은 국가는 핀란드(1.41배), 뉴질랜드(1.83배), 룩셈부르크(1.99배), 리투아니아(2.02배), 호주(2.06배) 순임.
- 2010년 대비 2017년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차이의 증감은 핀란드가 57.4%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 보였으며, 슬로바키아는 동기간 252.0%가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한국의 경우 2010년 10.33배에서 2017년 9.52배로 7.8% 감소하여 35개국 평균 감소율인 1.2%를 웃뽀.
- 35개국 중 21개국이 동기간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근로자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차이가 감소하였으며, 감소 폭은 핀란드(57.4%), 아일랜드(55.8%), 에스토니아(54.1%), 스웨덴(48.8%), 네덜란드(43.0%) 순임.

- 35개국 중 14개국이 동기간 차이가 증가하였으며, 증가 폭은 슬로바키아(252.0%), 오스트리아(108.7%), 스위스(65.9%), 뉴질랜드(58.9%), 포르투갈(33.9%) 순임.

<표 III-6> OECD 회원국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차이

(단위 : 배)

국가		2010	2017	증감률(%)	국가		2010	2017	증감률(%)
아시아	한국	10.33	9.52	▽7.8	유럽	스웨덴	5.25	2.69	▽48.8
	일본	6.36	5.79	▽9.0		스위스	4.32	7.17	△65.9
	터키	5.40	4.13	▽23.5		오스트리아	1.99	4.16	108.7
	이스라엘	9.63	9.92	△3.1		네덜란드	4.02	2.29	▽43.0
북미	미국	4.89	4.92	△0.5		룩셈부르크	2.77	1.99	▽28.2
	캐나다	3.29	3.46	△5.2		이탈리아	5.04	4.83	▽4.0
	멕시코	2.64	2.63	▽0.4		핀란드	3.32	1.41	▽57.4
남미	칠레	3.54	2.82	▽20.5		체코	3.59	4.18	△16.4
	영국	5.78	3.51	▽39.2		헝가리	7.64	7.55	▽1.1
유럽	덴마크	5.12	3.70	▽27.7		폴란드	3.42	3.48	△1.8
	노르웨이	4.12	2.70	▽34.3		슬로바키아	0.80	2.81	△252.0
	스페인	3.62	4.23	△16.8		슬로베니아	9.04	5.34	▽41.0
	포르투갈	6.39	8.56	△33.9		에스토니아	4.66	2.14	▽54.1
	프랑스	3.88	3.59	▽7.7		라트비아	4.59	4.63	△0.9
	아일랜드	8.72	3.86	▽55.8	리투아니아	2.29	2.02	▽12.0	
	벨기에	6.09	4.47	▽26.6	오세아	호주	2.66	2.06	▽22.6
	독일	3.85	4.88	△26.7	니아	뉴질랜드	1.15	1.83	△58.9
	그리스	10.33	10.66	△3.1	35개국 평균		5.11	5.04	▽1.2

주 : 1) 터키는 2017년 대신 2016년 자료, 이스라엘, 칠레, 뉴질랜드는 2010년 대신 각각 2012년, 2013년, 2011년 자료임.
 2)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차이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함.

(4) 소결

- (전체 산업) 2017년 국내 전체 산업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는 5.94로 OECD 35개 회원국(평균 2.87) 중 7번째로 높으나, 2010년 대비 감소율은 39.0%로 35개국 평균인 17.1%보다 약 21.9%p 높은 수치를 보였음.

- (건설산업) 2017년 국내 건설산업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는 56.52로 OECD 35개 회원국(평균 14.47) 중 두 번째로 높았으나, 2010년 대비 감소율은 43.8%로 35개국 건설산업 평균 감소율 18.1%보다 25.7%p 높은 감소율을 보임.
-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차이) 2017년 국내 건설산업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는 56.52로 전체 산업 5.94보다 9.52배(OECD 35개국 평균 차이 5.04배) 높았으며, 2010년 10.33배에 비해 7.8%(35개국 평균 1.2% 감소) 감소하였음.

4. 근로자 1인당 GDP 비교

(1) 전체 산업

- 2017년 기준 OECD 회원국 35개국의 평균 근로자 1인당 GDP는 8만 4,700달러이며, 2010년 8만 2,730달러에 비해 2.4% 증가하였음.
- 전체 산업 근로자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는 2017년 기준으로 룩셈부르크(23만 6,830달러)이며, 한국은 6만 760달러로 35개국 평균 8만 2,730달러보다 낮음.
- 전체 산업 근로자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23만 6,830달러), 아일랜드(15만 2,990달러), 노르웨이(15만 680달러), 스위스(14만 6,640달러), 미국(12만 7,080달러) 순임.
- 근로자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2만 2,120달러), 터키(3만 240달러), 헝가리(3만 2,010달러), 폴란드(3만 2,050달러), 칠레(3만 2,230달러) 순임.
- 2010년 대비 2017년 증감률은 아일랜드가 32.5%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나, 그리스는 20.5%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임. 한국의 경우 2010년 4만 7,600달러에서 2017년 6만 760달러로 27.6% 증가하여 35개국 중 2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35개국 중 14개국이 동기간 근로자 1인당 GDP가 증가하였으며, 아일랜드(32.5%), 한국(27.6%), 라트비아(20.9%), 미국(20.5%), 리투아니아(18.8%) 순임.

- 35개국 중 21개국은 동기간 근로자 1인당 GDP가 감소하였으며, 그리스(20.5%), 일본(17.7%), 노르웨이(12.1%), 터키(11.5%), 이탈리아(10.1%) 순임.

<표 III-7>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근로자 1인당 GDP

(단위 : 1천 U.S. 달러)

국가		2010	2017	증감률(%)	국가		2010	2017	증감률(%)
아시아	한국	47.60	60.76	△27.6	유럽	스웨덴	109.49	107.64	▽1.7
	일본	90.51	74.53	▽17.7		스위스	138.73	146.64	△5.7
	터키	34.16	30.24	▽11.5		오스트리아	97.65	98.20	△0.6
	이스라엘	76.84	92.62	△20.5		네덜란드	102.22	96.91	▽5.2
북미	미국	107.81	127.08	△17.9		룩셈부르크	242.11	236.83	▽2.2
	캐나다	109.48	101.37	▽7.4		이탈리아	94.82	85.21	▽10.1
	멕시코	22.93	22.12	▽3.6		핀란드	101.93	103.16	△1.2
남미	칠레	34.62	32.23	▽6.9		체코	42.47	41.35	▽2.7
	영국	84.99	83.42	▽1.8		헝가리	35.14	32.01	▽8.9
유럽	덴마크	118.99	116.98	▽1.7		폴란드	30.98	32.05	△3.5
	노르웨이	171.43	150.68	▽12.1		슬로바키아	38.96	37.72	▽3.2
	스페인	75.95	69.72	▽8.2		슬로베니아	49.91	50.64	△1.5
	포르투갈	48.61	46.53	▽4.3		에스토니아	34.67	40.76	△17.6
	프랑스	102.80	96.45	▽6.2		라트비아	27.97	33.82	△20.9
	아일랜드	115.45	152.99	△32.5		리투아니아	29.68	35.24	△18.8
	벨기에	107.24	108.62	△1.3		오세아	호주	118.23	115.49
	독일	89.48	87.98	▽1.7	니아	뉴질랜드	67.26	74.43	△10.7
	그리스	68.26	54.25	▽20.5	35개국 평균	82.73	84.70	△2.4	

주 : 1) 이스라엘과 칠레는 2010년 대신 각각 2012년, 2013년 자료임.
 2)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전체 산업 근로자 1인당 GDP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함.

(2) 건설산업

- 2017년 기준 OECD 회원국 35개국 평균 건설산업 근로자 1인당 GDP는 5만 7,290달러이며, 2010년 5만 3,010달러에 비해 8.1% 증가하였음.
- 건설산업 근로자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는 2017년 기준으로 룩셈부르크(23만 50달러)이며, 한국은 4만 5,030달러로 35개국 평균인 5만 7,290달러보다 낮음.
- 건설산업 근로자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23만 5달러), 스위스(11만 5,340달러), 캐나다(11만 1,890달러), 노르웨이(11만 60달러), 이스라엘(10만 2,230달러)

러) 순임.

- 건설산업 근로자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국가는 헝가리(1만 7,000달러), 멕시코(1만 9,850달러), 라트비아(2만 4,700달러), 칠레(2만 4,710달러), 포르투갈(2만 5,180달러) 순임.

<표 III-8> OECD 회원국 건설산업 근로자 1인당 GDP

(단위 : 1천 U.S. 달러)

국가		2010	2017	증감률(%)	국가		2010	2017	증감률(%)
아시아	한국	29.68	45.03	△51.7	유럽	스웨덴	80.94	93.48	△15.5
	일본	54.21	55.74	△2.8		스위스	102.51	115.34	△12.5
	터키	32.85	34.78	△5.9		오스트리아	67.76	70.41	△3.9
	이스라엘	90.70	102.23	△12.7		네덜란드	88.54	82.78	▽6.5
북미	미국	54.55	69.53	△27.5		룩셈부르크	182.83	230.05	△25.8
	캐나다	135.18	111.89	▽17.2		이탈리아	57.23	52.72	▽7.9
	멕시코	22.53	19.85	▽11.9		핀란드	82.70	83.87	△1.4
남미	칠레	26.28	24.71	▽6.0		체코	27.71	26.33	▽5.0
	영국	56.20	62.71	△11.6		헝가리	17.03	17.00	▽0.2
유럽	덴마크	77.64	94.60	△21.8		폴란드	28.48	26.55	▽6.8
	노르웨이	113.23	110.06	▽2.8		슬로바키아	27.37	29.12	△6.4
	스페인	70.31	63.28	▽10.0		슬로베니아	45.95	42.93	▽6.6
	포르투갈	26.19	25.18	▽3.9		에스토니아	20.72	27.53	△32.9
	프랑스	75.44	74.58	▽1.1		라트비아	17.87	24.70	△38.2
	아일랜드	30.34	65.78	△116.8	리투아니아	22.29	28.99	△30.1	
	벨기에	72.73	72.08	▽0.9	오세아	호주	96.37	95.41	▽1.0
	독일	52.36	54.85	△4.8	니아	뉴질랜드	42.37	54.21	△28.0
	그리스	36.82	28.05	▽23.8	35개국 평균	53.01	57.29	△8.1	

주 : 1) 이스라엘과 칠레는 2010년 대신 각각 2012년, 2013년 자료이며, 캐나다 건설산업은 2017년 대신 2016년 자료임.

2)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건설산업 근로자 1인당 GDP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함.

- 2010년 대비 2017년 증감률은 아일랜드가 116.8%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나, 그리스는 23.8%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임. 한국의 경우 2010년 2만 9,680달러에서 2017년 4만 5,030달러로 51.7% 증가하여 전체 산업 경우와 마찬가지로 35개국 중 2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35개국 중 19개국이 동기간 건설산업 근로자 1인당 GDP가 증가하였으며, 아일랜드(116.8%), 한국(51.7%), 라트비아(38.2%), 에스토니아(32.9%), 리투아니아(30.1%)

순임.

- 35개국 중 16개국은 동기간 건설산업 근로자 1인당 GDP가 감소하였으며, 그리스(23.8%), 캐나다(17.2%), 멕시코(11.9%), 스페인(10.0%), 이탈리아(7.9%) 순임.

(3)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차이

- OECD 회원국 35개국의 2017년 전체 산업 근로자 1인당 GDP는 건설산업보다 평균 1.48배 높았으며, 2010년 1.56배보다 격차가 5.3% 감소하였음.
- 35개국 중 3개국(터키, 이스라엘, 캐나다)은 건설산업 근로자 1인당 GDP가 전체 산업보다 높았음.

- 2017년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근로자 1인당 GDP 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아일랜드(2.33배)이며, 한국은 1.35배로 35개국 평균보다 차이가 작은 국가로 나타남.
-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차이가 큰 국가는 아일랜드(2.33배), 그리스(1.93배), 헝가리(1.88배), 포르투갈(1.85배), 미국(1.83배) 순임.
- 차이가 작은 국가는 터키(0.87배), 이스라엘(0.91배), 캐나다(0.91배), 룩셈부르크(1.03배), 스페인(1.10배) 순임.

- 2010년 대비 2017년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근로자 1인당 GDP 차이의 증감은 아일랜드가 38.9%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 보였으며, 캐나다는 동기간 11.9%가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한국의 경우 2010년 1.60배에서 2017년 1.35배로 15.9% 감소하여 35개국 평균 감소율인 5.3%를 웃뽀.
- 35개국 중 25개국이 동기간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근로자 1인당 GDP 차이가 감소하였으며, 감소 폭은 아일랜드(38.9%), 룩셈부르크(22.3%), 일본(19.9%), 덴마크(19.3%), 터키(16.4%) 순임.
- 35개국 중 10개국이 동기간 차이가 증가하였으며, 증가 폭은 캐나다(11.9%), 폴란드(11.0%), 멕시코(9.5%), 슬로베니아(8.6%), 이스라엘(6.9%) 순임.

<표 III-9> OECD 회원국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근로자 1인당 GDP 차이

(단위 : 배)

국가		2010	2017	증감률(%)	국가		2010	2017	증감률(%)
아시아	한국	1.60	1.35	▽15.9	유럽	스웨덴	1.35	1.15	▽14.9
	일본	1.67	1.34	▽19.9		스위스	1.35	1.27	▽6.1
	터키	1.04	0.87	▽16.4		오스트리아	1.44	1.39	▽3.2
	이스라엘	0.85	0.91	△6.9		네덜란드	1.15	1.17	△1.4
북미	미국	1.98	1.83	▽7.5		룩셈부르크	1.32	1.03	▽22.3
	캐나다	0.81	0.91	△11.9		이탈리아	1.66	1.62	▽2.5
	멕시코	1.02	1.11	△9.5		핀란드	1.23	1.23	▽0.2
남미	칠레	1.32	1.30	▽1.0		체코	1.53	1.57	△2.4
	영국	1.51	1.33	▽12.0		헝가리	2.06	1.88	▽8.8
유럽	덴마크	1.53	1.24	▽19.3		폴란드	1.09	1.21	△11.0
	노르웨이	1.51	1.37	▽9.6		슬로바키아	1.42	1.30	▽9.0
	스페인	1.08	1.10	△2.0		슬로베니아	1.09	1.18	△8.6
	포르투갈	1.86	1.85	▽0.4		에스토니아	1.67	1.48	▽11.5
	프랑스	1.36	1.29	▽5.1		라트비아	1.57	1.37	▽12.5
	아일랜드	3.81	2.33	▽38.9	리투아니아	1.33	1.22	▽8.7	
	벨기에	1.47	1.51	△2.2	호주	1.23	1.21	▽1.3	
	독일	1.71	1.60	▽6.1	뉴질랜드	1.59	1.37	▽13.5	
그리스	1.85	1.93	△4.3	35개국 평균	1.56	1.48	▽5.3		

주 : 1) 이스라엘과 칠레는 2010년 대신 각각 2012년, 2013년 자료이며, 캐나다 건설산업은 2017년 대신 2016년 자료임.

2)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근로자 1인당 GDP 차이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함.

(4) 소결

- (전체 산업) 2017년 국내 전체 산업 근로자 1인당 GDP는 6만 760달러로 OECD 35개 회원국(평균 8만 4,700달러) 중 22위로 나타남. 2010년 대비 증가율 27.6%로 35개국(평균 2.4%) 중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건설산업) 2017년 국내 건설산업 근로자 1인당 GDP는 4만 5,030달러로 전체 산업 경우와 마찬가지로 OECD 35개 회원국의 건설산업(평균 5만 7,290달러) 중 22위로 나타남. 2010년 대비 증가율은 51.7%로 35개국 건설산업(평균 8.1%) 중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차이) 2017년 국내 전체 산업 근로자 1인당 GDP는 6만 760 달러로 건설산업 4만 5,030달러보다 1.35배(OECD 35개국 평균 차이 1.48배) 높았으며, 2010년 1.60배에 비해 15.9%(35개국 평균 5.3% 하락) 감소하였음.

제 4 장 요약 및 시사점

- 제4장에서는 제2장과 3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국내 전체 및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3대 통계 분석으로 본 국내 전체 및 건설산업

(1) GDP

- (전체 산업) 2017년 국내 전체 산업 GDP는 약 1조 6,239억 달러이며, 2010년 대비 41.9% 증가하여 OECD 가입국(36개국) 중 각각 8위와 4위로 나타남.
- 2017년 GDP 약 1조 6,239억 달러(8위) : OECD 가입국 36개국 중 8위에 해당하며, 2010년 10위(1조 1,440억)에서 2단계 상승하였음.
- GDP 증가율 41.9%(4위) : OECD 가입국 평균 GDP 증가율(11.3%)보다 약 3.7배 높으며, 경제 10대국 평균인 12.0%보다 약 3.5배 높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표 IV-1> 한국 전체 산업 GDP 및 증감률 순위

(단위 : 백만 US 달러, %)

구 분	2010년			2017년			증감률(%)		
	전체 산업 GDP	OECD 순위	10대국 순위	전체 산업 GDP	OECD 순위	10대국 순위	증감률	OECD 순위	10대국 순위
한국	1,144,067.0	10	10	1,623,901.5	8	8	△41.9	4	1
OECD 36개국 평균	1,247,798.7	-	-	1,389,252.1	-	-	△11.3	-	-
경제 10대국 평균	3,682,753.2	-	-	4,124,273.9	-	-	△12.0	-	-

- (건설산업) 2017년 국내 건설산업 GDP는 약 895억 달러(OECD 8위)로 전체 산업 GDP의 약 5.5%를 차지하며, 2010년 대비 70.6% 증가하여 OECD 가입국 중 5위임.

- 2017년 GDP 약 895억 달러(8위) : 전체 산업 GDP와 같이 OECD 가입국 36개국 중 8위에 해당하며, 2010년 11위(524억)에서 3단계 상승하였음.
- GDP 증가율 70.6%(5위) : OECD 가입국의 평균 건설산업 GDP 증가율(14.9%)보다 약 4.7배 높으며, 경제 10대국 평균인 15.4%보다 약 4.6배 높아 전체 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건설산업 GDP 비중 5.5%(18위) : OECD 가입국의 평균 건설산업 GDP 비중(4.9%)보다 약 0.6%p 높으며, 경제 10대국 평균인 4.7%보다 약 0.8%p 높음.

<표 IV-2> 한국 건설산업 GDP 및 증감률 순위

(단위 : 백만 US 달러, %)

구 분	2010년			2017년			증감률(%)		
	건설산업 GDP	OECD 순위	10대국 순위	건설산업 GDP	OECD 순위	10대국 순위	증감률	OECD 순위	10대국 순위
한국	52,479.4	11	10	89,520.9	8	8	△70.6	5	1
OECD 36개국 평균	59,042.9	-	-	67,860.3	-	-	△14.9	-	-
경제 10대국 평균	168,260.2	-	-	194,195.8	-	-	△15.4	-	-

(2) 근로자 수

- (전체 산업) 2017년 국내 전체 산업 근로자 수는 약 2,672만명이며, 2010년 대비 11.2% 증가하여 OECD 36개국 중 각각 8위와 11위임.
- 2017년 근로자 수 약 2,672만명(8위) : OECD 36개국 중 8위에 해당하며, 2010년 7위(2,403만명)에서 1단계 하락하였음.
- 근로자 수 증가율 11.2%(11위) : OECD 가입국의 평균 근로자 수 증가율(8.7%)보다 약 1.3배 높으며, 경제 10대국 평균인 7.9%보다 약 1.4배 높아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IV-3> 한국 전체 산업 근로자 수 및 증감률 순위

(단위 : 천명, %)

구 분	2010년			2017년			증감률(%)		
	전체 산업 근로자 수	OECD 순위	10대국 순위	전체 산업 근로자 수	OECD 순위	10대국 순위	증감률	OECD 순위	10대국 순위
한국	24,033	7	6	26,725	8	6	△11.2	11	2
OECD 36개국 평균	15,084	-	-	16,402	-	-	△8.7	-	-
경제 10대국 평균	38,591	-	-	41,627	-	-	△7.9	-	-

- (건설산업) 2017년 국내 건설산업 근로자 수는 약 199만명(OECD 7위)으로 전체 산업 근로자 수의 약 7.4%(13위)를 차지했으며, 2010년 대비 약 12.4% 증가하여 OECD 가입국 중 14위로 나타남.
- 2017년 건설산업 근로자 수 약 199만명(7위) : 2010년 8위(177만명)에서 1단계 상승하였음.
- 근로자 수 증가율 12.4%(14위) : OECD 가입국의 평균 건설산업 근로자 수 증가율 (6.3%)보다 약 2.0배 높았으며, 경제 10대국 내에서는 평균인 4.7%보다 약 2.6배 높아 4위를 기록함.
- 건설산업 근로자 수 비중 7.4%(13위) : OECD 가입국의 평균 건설산업 근로자 수 비중 (7.2%)와 유사하나, 경제 10대국 평균인 1.5%보다 약 4.9배 높음.

<표 IV-4> 한국 건설산업 근로자 수 및 증감률 순위

(단위 : 천 명, %)

구 분	2010년			2017년			증감률(%)		
	건설산업 근로자 수	OECD 순위	10대국 순위	건설산업 근로자 수	OECD 순위	10대국 순위	증감률	OECD 순위	10대국 순위
한국	1,768	8	7	1,988	7	5	△12.4	14	4
OECD 36개국 평균	1,114	-	-	1,185	-	-	△6.3	-	-
경제 10대국 평균	2,843	-	-	2,977	-	-	△4.7	-	-

(3) 사고사망자 수

- (전체 산업) 2017년 국내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964명(OECD 5위)으로, 2010년 대비 13.5% 감소(25위)하였음.
- 2017년 사고사망자 수 964명(5위) : 2010년 5위(1,114명)와 동일함.
- 사고사망자 수 감소율 13.5%(24위) : OECD 가입국의 평균 사고사망자 수 감소율(7.7%)보다 약 1.8배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경제 10대국 평균인 2.3% 감소율보다 약 5.9배 높은 5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보임.

<표 IV-5> 한국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 수 및 증감률 순위

(단위 : 명, %)

구 분	2010년			2017년			증감률(%)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 수	OECD 순위	10대국 순위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 수	OECD 순위	10대국 순위	증감률	OECD 순위	10대국 순위
한국	1,114	5	3	964	5	3	▽13.5	25	5
OECD 35개국 평균	444	-	-	410	-	-	▽7.7	-	-
경제 10대국 평균	1,057	-	-	1,033	-	-	▽2.3	-	-

- (건설산업) 2017년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506명(OECD 2위)으로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 수의 약 52.5%(2위)를 차지했으며, 2010년 대비 약 4.2%(27위) 감소하였음.
- 2017년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 506명(2위) : 2010년 2위(528명)와 동일함.
- 사고사망자 수 감소율 4.2%(27위) : OECD 가입국의 평균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 감소율(5.8%)보다 약 1.6%p 낮은 감소율을 보였으나, 경제 10대국 평균 감소율인 0.1%보다 높아 7번째 높은 감소율을 보임.
-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 비중 52.5%(2위) : OECD 35개국의 평균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 비중 24.6%보다 약 2.1배 높으며, 경제 10대국 평균인 24.2%보다 약 2.2배 높음.

<표 IV-6> 한국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 및 증감률 순위

(단위 : 명, %)

구 분	2010년			2017년			증감률(%)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	OECD 순위	10대국 순위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	OECD 순위	10대국 순위	증감률	OECD 순위	10대국 순위
한국	528	2	2	506	2	2	▽4.2	27	7
OECD 35개국 평균	107	-	-	101	-	-	▽5.8	-	-
경제 10대국 평균	250	-	-	250	-	-	▽0.1	-	-

2. 3대 통계 분석이 주는 시사점

(1) OECD 회원국 3대 통계 증감률 비교

1) 전체 산업

- 2017년 국내 전체 산업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2010년 대비 GDP가 41.9% 증가, 근로자가 11.2% 증가, 사고사망자 수가 13.5%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우리 전체 산업이 OECD 36개국 평균인 GDP 11.3% 증가, 근로자 수 8.7% 증가, 사고사망자 수 7.7% 감소 폭을 각각 3.7배, 1.3배, 1.8배 웃도는 수치로 향상되었음을 의미함.
- 물론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36개국 중 5번째로 많아, GDP(8위)와 근로자 수(8위) 순위에 비해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냄. 하지만 개선도를 의미하는 증감률 분석 결과 3가지 통계 모두에서 OECD 36개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최근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가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후 국내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 이에 2019년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16명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고사망자 수와 관련한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표 IV-7>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3대 통계 증감률

(단위 : %)

국가		사고 사망자	근로자	GDP	국가		사고 사망자	근로자	GDP
아시아	한국	▽13.5	△11.2	△41.9	유럽	스웨덴	▽18.5	△11.0	△9.1
	일본	▽18.2	△3.7	▽14.6		스위스	▽59.3	△10.2	△16.5
	터키	▽2.6	△24.8	△10.5		오스트리아	▽47.3	△6.0	△6.6
	이스라엘	▽19.4	△14.0	△51.0		네덜란드	▽45.6	△3.8	▽1.6
북미	미국	△9.7	△10.3	△30.0		룩셈부르크	▽33.3	△23.2	△20.5
	캐나다	▽6.2	△10.4	△2.2		이탈리아	▽32.6	△2.2	▽8.2
	멕시코	▽15.3	△13.5	△9.4		핀란드	▽37.8	△1.1	△2.3
남미	칠레	▽23.6	△6.9	△26.8		체코	▽21.5	△6.9	△4.1
유럽	영국	△62.8	△9.7	△7.7		헝가리	▽16.7	△18.5	△7.9
	덴마크	▽31.7	△4.1	△2.3		폴란드	▽39.5	△6.1	△9.8
	아이슬란드	-	△16.9	△79.0		슬로바키아	▽10.4	△9.2	△5.8
	노르웨이	▽4.3	△5.7	▽7.1		슬로베니아	▽33.3	▽0.7	△0.7
	스페인	▽6.2	△0.5	▽7.7		에스토니아	▽52.9	△16.0	△36.4
	포르투갈	▽31.4	▽2.9	▽7.0		라트비아	▽16.0	△5.2	△27.2
	프랑스	△8.9	△4.5	▽2.0		리투아니아	▽34.0	△8.6	△28.9
	아일랜드	▽2.4	△13.9	△51.0		오세아니아	호주	▽14.8	△11.7
	벨기에	▽20.3	△3.3	△4.6	뉴질랜드	▽42.6	△16.0	△28.4	
	독일	▽24.2	△9.7	△7.8	OECD 36개국	▽7.7	△8.7	△11.3	
	그리스	0.0	▽14.5	▽32.1					

주 :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전체 산업 통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함.

2) 건설산업

- 국내 건설산업의 경우 동기간 GDP가 70.6% 증가, 근로자가 12.4% 증가, 사고사망자 수가 4.2% 감소하였음.
- 이는 OECD 36개국 평균인 GDP 14.9% 증가, 근로자 수 6.3% 증가보다 각각 4.7배, 1.9배 개선되었음을 의미함. 하지만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하긴 하였지만 OECD 35개국 평균인 5.8%보다는 감소 폭이 작았음을 알 수 있음.
- 국내 건설산업 근로자 수가 12.4% 증가할 때 사고사망자 수는 4.2% 감소했음.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국내 건설산업이 비록 OECD 평균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 감소율(5.8%)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동 기간에 산재 사망사고 관리에서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36개국 중 2번째로 많음. GDP(8위)와 근로자 수(7위) 순위와 비교해볼 때 분명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 하지만, 개선도를 의미하는 증감률 분석 결과 3가지 통계 모두에서 긍정적인 방향(GDP 증가, 근로자 증가, 사고사망자 수 감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2017년 이후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가 506명(2017년) → 485명(2018년) → 428명(2019년)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내 건설산업의 사고사망자 수와 관련 수치는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표 IV-8> OECD 회원국 건설산업 3대 통계 증감률

(단위 : %)

국가	사고 사망자	근로자	GDP	국가	사고 사망자	근로자	GDP		
아시아	한국	▽4.2	△12.4	△70.6	유럽	스웨덴	▽50.0	△13.2	△30.8
	일본	▽11.4	▽1.2	△1.6		스위스	▽26.3	△13.1	△27.2
	터키	△4.6	△46.4	△55.0		오스트리아	△9.5	△2.1	△6.1
	이스라엘	▽12.5	△28.3	△78.3		네덜란드	▽73.3	▽9.5	▽15.4
북미	미국	△26.3	△16.7	△48.8		룩셈부르크	▽50.0	0.0	△25.8
	캐나다	▽6.5	△20.3	▽3.1		이탈리아	▽51.4	▽25.0	▽30.9
	멕시코	▽19.4	△18.7	△4.6		핀란드	▽71.4	△8.7	△10.3
남미	칠레	▽40.0	△4.5	△36.4		체코	▽29.6	▽15.7	▽19.9
	영국	△8.0	△5.4	△17.6		헝가리	▽15.4	△11.0	△10.8
유럽	덴마크	▽37.5	△6.3	△29.6		폴란드	▽49.1	▽2.7	▽9.3
	아이슬란드	-	△9.1	△192.5		슬로바키아	△200.0	▽5.4	△0.6
	노르웨이	▽22.2	△18.3	△15.0		슬로베니아	▽66.7	▽8.6	▽14.6
	스페인	▽27.0	▽31.7	▽38.5		에스토니아	▽75.0	△18.8	△57.8
	포르투갈	▽37.3	▽34.0	▽36.6		라트비아	0.0	△8.6	△50.1
	프랑스	▽7.1	▽8.4	▽9.5		리투아니아	▽33.3	△13.8	△48.0
	아일랜드	▽20.0	△29.0	△179.7		오세아니아	호주	▽31.8	△13.9
	벨기에	▽45.5	▽1.5	▽2.4	뉴질랜드	△25.0	△35.8	△73.7	
	독일	△4.7	△12.1	△17.5	OECD 36개국	▽5.8	△6.3	△14.9	
	그리스	▽46.2	▽53.4	▽64.5					

주 :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건설산업 통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함.

(2) OECD 경제 10대 회원국 3대 통계 비교

- OECD 회원국은 GDP 및 근로자 수 규모가 매우 다양하여, 국내와 직접적인 비교

가 힘든 국가들이 다수 존재함. 특히, 증감률 비교에서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들(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기에 분석 결과의 의미가 작을 수 있음.

- 이에 2017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경제 10대 국가를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 2017년 기준 GDP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호주, 스페인 순임.
- 2017년 기준 건설업 GDP 순위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한국, 멕시코, 이탈리아 순으로 전체 산업 순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1) 전체 산업

- 먼저 OECD 경제 10대 회원국의 2017년 전체 산업 주요 통계 평균을 살펴보면 2010년 대비 GDP가 12.0% 증가, 근로자 수가 7.9% 증가, 사고사망자 수가 2.3% 감소하였음.
- 이는 OECD 36개국 평균인 GDP 11.3% 증가, 근로자 수 8.7% 증가, 사고사망자 수 7.7% 감소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수치임. 특히, 사고사망자 수 증감의 경우 35개국 평균보다 감소 폭이 5.4%p 낮음.
- OECD 경제 10대 회원국 내 국내 전체 산업의 위치를 살펴보면, 2010년 대비 2017년 GDP가 41.9% 증가하여 1위, 근로자 수가 11.2% 증가하여 2위, 사고사망자 수가 13.5% 감소하여 5위로 분석됨.
- 사고사망자 감소 폭이 가장 큰 이탈리아(32.6% 감소)와 3번째로 큰 일본(18.2%)은 GDP가 각각 8.2%, 14.6% 감소하여 문제가 있으며, 사고사망자 감소 폭이 2번째 및 4번째로 큰 독일(24.2%)과 호주(14.8%)도 GDP 증가율이 각각 10개국 평균인 12.0%를 밑도는 7.8%와 9.1%를 기록하였음.
- 분석 결과, OECD 경제 10대 회원국 중 3가지 통계의 증감률이 평균을 모두 웃도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됨.

<표 IV-9> OECD 경제 10대 회원국 전체 산업 주요 통계 비교

국가	GDP (백만 US 달러)		근로자(천명)		사고사망자(명)		증감률(%)		
	2017년	순위	2017년	순위	2017년	순위	GDP	근로자	사고 사망자
미국	19,485,393.9	1	153,337	1	5,147	1	△30.0	△10.3	△9.7
일본	4,866,864.4	2	65,300	2	978	3	▽14.6	△3.7	▽18.2
독일	3,665,804.1	3	41,664	4	430	9	△7.8	△9.7	▽24.2
영국	2,666,318.1	4	31,963	5	280	12	△7.7	△9.7	△62.8
프랑스	2,592,689.5	5	26,880	7	585	7	▽2.0	△4.5	△8.9
이탈리아	1,961,796.2	6	23,023	9	484	8	▽8.2	△2.2	▽32.6
캐나다	1,649,624.7	7	16,273	12	951	6	△2.2	△10.4	▽6.2
한국	1,623,901.5	8	26,725	8	964	5	△41.9	△11.2	▽13.5
호주	1,417,795.4	9	12,276	13	190	14	△9.1	△11.7	▽14.8
스페인	1,312,551.7	10	18,825	10	317	11	▽7.7	△0.5	▽6.2
10개국 평균							△12.0	△7.9	▽2.3

주 :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전체 산업 통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함.

2) 건설산업

- 다음으로 OECD 경제 10대 회원국의 2017년 건설산업 주요 통계 평균을 살펴보면, 2010년 대비 GDP가 15.4% 증가, 근로자가 4.7% 증가, 사고사망자 수가 0.1% 감소하였음.
- 이는 OECD 36개국 평균인 GDP 14.9% 증가보다는 높고, 근로자 수 6.3% 증가, 사고사망자 수 5.8% 감소보다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음.
- 국내 건설산업은 2010년 대비 2017년 GDP가 70.6% 증가하여 1위, 근로자 수가 12.4% 증가하여 4위, 사고사망자 수가 4.2% 감소하여 7위를 기록함.
- 사고사망자 감소 폭이 가장 큰 이탈리아(51.4%)는 GDP와 근로자가 각각 30.9%, 25.0% 감소하였으며, 세 번째로 감소 폭이 큰 스페인(27.0%)도 GDP와 근로자가 각각 38.5%, 31.7% 감소하여 문제가 있음.

· 사고사망자 감소 폭이 두 번째로 큰 호주(31.8%)는 GDP와 근로자가 각각 12.8%, 13.9% 증가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나, 건설산업 GDP 증가율이 10개국 평균(15.4%)을 약간 밑돌아 아쉬움이 있음.

- OECD 경제 10대 회원국의 건설산업 주요 통계 증감률을 보면 3가지 통계 모두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국가는 한국과 호주 2개국밖에 없음을 알 수 있으며, 3가지 통계 모두가 10개국 평균 이상으로 향상된 국가는 전체 산업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 건설산업이 유일한 것으로 분석됨.

<표 IV-10> OECD 경제 10대 회원국 건설산업 주요 통계 비교

국가	GDP (백만 US 달러)		근로자(천명)		사고사망자(명)		증감률(%)		
	2017년	순위	2017년	순위	2017년	순위	GDP	근로자	사고 사망자
미국	779,727.3	1	11,214	1	1,013	1	△48.8	△16.7	△26.3
일본	277,592.7	2	4,980	2	323	4	△1.6	▽1.2	▽11.4
독일	155,621.5	3	2,837	4	89	8	△17.5	△12.1	△4.7
영국	146,479.3	4	2,336	5	54	13	△17.6	△5.4	△8.0
프랑스	129,760.8	5	1,740	8	105	7	▽9.5	▽8.4	▽7.1
이탈리아	74,655.0	10	1,416	9	89	8	▽30.9	▽25.0	▽51.4
캐나다	108,642.4	6	997	13	217	5	▽3.1	△20.3	▽6.5
한국	89,520.9	8	1,988	7	506	2	△70.6	△12.4	▽4.2
호주	108,577.2	7	1,138	11	30	15	△12.8	△13.9	▽31.8
스페인	71,381.2	12	1,128	12	73	10	▽38.5	▽31.7	▽27.0
10개국 평균							△15.4	△4.7	▽0.1

주 :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건설산업 통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함.

3. 3대 지표 분석으로 본 국내 전체 및 건설산업

(1)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 (전체 산업) 2017년 국내 전체 산업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는 5.94명으로

OECD 35개국 중 7위이며, 2010년 9.74 대비 39.0% 감소(11위)하였음. 경제 10대국 내에서 2017년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높았지만, 감소율 또한 가장 높았음.

- 부정적 측면 : 2017년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5.94(OECD 7위, 경제 10대국 1위)는 OECD 35개국 평균(3.46)보다 1.7배, 경제 10대국 평균(3.31)보다 1.8배 높은 수치임.
- 긍정적 측면 : 감소율 39.0%(OECD 11위, 경제 10대국 1위)는 OECD 35개국 평균 감소율(17.1%)보다 약 2.3배 높고, 경제 10대국 평균인 18.2% 감소율보다 약 2.1배 높은 수치임.

<표 IV-11> 한국 전체 산업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및 증감률 순위

구 분	2010년			2017년			증감률		
	전체 산업	OECD 순위	10대국 순위	전체 산업	OECD 순위	10대국 순위	증감률 (%)	OECD 순위	10대국 순위
한국	9.74	6	1	5.94	7	1	▽39.0	11	1
OECD 35개국 평균	3.46	-	-	2.87	-	-	▽17.1	-	-
경제 10대국 평균	3.31	-	-	2.71	-	-	▽18.2	-	-

- (건설산업) 2017년 국내 건설산업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는 56.52(OECD 2위)로 국내 전체 산업(5.94)보다 약 9.52배(3위) 높았으며, 2010년 100.61 대비 약 43.8%(12위) 감소하였음. 경제 10대국 내에서 국내 전체 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17년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높았지만, 감소율도 가장 높았음.
- 부정적 측면 : 2017년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56.52(OECD 2위, 경제 10대국 1위)는 OECD 35개국 평균 14.47보다 3.9배, 경제 10대국 평균 14.22보다 4.0배 높은 수치임. 또한, 건설산업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가 전체 산업보다 9.52배 높아(OECD 3위, 경제 10대국 1위) OECD 평균인 5.04, 경제 10대국 평균인 4.65보다 각각 1.9배, 2.0배 높음.
- 긍정적 측면 : 감소율 43.8%(OECD 12위, 경제 10대국 1위)는 OECD 35개국 평균

건설산업 감소율 18.1%, 경제 10대국 평균 28.3%보다 각각 2.4배, 1.5배 높은 수치임.

<표 IV-12> 한국 건설산업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및 증감률 순위

구 분	2010년			2017년			증감률		
	건설산업	OECD 순위	10대국 순위	건설산업	OECD 순위	10대국 순위	증감률 (%)	OECD 순위	10대국 순위
한국	100.61	2	1	56.52	2	1	▽43.8	12	1
OECD 35개국 평균	17.65	-	-	14.47	-	-	▽18.1	-	-
경제 10대국 평균	19.84	-	-	14.22	-	-	▽28.3	-	-

(2)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 (전체 산업) 2017년 국내 전체 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3.61로 OECD 35개국 중 5위이며, 2010년 4.64 대비 22.2% 감소(23위)하였음. 경제 10대국 내에서 2017년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2위, 감소율은 4위로 분석됨.
- 부정적 측면 : 2017년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3.61(OECD 5위, 경제 10대국 2위)은 OECD 35개국 평균 2.43과 경제 10대국 평균 2.42보다 약 1.5배 높은 수치임.
- 긍정적 측면 : 감소율 22.2%(OECD 23위, 경제 10대국 4위)는 OECD 35개국 평균 감소율 15.1%보다 약 1.5배 높았으며, 경제 10대국 평균인 13.4% 감소율보다 약 1.7배 높은 수치임.

<표 IV-13> 한국 전체 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및 증감률 순위

구 분	2010년			2017년			증감률		
	전체 산업	OECD 순위	10대국 순위	전체 산업	OECD 순위	10대국 순위	증감률 (%)	OECD 순위	10대국 순위
한국	4.64	6	2	3.61	5	2	▽22.2	23	4
OECD 35개국 평균	2.86	-	-	2.43	-	-	▽15.1	-	-
경제 10대국 평균	2.80	-	-	2.42	-	-	▽13.4	-	-

- (건설산업) 2017년 국내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25.45(OECD 1위)로 국내 전체 산업(3.61)보다 약 7.06배(2위) 높았으며, 2010년 29.86 대비 약 14.8%(23위) 감소하였음.
- 부정적 측면 : 2017년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25.45(OECD 1위, 경제 10대국 1위)는 OECD 35개국 평균 8.29보다 3.1배, 경제 10대국 평균 8.96보다 2.8배 높은 수치임. 또한,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가 전체 산업보다 7.06배 높아(OECD 2위, 경제 10대국 1위) OECD 평균인 3.41, 경제 10대국 평균인 3.48보다 각각 2.1배,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긍정적 측면 : 감소율 14.8%(OECD 23위, 경제 10대국 4위)는 OECD 35개국 평균 건설산업 감소율 11.4%보다 1.3배 높았으며, 경제 10대국 평균 14.8%와 유사한 감소율임.

<표 IV-14> 한국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및 증감률 순위

구 분	2010년			2017년			증감률		
	건설산업	OECD 순위	10대국 순위	건설산업	OECD 순위	10대국 순위	증감률 (%)	OECD 순위	10대국 순위
한국	29.86	2	1	25.45	1	1	▽14.8	23	4
OECD 35개국 평균	9.36	-	-	8.29	-	-	▽11.4	-	-
경제 10대국 평균	10.51	-	-	8.96	-	-	▽14.8	-	-

(3) 근로자 1인당 GDP

- (전체 산업) 2017년 국내 전체 산업 근로자 1인당 GDP는 6만 760달러로 OECD 35개국 중 22위이며, 2010년 4만 7,600달러 대비 27.6% 증가(2위)하였음. 경제 10대국 내에서 2017년 근로자 1인당 GDP는 10위, 증가율은 1위로 분석됨.
- 부정적 측면 : 2017년 근로자 1인당 GDP 6만 760달러(OECD 22위, 경제 10대국 10위)는 OECD 35개국 평균 8만 4,700달러와 경제 10대국 평균 9만 200달러의 각각 71.7%, 67.4% 수준임.

- 긍정적 측면 : 증가율 27.6%(OECD 2위, 경제 10대국 1위)는 OECD 35개국 평균 2.4% 증가와 경제 10대국 평균 2.1% 감소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표 IV-15> 한국 전체 산업 근로자 1인당 GDP 및 증감률 순위

(단위 : 1천 U.S. 달러)

구 분	2010년			2017년			증감률		
	전체 산업	OECD 순위	10대국 순위	전체 산업	OECD 순위	10대국 순위	증감률 (%)	OECD 순위	10대국 순위
한국	47.60	25	10	60.76	22	10	△27.6	2	1
OECD 35개국 평균	82.73	-	-	84.70	-	-	△2.4	-	-
경제 10대국 평균	92.17	-	-	90.20	-	-	▽2.1	-	-

- (건설산업) 2017년 국내 건설산업 근로자 1인당 GDP는 4만 5,030달러(OECD 22위)로 국내 전체 산업 근로자 1인당 GDP(6만 760달러)의 약 74.1% 수준이며, 2010년 2만 9,680달러 대비 약 51.7%(2위) 증가하였음.
- 부정적 측면 : 2017년 근로자 1인당 GDP 4만 5,030달러(OECD 22위, 경제 10대국 10위)는 OECD 35개국 평균 5만 7,290달러의 78.6%, 경제 10대국 평균 6만 8,570달러의 65.7%임.
- 긍정적 측면 : 증가율 51.7%(OECD 2위, 경제 10대국 1위)는 OECD 35개국 평균 건설산업 증가율 8.1%와 경제 10대국 평균 0.6%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임.

<표 IV-16> 한국 건설산업 근로자 1인당 GDP 및 증감률 순위

(단위 : 1천 U.S. 달러)

구 분	2010년			2017년			증감률		
	건설산업	OECD 순위	10대국 순위	건설산업	OECD 순위	10대국 순위	증감률 (%)	OECD 순위	10대국 순위
한국	29.68	25	10	45.03	22	10	△51.7	2	1
OECD 35개국 평균	53.01	-	-	57.29	-	-	△8.1	-	-
경제 10대국 평균	68.15	-	-	8.57	6	-	△0.6	-	-

4. 3대 지표 분석이 주는 시사점

(1) OECD 회원국 3대 지표 증감률 비교

1) 전체 산업

- 2017년 국내 전체 산업 3대 지표를 살펴보면,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가 22.2% 감소,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가 39.0% 감소, 근로자 1인당 GDP가 27.6%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표 IV-17>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3대 지표 증감률

(단위 : %)

국가		사고사망자 /근로자	사고사망자 /GDP	GDP /근로자	국가		사고사망자 근로자	사고사망자 GDP	GDP /근로자
아시아	한국	▽22.2	▽39.0	△27.6	유럽	스웨덴	▽26.6	▽25.3	▽1.7
	일본	▽21.1	▽4.1	▽17.7		스위스	▽63.1	▽65.1	△5.7
	터키	▽19.2	▽13.0	▽11.5		오스트리아	▽50.3	▽50.5	△0.6
	이스라엘	▽29.2	▽41.3	△20.5		네덜란드	▽47.6	▽44.7	▽5.2
북미	미국	▽0.5	▽15.6	△17.9		룩셈부르크	▽45.9	▽44.7	▽2.2
	캐나다	▽15.1	▽8.3	▽7.4		이탈리아	▽34.0	▽26.6	▽10.1
	멕시코	▽25.3	▽22.6	▽3.6		핀란드	▽38.5	▽39.2	△1.2
남미	칠레	▽28.5	▽23.2	▽6.9		체코	▽26.6	▽24.6	▽2.7
	영국	△48.3	△51.1	▽1.8		헝가리	▽29.7	▽22.8	▽8.9
유럽	덴마크	▽34.4	▽33.2	▽1.7		폴란드	▽43.0	▽44.9	△3.5
	노르웨이	▽9.5	△2.9	▽12.1		슬로바키아	▽18.0	▽15.3	▽3.2
	스페인	▽6.7	△1.6	▽8.2		슬로베니아	▽32.8	▽33.8	△1.5
	포르투갈	▽29.3	▽26.2	▽4.3		에스토니아	▽59.4	▽65.5	△17.6
	프랑스	△4.3	△11.1	▽6.2		라트비아	▽20.1	▽34.0	△20.9
	아일랜드	▽14.3	▽35.3	△32.5	리투아니아	▽39.2	▽48.8	△18.8	
	벨기에	▽22.8	▽23.8	△1.3	호주	▽23.7	▽21.9	▽2.3	
	독일	▽30.8	▽29.7	▽1.7	뉴질랜드	▽50.6	▽48.7	△10.7	
	그리스	△17.0	△47.2	▽20.5	35개국 평균	▽15.1	▽17.1	△2.4	
					오세아				
				니아					

주 : 1) 사고사망자/근로자 :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사고사망자/GDP : 100억 U.S.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GDP/근로자 : 근로자 1인당 1천 U.S. 달러

2) 이스라엘과 칠레는 2010년 대신 각각 2012년, 2013년 자료이며, 캐나다 건설산업은 2017년 대신 2016년 자료임.

3)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전체 산업 지표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함.

- 이는 OECD 35개국 평균인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15.1% 감소,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17.1% 감소, 근로자 1인당 GDP 2.4% 증가 폭을 각각 1.5배, 2.3배, 11.6배 웃도는 수치로 향상되었음을 의미함.
- 물론 2017년 전체 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가 35개국 중 5번째 높고,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가 7번째로 높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함. 하지만, 두 지표의 개선도를 의미하는 증감률 분석 결과 모두 OECD 35개국 평균보다 높았음.
- 또한, 다양한 정부 대책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2019년 전체 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3.15로, 이는 2017년 수치보다 무려 12.9% 감소한 것임.
-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의 경우도 2018년 기준 5.64로 나타나, 전년 대비 4.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2) 건설산업

- 국내 건설산업의 경우 동기간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가 14.8% 감소,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가 43.8% 감소, 근로자 1인당 GDP가 51.7% 증가하였음.
- 이는 OECD 35개국 평균인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11.4% 감소,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18.1% 감소, 근로자 1인당 GDP 8.1% 증가 폭을 각각 1.4배, 2.4배, 6.4배 웃도는 수치로 향상되었음을 의미함.
- 국내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35개국 중 가장 높고,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도 2번째로 높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하지만, 개선도를 의미하는 증감률 분석 결과 3가지 지표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
- 또한, 2017년 이후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가 25.45(2017년) → 23.84(2018년) → 21.19(2019년)로 감소하고 있으며,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도 56.52(2017년) → 52.15(2018년)로 감소한 사실을 감안하면 국내 건설산업의

관련 지표는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표 IV-18> OECD 회원국 건설산업 3대 지표 증감률

(단위 : %)

국가		사고사망자 /근로자	사고사망자 /GDP	GDP /근로자	국가		사고사망자 근로자	사고사망자 GDP	GDP /근로자	
아시아	한국	▽14.8	▽43.8	△51.7	유럽	스웨덴	▽55.8	▽61.8	△15.5	
	일본	▽10.3	▽12.8	△2.8		스위스	▽34.8	▽42.1	△12.5	
	터키	▽28.5	▽33.4	△5.9		오스트리아	△7.3	△3.2	△3.9	
	이스라엘	▽31.8	▽39.5	△12.7		네덜란드	▽70.5	▽68.5	▽6.5	
북미	미국	△8.2	▽15.1	△27.5	룩셈부르크	▽50.0	▽60.3	△25.8		
	캐나다	▽22.2	▽3.5	▽17.2	이탈리아	▽35.1	▽29.6	▽7.9		
	멕시코	▽32.1	▽22.9	▽11.9	핀란드	▽73.7	▽74.1	△1.4		
남미	칠레	▽42.6	▽38.9	▽6.0	유럽	체코	▽16.5	▽12.2	▽5.0	
	영국	△2.5	▽8.2	△11.6		헝가리	▽23.8	▽23.6	▽0.2	
유럽	덴마크	▽41.2	▽51.8	△21.8		폴란드	▽47.7	▽43.9	▽6.8	
	노르웨이	▽34.3	▽32.4	▽2.8		슬로바키아	△217.2	△198.1	△6.4	
	스페인	△6.8	△18.7	▽10.0		슬로베니아	▽63.5	▽61.0	▽6.6	
	포르투갈	▽5.0	▽1.1	▽3.9		에스토니아	▽78.9	▽84.2	△32.9	
	프랑스	△1.5	△2.6	▽1.1		라트비아	▽7.9	▽33.4	△38.2	
	아일랜드	▽38.0	▽71.4	△116.8		리투아니아	▽41.4	▽55.0	△30.1	
	벨기에	▽44.6	▽44.1	▽0.9		오세아 니아	호주	▽40.1	▽39.5	▽1.0
	독일	▽6.6	▽10.9	△4.8		뉴질랜드	▽11.5	▽18.4	△28.0	
	그리스	△15.6	△51.8	▽23.8		35개국 평균	▽11.4	▽18.1	△8.1	

주 : 1) 사고사망자/근로자 :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사고사망자/GDP : 100억 U.S.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GDP/근로자 : 근로자 1인당 1천 U.S. 달러
 2) 이스라엘과 칠레는 2010년 대신 각각 2012년, 2013년 자료이며, 캐나다 건설산업은 2017년 대신 2016년 자료임.
 3)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전체 산업 지표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함.

(2) OECD 경제 10대 회원국 3대 지표 비교

1) 전체 산업

- OECD 경제 10대 회원국에 한정하여 2017년 기준 3대 지표를 비교해보면, 전체 산업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는 2.71,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2.42, 근로자 1인당 GDP는 90.20달러임.
- 이는 OECD 35개국 평균과 비교하여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35개국 평

균 2.87),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35개국 평균 2.43)는 유사하지만, 근로자 1인당 GDP(35개국 평균 84.70)는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국내 전체 산업은 OECD 경제 10대 회원국 중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는 가장 높고, 근로자 10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두 번째로 높으며, 근로자 1인당 GDP는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 10대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보면, 국내 전체 산업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와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각각 2.19배 1.49배 높으며, 근로자 1인당 GDP는 0.67배 수준임.
- 다음으로 3대 지표의 2010년 대비 2017년 증감률을 비교해보면, 전체 산업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는 18.2% 감소,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13.4% 감소, 근로자 1인당 GDP는 2.1% 감소하였음.
- OECD 35개국 평균과 비교하면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35개국 평균 17.1% 감소)는 감소 폭이 약간 크며,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35개국 평균 15.1%)는 감소 폭이 약간 작음.
- 하지만, 10대 회원국의 근로자 1인당 GDP는 2.1% 감소했지만 35개국 평균은 2.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보임.
- 국내 전체 산업은 10대 회원국 중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는 가장 높은 감소율을,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세 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보임. 또한, 근로자 1인당 GDP는 10개 회원국 중 8개국이 감소하였음에도 한국은 27.6%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10대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보면, 국내 전체 산업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와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각각 2.14배 1.66배 높은 감소율을 보임.
- 근로자 1인당 GDP는 10대 회원국이 2.1% 감소하였음에도, 동기간 국내에서는 27.6% 증가하여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OECD 경제 10대 회원국 중 3가지 지표의 증감률이 평균을 모두 상회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으며, 3가지 지표가 개선된 국가는 한국과 미국밖에 없음. 미국의 경우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와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가 개선되었으나, 10대 회원국 평균은 밀돌고 있음.

- 종합해보면, 국내 전체 산업은 2017년 기준 OECD 경제 10대 회원국 중 3가지 지표에서 매우 낮은 성적을 보이나, 개선도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 2017년 기준 국내 전체 산업이 10대 회원국 중 가장 높으나, 2010년 대비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임.
-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 2017년 기준 국내 전체 산업이 10대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으나, 2010년 대비 세 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보임.
- 근로자 1인당 GDP : 2017년 기준 국내 전체 산업이 10대 회원국 중 가장 낮으나, 2010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IV-19> OECD 경제 10대 회원국 전체 산업 3대 지표 비교

국가	사고사망자 수/ GDP 100억 달러 (a)		사고사망자 수/ 근로자 10만명 (b)		GDP 1천 달러/ 근로자 수 (c)		증감률(%)		
	2017년	순위	2017년	순위	2017년	순위	a	b	c
미국	2.64	16	3.36	6	127.08	5	▽15.6	▽0.5	△17.9
일본	2.01	21	2.01	21	74.53	19	▽4.1	▽21.1	▽17.7
독일	1.17	27	1.03	28	87.98	16	▽29.7	▽30.8	▽1.7
영국	1.05	30	0.88	32	83.42	18	△51.1	△48.3	▽1.8
프랑스	2.26	20	2.18	12	96.45	14	△11.1	△4.3	▽6.2
이탈리아	2.47	17	2.10	13	85.21	17	▽26.6	▽34.0	▽10.1
캐나다	5.76	8	5.84	1	101.37	11	▽8.3	▽15.1	▽7.4
한국	5.94	7	3.61	5	60.76	22	▽39.0	▽22.2	△27.6
호주	1.34	25	1.55	23	115.49	7	▽21.9	▽23.7	▽2.3
스페인	2.42	18	1.68	19	69.72	21	△1.6	▽6.7	▽8.2
평균	2.71		2.42		90.20		▽18.2	▽13.4	▽2.1

주 :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전체 산업 지표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함.

2) 건설산업

- 2017년 기준 OECD 경제 10대 회원국의 건설산업 3대 지표를 비교해보면,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는 14.40,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8.96, 근로자 1인당 GDP는 68.57임.
- OECD 35개국 평균과 비교하면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35개국 평균 14.47),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35개국 평균 8.29)는 유사하지만, 근로자 1인당 GDP(35개국 평균 57.29)보다 약 1.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OECD 경제 10대 회원국 중 국내 건설산업은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와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가장 높으며, 근로자 1인당 GDP는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국내 전체 산업 분석 결과와 유사함.
- 10대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보면, 국내 전체 산업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와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각각 3.93배, 2.84배 높아 국내 전체 산업 분석 결과(2.19배, 1.49배 높음)보다 차이가 컸으며, 근로자 1인당 GDP는 0.66배 수준으로 국내 전체 산업 분석 결과(0.67배)와 유사함.
- 다음으로 3대 지표의 2010년 대비 2017년 증감률을 비교해보면, 10대 회원국의 건설산업 평균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는 27.6% 감소,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14.8% 감소, 근로자 1인당 GDP는 0.6% 증가하였음.
- OECD 35개국 건설산업 평균과 비교하면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35개국 평균 18.1% 감소)와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35개국 평균 11.4%)는 각각 9.5%p, 3.4%p 정도 감소 폭이 큼.
- 하지만, 10대 회원국의 근로자 1인당 GDP는 0.6% 증가에 불과해, 35개국 평균인 8.1% 증가와 큰 차이를 보임.
- 국내 건설산업은 10대 회원국 중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는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이며,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10개국 평균과 같은 감소율(10개국 중 4위)을 보임. 또한, 근로자 1인당 GDP는 한국이 51.7%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10대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보면, 국내 건설산업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는 약 1.6배 높은 감소율을,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10개국 평균과 유사함.
- 근로자 1인당 GDP는 10대 회원국 건설산업이 0.6% 증가하였음에도, 동기간 국내에서는 51.7% 증가하여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전체 산업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 건설산업은 OECD 경제 10대 회원국 건설산업 중 3가지 지표의 증감률이 평균을 모두 웃도는 유일한 국가임. 3가지 지표가 개선된 국가는 한국, 일본, 독일밖에 없으며, 일본과 독일의 경우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와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가 개선되었으나, 10대 회원국 평균은 밀돌고 있음.

<표 IV-20> OECD 경제 10대 회원국 건설산업 3대 지표 비교

국가	사고사망자 수/ GDP 100억 달러 (a)		사고사망자 수/ 근로자 10만명 (b)		GDP 1천 달러/ 근로자 수 (c)		증감률(%)		
	2017년	순위	2017년	순위	2017년	순위	a	b	c
미국	12.99	15	9.03	6	69.53	14	▽15.1	△8.2	△27.5
일본	11.64	18	6.49	13	55.74	18	▽12.8	▽10.3	△2.8
독일	5.72	24	3.14	27	54.85	19	▽10.9	▽6.6	△4.8
영국	3.69	28	2.31	31	62.71	17	▽8.2	△2.5	△11.6
프랑스	8.09	21	6.03	16	74.58	11	△2.6	△1.5	▽1.1
이탈리아	11.92	17	6.29	15	52.72	21	▽29.6	▽35.1	▽7.9
캐나다	19.97	8	21.77	3	111.89	3	▽3.5	▽22.2	▽17.2
한국	56.52	2	25.45	1	45.03	22	▽43.8	▽14.8	△51.7
호주	2.76	32	2.64	30	95.41	6	▽39.5	▽40.1	▽1.0
스페인	10.23	19	6.47	14	63.28	16	△18.7	△6.8	▽10.0
평균	14.40		8.96		68.57		▽27.6	▽14.8	△0.6

주 :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건설산업 지표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함.

- 다음 두 개의 표에서는 OECD 경제 10대 회원국의 전체 및 건설산업 3대 통계와 3대 지표를 종합하여 비교하였음.

<표 IV-21> OECD 경제 10대 회원국 전체 산업 3대 통계 및 3대 지표 비교

국가	GDP (백만 US 달러)		근로자 (천명)		사고사망자 (명)		사고사망자 수/ GDP 100억 달러 (a)		사고사망자 수/ 근로자 10만명 (b)		GDP 1천 달러/ 근로자 수 (c)		증감률(%)					
	2017년	순위	2017년	순위	2017년	순위	2017년	순위	2017년	순위	2017년	순위	GDP	근로자	사고 사망자	a	b	c
미국	19,485,333.9	1	153,337	1	5,147	1	2.64	16	3.36	6	127.08	5	△30.0	△10.3	△9.7	▽15.6	▽0.5	△17.9
일본	4,866,864.4	2	65,300	2	978	3	2.01	21	2.01	21	74.53	19	▽14.6	△3.7	▽18.2	▽4.1	▽21.1	▽17.7
독일	3,665,804.1	3	41,664	4	430	9	1.17	27	1.03	28	87.98	16	△7.8	△9.7	▽24.2	▽29.7	▽30.8	▽1.7
영국	2,666,318.1	4	31,963	5	280	12	1.05	30	0.88	32	83.42	18	△7.7	△9.7	△62.8	△51.1	△48.3	▽1.8
프랑스	2,592,689.5	5	26,880	7	585	7	2.26	20	2.18	12	96.45	14	▽2.0	△4.5	△8.9	△11.1	△4.3	▽6.2
이탈리아	1,961,796.2	6	23,023	9	484	8	2.47	17	2.10	13	85.21	17	▽8.2	△2.2	▽32.6	▽26.6	▽34.0	▽10.1
캐나다	1,649,624.7	7	16,273	12	951	6	5.76	8	5.84	1	101.37	11	△2.2	△10.4	▽6.2	▽8.3	▽15.1	▽7.4
한국	1,623,901.5	8	26,725	8	964	5	5.94	7	3.61	5	60.76	22	△41.9	△11.2	▽13.5	▽39.0	▽22.2	△27.6
호주	1,417,795.4	9	12,276	13	190	14	1.34	25	1.55	23	115.49	7	△9.1	△11.7	▽14.8	▽21.9	▽23.7	▽2.3
스페인	1,312,551.7	10	18,825	10	317	11	2.42	18	1.68	19	69.72	21	▽7.7	△0.5	▽6.2	△1.6	▽6.7	▽8.2
평균							2.71		2.42		90.20		△12.0	△7.9	▽2.3	▽18.2	▽13.4	▽2.1

주 :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건설산업 지표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함.

<표 IV-22> OECD 경제 10대 회원국 건설산업 3대 통계 및 3대 지표 비교

국가	GDP (백만 US 달러)		근로자 (천명)		사고사망자 (명)		사고사망자 수/ GDP 100억 달러 (a)		사고사망자 수/ 근로자 10만명 (b)		GDP 1천 달러/ 근로자 수 (c)		증감률(%)					
	2017년	순위	2017년	순위	2017년	순위	2017년	순위	2017년	순위	2017년	순위	GDP	근로자	사고 사망자	a	b	c
미국	779,727.3	1	11,214	1	1,013	1	12.99	15	9.03	6	69.53	14	△48.8	△16.7	△26.3	▽15.1	△8.2	△27.5
일본	277,592.7	2	4,980	2	323	4	11.64	18	6.49	13	55.74	18	△1.6	▽1.2	▽11.4	▽12.8	▽10.3	△2.8
독일	155,621.5	3	2,837	4	89	8	5.72	24	3.14	27	54.85	19	△17.5	△12.1	△4.7	▽10.9	▽6.6	△4.8
영국	146,479.3	4	2,336	5	54	13	3.69	28	2.31	31	62.71	17	△17.6	△5.4	△8.0	▽8.2	△2.5	△11.6
프랑스	129,760.8	5	1,740	8	105	7	8.09	21	6.03	16	74.58	11	▽9.5	▽8.4	▽7.1	△2.6	△1.5	▽1.1
이탈리아	74,655.0	10	1,416	9	89	8	11.92	17	6.29	15	52.72	21	▽30.9	▽25.0	▽51.4	▽29.6	▽35.1	▽7.9
캐나다	108,642.4	6	997	13	217	5	19.97	8	21.77	3	111.89	3	▽3.1	△20.3	▽6.5	▽3.5	▽22.2	▽17.2
한국	89,520.9	8	1,988	7	506	2	56.52	2	25.45	1	45.03	22	△70.6	△12.4	▽4.2	▽43.8	▽14.8	△51.7
호주	108,577.2	7	1,138	11	30	15	2.76	32	2.64	30	95.41	6	△12.8	△13.9	▽31.8	▽39.5	▽40.1	▽1.0
스페인	71,381.2	12	1,128	12	73	10	10.23	19	6.47	14	63.28	16	▽38.5	▽31.7	▽27.0	△18.7	△6.8	▽10.0
평균							14.4		8.96		68.57		△15.4	△4.7	▽0.1	▽27.6	▽14.8	△0.6

주 : 색이 채워진 곳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7년 건설산업 지표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함.

- 국내 산업재해, 특히 산재 사망사고 실태와 관련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통계청이나 기존 연구에서 국내 산재 사망사고 실태를 타 국가와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한 사례가 부족하였음.
 - 국내 산업재해와 관련한 대표적인 부정적 평가로는 ‘산재 공화국’, ‘산재 후진국’, ‘산재 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 등이 있음.
 - 산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쏟아지는 언론의 이러한 부정적 평가에도 문헌조사 결과 국가별 산업재해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매우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임.
-
- 국가별 산업재해 수준을 사고사망만인율과 같은 정량적 지표로 비교한 자료는 통계청의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OECD)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 자료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통계청의 OECD 국가별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 자료는 OECD 통계가 아닌 ILO 통계에서 수집한 자료로, ILO에 가입하지 않은 캐나다와 같은 OECD 국가 자료는 제외되어 있음.
 - 국가별 산업재해 집계 방법의 차이로 인해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상이하여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 산정 방법에 차이를 보여 객관적 비교가 불가능함.
 - 통계청의 자료는 2015년 이후 자료가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한 최신 자료 비교가 힘들.
 - 산업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국내 건설산업의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를 타 국가 건설산업과 비교하여 국내 건설산업의 수준을 평가할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음.
-
- 본 연구에서는 OECD 회원국의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과 관련한 3대 통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3대 지표를 활용하여 국내 건설산업의 산재 사망사고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위해 다양한 자료를 국가별로 비교·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국내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 수와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OECD 회원국 36개국 중 5번째로 높았음. 하지만 2010년 대비 사고사망자 수와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가 각각 13.5%, 22.2% 감소하여 OECD 평균보다 높은 개선율을 보였음.
 - 2017년 국내 전체 산업의 사고사망자 수는 964명으로 OECD 회원국 36개국 중 5번째로 많아, GDP(8위)와 근로자 수(8위)와 같은 경제 규모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음. 하지만 2010년 대비 GDP 41.9% 증가, 근로자 수 11.2% 증가, 사고사망자 수 13.5% 감소하여, OECD 36개국 평균보다 각각 3.7배, 1.3배, 1.8배 웃도는 수치로 향상되었음.
 - 2017년 국내 전체 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3.61로 OECD 회원국 36개국 중 5번째로 높았으며, 이는 OECD 35개국 평균 2.43과 경제 10대국 평균 2.42보다 약 1.5배 높은 수치에 해당함. 하지만 2010년 대비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가 22.2% 감소하여 OECD 35개국 평균 감소율 15.1%와 경제 10대국 평균인 13.4% 감소율보다 각각 1.5배, 1.7배 높은 감소율을 보였음.
 -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의 경우, 국내 전체 산업은 5.94로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았으며, 이는 OECD 35개국 평균 3.46과 경제 10대국 평균 3.31보다 각각 1.7배, 1.8배 높은 수치임. 하지만 2010년 대비 39.0% 감소하여(OECD 11위, 경제 10대국 1위) OECD 35개국 평균 감소율 17.1%와 경제 10대국 평균인 18.2%보다 각각 1.7배, 2.1배 높은 감소율, 즉 개선율을 보였음.
-
- 건설산업의 경우,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높았으며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가장 높았음. 하지만 2010년 대비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가 14.8% 감소하여 OECD 평균보다 높은 개선율을 보였음.
 - 2017년 국내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528명으로 OECD 회원국 36개국 중 2번째로 많아, GDP(8위)와 근로자 수(7위)와 같은 경제 규모에 비해 사고사망자 수가 많음을 알 수 있음. 하지만 2010년 대비 GDP가 무려 70.6% 증가(OECD 평균 14.9%

증가), 근로자 수 12.4% 증가(OECD 평균 6.3%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사망자 수 4.2% 감소하여 동 기간 산재 사망사고 관리에 성과가 있었음. 사고사망자 감소율은 비록 OECD 평균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 감소율에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사고사망자 수 감소율은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이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

- 2017년 국내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25.45로 OECD 회원국 36개국 중 가장 높았으며, 이는 OECD 35개국 평균 9.36과 경제 10대국 평균 10.51보다 각각 2.1배,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2010년 대비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가 14.8% 감소하여 OECD 35개국 평균 감소율 11.4%보다 1.3배 높았으며, 경제 10대국 평균인 14.8% 감소율과 유사하였음.
- GDP 100억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의 경우, 국내 건설산업은 56.52로 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높았으며, 이는 OECD 35개국 평균 14.47과 경제 10대국 평균 14.22보다 각각 1.9배, 2.0배 높은 수치임. 하지만 2010년 대비 43.8% 감소하여(OECD 12위, 경제 10대국 1위) OECD 35개국 평균 감소율 18.1%와 경제 10대국 평균인 28.3% 감소율보다 각각 2.4배, 1.5배 높은 개선율을 보였음.

- 요약해보면, 국내 전체 및 건설산업은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OECD 타 국가보다 산재 사망사고가 빈번한 것은 사실임. 하지만 매년 사고사망과 관련한 지표가 OECD의 타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음.

- 즉, 국내 전체 및 건설산업의 산재 사망사고 관리는 여러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 타 국가보다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인지해야 함.

- 앞서 제시한 국내 전체 및 건설산업 산재 사망사고 실태를 정량적으로 OECD 국가와 비교·분석한 결과 이외에도,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도출한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국가별 산업재해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기관에는 국제노동기구 통계(ILO Statistics)와 유럽연합 통계(Eurostat)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하지만 이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와 같은 자료도 국가별로 산정 방

법에 차이를 보임을 인정하고 있음. OECD는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와 같은 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 둘째, 사고사망(십)만인율 산정 방법의 차이는 분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차이에서 주로 기인하게 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OECD에서 집계하는 연평균 근로자 수를 적용하여, 분모의 산정 방법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였음.
 - 셋째, 산재 사망사고 관련 통계나 지표를 특정 연도에서만 비교하지 않고, 과거 대비 변화, 즉 개선도 측면에서의 비교도 함께 수행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관련 지표를 비교·분석하였음.
 - 넷째, 산재 사망사고에 관한 자료의 국가별 비교뿐만 아니라 GDP, 근로자 수와 같은 경제 규모의 비교도 함께 수행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별 산재 사망사고 변화 추이와 차이를 이해하고자 하였음. 예를 들어 그리스의 사고사망자 수가 큰 감소세를 보인 이유는 경기 침체로 인한 GDP와 근로자 수 감소로 인한 것인데, 사고사망십만인율 추이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해석할 수 없음.
 - 다섯째, 사고사망십만인율 이외의 GDP 대비 사고사망자 수도 비교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산재 사망사고 실태 비교를 시도하였음. GDP와 근로자 수는 양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이나 국가별 차이는 분명하기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음.
 - 여섯째, OECD 회원국 전체와 OECD 10대 회원국 내에서 국내 전체 및 건설산업의 수준을 비교하였음. OECD 회원국에는 국내 경제 규모와 큰 차이를 보이는 국가들도 다수 존재하기에 이러한 규모의 차이로 인하여 비교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경우가 존재함. 이에 GDP가 일정 규모 이상인 10대 회원국과의 별도 비교·분석도 수행하였음.
-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음.
- 유럽연합에서 제공하는 사고사망자 자료가 2017년으로 제한되어 2017년 자료를 최근 자료로 공통적으로 적용하였음. 이에 국제기관의 통계 업데이트 시점 확인 및 매년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일부 국가의 경우 2010년에서 2017년 자료를 모두 조사하지 못하여 수집 가능한 자료 안에서 국가별 비교와 증감률 비교를 수행하였음. 이스라엘 및 칠레 등 자료 조

사가 제한적인 국가에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취해 봤지만, 유일하게 캐나다에서만 자료를 보내주었음.

- 본 연구에서는 증감률을 연도별 증감률이 아닌, 8년의 시차(2010년과 2017년)를 끌어 비교하여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간 내에 OECD 모든 국가 자료를 조사한 후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하여 변화 경향을 파악할 예정임.
- OECD 국가와의 비교·분석 결과, 국내 전체 및 건설산업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경제(GDP), 고용(근로자 수), 안전(사고사망자 수 등)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OECD 평균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음.
-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같은 징벌 중심의 조치는 건설안전이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와 고용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음.
- 국내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징벌과 규제 중심이 아닌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다방면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하고 가이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부록

<부록 1-1> 연도별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 수

(단위 : 명)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아시아	한국	1,114	1,129	1,134	1,090	992	955	969	964
	일본	1,195	1,024	1,093	1,030	1,057	972	928	978
	터키	1,444	1,700	744	1,362	1,629	1,254	1,406	-
	이스라엘	-	-	62	-	62	55	58	50
북미	미국	4,690	4,693	4,628	4,585	4,821	4,836	5,190	5,147
	캐나다	1,014	919	977	902	919	852	904	951
	멕시코	1,146	1,148	1,122	1,024	991	992	981	971
남미	칠레	-	-	-	454	392	414	412	347
유럽	영국	172	194	161	271	239	260	252	280
	덴마크	41	44	47	39	38	28	34	28
	아이슬란드	-	-	-	-	-	-	-	-
	노르웨이	46	54	37	48	61	40	45	44
	스페인	338	365	299	270	280	344	296	317
	포르투갈	204	192	169	160	160	161	138	140
	프랑스	537	559	576	553	589	595	595	585
	아일랜드	42	49	43	40	47	49	43	41
	벨기에	74	75	49	66	52	64	64	59
	독일	567	507	516	466	527	477	450	430
	그리스	32	37	26	22	28	28	33	32
	스웨덴	54	58	45	35	40	34	37	44
	스위스	91	56	65	77	74	53	79	37
	오스트리아	182	117	144	143	126	134	109	96
	네덜란드	79	48	35	42	45	35	36	43
	룩셈부르크	15	11	14	6	10	13	22	10
	이탈리아	718	621	604	517	522	543	481	484
	핀란드	37	33	36	22	35	35	35	23
	체코	121	150	113	113	118	132	106	95
	헝가리	96	81	65	55	81	86	83	80
	폴란드	446	404	350	277	263	304	243	270
	슬로바키아	48	38	53	55	40	55	45	43
	슬로베니아	24	19	22	20	25	23	14	16
	에스토니아	17	19	14	20	16	17	26	8
	라트비아	25	34	35	31	41	26	38	21
	리투아니아	50	51	58	58	55	45	44	33
	오세아니아	호주	223	224	232	202	197	211	182
니아	뉴질랜드	-	136	69	72	65	59	73	78

<부록 1-2> 연도별 OECD 회원국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

(단위 : 명)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아시아	한국	528	540	461	516	434	437	499	506	
	일본	364	342	367	342	377	327	294	323	
	터키	475	570	256	521	502	474	497	-	
	이스라엘	-	-	32	-	31	35	36	28	
북미	미국	802	781	849	856	933	985	1,034	1,013	
	캐나다	232	184	211	221	232	186	202	217	
	멕시코	232	251	239	242	223	233	215	187	
남미	칠레	-	-	-	105	81	75	86	63	
유럽	영국	50	53	43	51	51	48	45	54	
	덴마크	8	8	5	3	4	6	3	5	
	아이슬란드	-	-	-	-	-	-	-	-	
	노르웨이	9	11	10	10	11	6	8	7	
	스페인	100	106	68	58	59	68	49	73	
	포르투갈	67	57	55	42	43	48	37	42	
	프랑스	113	130	124	133	128	119	111	105	
	아일랜드	5	5	7	10	6	10	9	4	
	벨기에	22	19	14	20	12	14	16	12	
	독일	85	112	97	80	99	89	73	89	
	그리스	13	16	11	8	7	10	9	7	
	스웨덴	14	10	7	5	11	5	9	7	
	스위스	19	11	22	18	21	12	28	14	
	오스트리아	21	10	31	24	15	12	16	23	
	네덜란드	15	8	7	7	5	5	4	4	
	룩셈부르크	2	2	2	1	2	2	6	1	
	이탈리아	183	143	110	101	105	133	115	89	
	핀란드	7	4	9	4	9	3	9	2	
	체코	27	29	22	21	28	29	19	19	
	헝가리	26	18	18	18	19	24	16	22	
	폴란드	114	99	82	71	55	69	52	58	
	슬로바키아	3	3	13	7	7	11	5	9	
	슬로베니아	12	5	7	5	7	7	0	4	
	에스토니아	4	4	3	6	5	3	8	1	
	라트비아	5	10	11	3	5	2	5	5	
	리투아니아	6	13	16	17	12	14	8	4	
	오세아니아	호주	44	41	30	22	32	34	35	30
	니아	뉴질랜드	-	8	10	8	6	2	7	10

<부록 1-3> 연도별 OECD 회원국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 비중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아시아	한국	47.4%	47.8%	40.7%	47.3%	43.8%	45.8%	51.5%	52.5%	
	일본	30.5%	33.4%	33.6%	33.2%	35.7%	33.6%	31.7%	33.0%	
	터키	32.9%	33.5%	34.4%	38.3%	30.8%	37.8%	35.3%	-	
	이스라엘	-	-	51.6%	-	50.0%	63.6%	62.1%	56.0%	
북미	미국	17.1%	16.6%	18.3%	18.7%	19.4%	20.4%	19.9%	19.7%	
	캐나다	22.9%	20.0%	21.6%	24.5%	25.2%	21.8%	22.3%	22.8%	
	멕시코	20.2%	21.9%	21.3%	23.6%	22.5%	23.5%	21.9%	19.3%	
남미	칠레	-	-	-	23.1%	20.7%	18.1%	20.9%	18.2%	
유럽	영국	29.1%	27.3%	26.7%	18.8%	21.3%	18.5%	17.9%	19.3%	
	덴마크	19.5%	18.2%	10.6%	7.7%	10.5%	21.4%	8.8%	17.9%	
	아이슬란드	-	-	-	-	-	-	-	-	
	노르웨이	19.6%	20.4%	27.0%	20.8%	18.0%	15.0%	17.8%	15.9%	
	스페인	29.6%	29.0%	22.7%	21.5%	21.1%	19.8%	16.6%	23.0%	
	포르투갈	32.8%	29.7%	32.5%	26.3%	26.9%	29.8%	26.8%	30.0%	
	프랑스	21.0%	23.3%	21.5%	24.1%	21.7%	20.0%	18.7%	17.9%	
	아일랜드	11.9%	10.2%	16.3%	25.0%	12.8%	20.4%	20.9%	9.8%	
	벨기에	29.7%	25.3%	28.6%	30.3%	23.1%	21.9%	25.0%	20.3%	
	독일	15.0%	22.1%	18.8%	17.2%	18.8%	18.7%	16.2%	20.7%	
	그리스	40.6%	43.2%	42.3%	36.4%	25.0%	35.7%	27.3%	21.9%	
	스웨덴	25.9%	17.2%	15.6%	14.3%	27.5%	14.7%	24.3%	15.9%	
	스위스	20.9%	19.6%	33.8%	23.4%	28.4%	22.6%	35.4%	37.8%	
	오스트리아	11.5%	8.5%	21.5%	16.8%	11.9%	9.0%	14.7%	24.0%	
	네덜란드	19.0%	16.7%	20.0%	16.7%	11.1%	14.3%	11.1%	9.3%	
	룩셈부르크	13.3%	18.2%	14.3%	16.7%	20.0%	15.4%	27.3%	10.0%	
	이탈리아	25.5%	23.0%	18.2%	19.5%	20.1%	24.5%	23.9%	18.4%	
	핀란드	18.9%	12.1%	25.0%	18.2%	25.7%	8.6%	25.7%	8.7%	
	체코	22.3%	19.3%	19.5%	18.6%	23.7%	22.0%	17.9%	20.0%	
	헝가리	27.1%	22.2%	27.7%	32.7%	23.5%	27.9%	19.3%	27.5%	
	폴란드	25.6%	24.5%	23.4%	25.6%	20.9%	22.7%	21.4%	21.5%	
	슬로바키아	6.3%	7.9%	24.5%	12.7%	17.5%	20.0%	11.1%	20.9%	
	슬로베니아	50.0%	26.3%	31.8%	25.0%	28.0%	30.4%	0.0%	25.0%	
	에스토니아	23.5%	21.1%	21.4%	30.0%	31.3%	17.6%	30.8%	12.5%	
	라트비아	20.0%	29.4%	31.4%	9.7%	12.2%	7.7%	13.2%	23.8%	
	리투아니아	12.0%	25.5%	27.6%	29.3%	21.8%	31.1%	18.2%	12.1%	
	오세아니아	호주	19.7%	18.3%	12.9%	10.9%	16.2%	16.1%	19.2%	15.8%
	니아	뉴질랜드	-	5.9%	14.5%	11.1%	9.2%	3.4%	9.6%	12.8%

<부록 2-1> 연도별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근로자 수

(단위 : 천명)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아시아	한국	24,033	24,527	24,955	25,299	25,897	26,178	26,409	26,725
	일본	62,980	62,890	62,700	63,110	63,710	64,010	64,650	65,300
	터키	22,593	24,099	24,819	25,520	25,931	26,619	27,216	28,197
	이스라엘	-	-	3,347	3,439	3,546	3,634	3,727	3,814
북미	미국	139,064	139,869	142,469	143,929	146,305	148,834	151,436	153,337
	캐나다	14,738	14,992	15,243	15,431	15,609	15,781	15,957	16,273
	멕시코	46,122	47,139	48,707	49,227	49,415	50,611	51,595	52,341
남미	칠레	-	-	-	8,041	8,157	8,289	8,398	8,595
유럽	영국	29,125	29,282	29,596	29,954	30,671	31,193	31,628	31,963
	덴마크	2,706	2,703	2,689	2,688	2,714	2,752	2,840	2,816
	아이슬란드	166	166	168	173	178	184	190	194
	노르웨이	2,501	2,536	2,585	2,602	2,627	2,641	2,638	2,644
	스페인	18,724	18,421	17,633	17,139	17,344	17,866	18,342	18,825
	포르투갈	4,898	4,740	4,547	4,429	4,500	4,549	4,605	4,757
	프랑스	25,731	25,759	25,804	25,785	26,376	26,424	26,584	26,880
	아일랜드	1,926	1,888	1,880	1,938	1,989	2,057	2,132	2,194
	벨기에	4,489	4,509	4,524	4,530	4,544	4,552	4,587	4,638
	독일	37,993	38,787	39,126	39,531	39,871	40,211	41,267	41,664
	그리스	4,390	4,054	3,695	3,513	3,536	3,611	3,674	3,753
	스웨덴	4,524	4,626	4,657	4,705	4,772	4,837	4,910	5,022
	스위스	4,208	4,298	4,351	4,393	4,469	4,538	4,604	4,637
	오스트리아	4,017	4,052	4,084	4,105	4,113	4,148	4,220	4,260
	네덜란드	8,290	8,291	8,345	8,285	8,236	8,319	8,427	8,605
	룩셈부르크	220	224	236	238	245	257	260	271
	이탈리아	22,527	22,598	22,566	22,191	22,279	22,465	22,758	23,023
	핀란드	2,447	2,474	2,483	2,457	2,447	2,437	2,448	2,473
	체코	4,885	4,873	4,890	4,937	4,974	5,042	5,139	5,222
	헝가리	3,732	3,759	3,827	3,893	4,101	4,210	4,352	4,421
	폴란드	15,473	15,562	15,591	15,568	15,861	16,084	16,197	16,423
	슬로바키아	2,317	2,315	2,329	2,329	2,363	2,424	2,492	2,531
	슬로베니아	966	936	924	906	917	917	915	959
	에스토니아	568	603	615	621	625	641	645	659
라트비아	851	862	876	894	885	896	893	895	
리투아니아	1,248	1,254	1,276	1,293	1,319	1,335	1,361	1,355	
오세아니아	호주	10,991	11,180	11,324	11,443	11,561	11,808	11,999	12,276
니아	뉴질랜드	2,180	2,215	2,216	2,262	2,305	2,357	2,400	2,529

<부록 2-2> 연도별 OECD 회원국 건설산업 근로자 수

(단위 : 천명)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아시아	한국	1,768	1,772	1,797	1,780	1,829	1,854	1,869	1,988	
	일본	5,040	5,020	5,030	4,990	5,070	5,020	4,950	4,980	
	터키	1,432	1,674	1,709	1,780	1,911	1,907	1,987	2,097	
	이스라엘	-	-	152	165	171	179	186	195	
북미	미국	9,607	9,586	9,593	9,937	10,555	10,614	10,886	11,214	
	캐나다	829	861	908	947	975	978	971	997	
	멕시코	3,602	3,660	3,627	3,598	3,723	3,961	4,240	4,275	
남미	칠레	-	-	-	691	681	722	741	722	
유럽	영국	2,216	2,202	2,157	2,157	2,236	2,234	2,294	2,336	
	덴마크	158	160	157	159	163	165	157	168	
	아이슬란드	11	10	9	11	10	11	12	12	
	노르웨이	180	190	194	199	202	206	206	213	
	스페인	1,651	1,404	1,161	1,029	993	1,074	1,074	1,128	
	포르투갈	467	423	343	288	276	277	290	308	
	프랑스	1,900	1,889	1,865	1,782	1,741	1,697	1,699	1,740	
	아일랜드	100	88	83	86	94	109	119	129	
	벨기에	323	338	325	330	325	323	335	318	
	독일	2,530	2,577	2,624	2,685	2,732	2,724	2,759	2,837	
	그리스	320	246	201	162	152	145	147	149	
	스웨덴	302	309	317	317	317	313	328	342	
	스위스	275	287	289	297	292	300	303	311	
	오스트리아	335	354	368	364	357	348	350	342	
	네덜란드	452	435	441	413	398	403	398	409	
	룩셈부르크	14	14	15	14	11	15	15	14	
	이탈리아	1,889	1,791	1,700	1,553	1,484	1,468	1,404	1,416	
	핀란드	172	176	175	176	169	168	178	187	
	체코	465	431	425	420	414	396	386	392	
	헝가리	273	260	242	246	258	272	278	303	
	폴란드	1,257	1,279	1,253	1,184	1,187	1,207	1,223	1,223	
	슬로바키아	258	241	241	233	223	214	229	244	
	슬로베니아	58	54	55	54	52	53	51	53	
	에스토니아	48	59	58	57	59	62	58	57	
	라트비아	58	61	62	67	73	72	66	63	
	리투아니아	87	85	90	99	99	105	104	99	
	오세아니아	호주	999	1,014	983	1,009	1,033	1,031	1,061	1,138
	니아	뉴질랜드	179	172	171	178	199	223	229	243

<부록 2-3> 연도별 OECD 회원국 건설산업 근로자 수 비중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아시아	한국	7.4%	7.2%	7.2%	7.0%	7.1%	7.1%	7.4%	
	일본	8.0%	8.0%	8.0%	7.9%	8.0%	7.8%	7.6%	
	터키	6.3%	6.9%	6.9%	7.0%	7.4%	7.2%	7.4%	
	이스라엘	-	-	4.5%	4.8%	4.8%	4.9%	5.1%	
북미	미국	6.9%	6.9%	6.7%	6.9%	7.2%	7.1%	7.3%	
	캐나다	5.6%	5.7%	6.0%	6.1%	6.2%	6.2%	6.1%	
	멕시코	7.8%	7.8%	7.4%	7.3%	7.5%	7.8%	8.2%	
남미	칠레	-	-	-	8.6%	8.3%	8.7%	8.4%	
유럽	영국	7.6%	7.5%	7.3%	7.2%	7.3%	7.2%	7.3%	
	덴마크	5.8%	5.9%	5.8%	5.9%	6.0%	6.0%	5.5%	
	아이슬란드	6.6%	6.0%	5.4%	6.4%	5.6%	6.0%	6.3%	
	노르웨이	7.2%	7.5%	7.5%	7.6%	7.7%	7.8%	7.8%	
	스페인	8.8%	7.6%	6.6%	6.0%	5.7%	6.0%	5.9%	
	포르투갈	9.5%	8.9%	7.5%	6.5%	6.1%	6.1%	6.3%	
	프랑스	7.4%	7.3%	7.2%	6.9%	6.6%	6.4%	6.4%	
	아일랜드	5.2%	4.7%	4.4%	4.4%	4.7%	5.3%	5.6%	
	벨기에	7.2%	7.5%	7.2%	7.3%	7.2%	7.1%	7.3%	
	독일	6.7%	6.6%	6.7%	6.8%	6.9%	6.8%	6.7%	
	그리스	7.3%	6.1%	5.4%	4.6%	4.3%	4.0%	4.0%	
	스웨덴	6.7%	6.7%	6.8%	6.7%	6.6%	6.5%	6.7%	
	스위스	6.5%	6.7%	6.6%	6.8%	6.5%	6.6%	6.6%	
	오스트리아	8.3%	8.7%	9.0%	8.9%	8.7%	8.4%	8.3%	
	네덜란드	5.5%	5.2%	5.3%	5.0%	4.8%	4.8%	4.7%	
	룩셈부르크	6.4%	6.3%	6.4%	5.9%	4.5%	5.8%	5.8%	
	이탈리아	8.4%	7.9%	7.5%	7.0%	6.7%	6.5%	6.2%	
	핀란드	7.0%	7.1%	7.0%	7.2%	6.9%	6.9%	7.3%	
	체코	9.5%	8.8%	8.7%	8.5%	8.3%	7.9%	7.5%	
	헝가리	7.3%	6.9%	6.3%	6.3%	6.3%	6.5%	6.4%	
	폴란드	8.1%	8.2%	8.0%	7.6%	7.5%	7.5%	7.6%	
	슬로바키아	11.1%	10.4%	10.3%	10.0%	9.4%	8.8%	9.2%	
	슬로베니아	6.0%	5.8%	6.0%	6.0%	5.7%	5.8%	5.6%	
	에스토니아	8.5%	9.8%	9.4%	9.2%	9.4%	9.7%	9.0%	
	라트비아	6.8%	7.1%	7.1%	7.5%	8.2%	8.0%	7.4%	
	리투아니아	7.0%	6.8%	7.1%	7.7%	7.5%	7.9%	7.6%	
	오세아니아	호주	9.1%	9.1%	8.7%	8.8%	8.9%	8.7%	9.3%
	니아	뉴질랜드	8.2%	7.8%	7.7%	7.9%	8.6%	9.5%	9.6%

<부록 3-1> 연도별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GDP

(단위 : 백만 US 달러)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아시아	한국	1,144,067.0	1,253,223.0	1,278,427.6	1,370,795.2	1,484,318.2	1,465,773.2	1,500,111.6	1,623,901.5	
	일본	5,700,098.1	6,157,459.6	6,203,213.1	5,155,717.1	4,850,413.5	4,389,475.6	4,922,538.1	4,866,864.4	
	터키	771,876.8	832,546.3	873,981.8	950,595.3	934,167.8	859,794.2	863,711.7	852,669.2	
	이스라엘	233,995.7	261,468.6	257,180.1	292,636.2	309,558.5	299,813.1	318,950.6	353,253.4	
북미	미국	14,992,052.7	15,542,581.1	16,197,007.3	16,784,849.2	17,521,746.5	18,219,297.6	18,707,188.2	19,485,393.9	
	캐나다	1,613,542.8	1,789,140.7	1,828,366.5	1,846,597.4	1,805,749.9	1,556,508.8	1,527,994.7	1,649,624.7	
	멕시코	1,057,800.6	1,180,487.2	1,201,093.8	1,274,443.9	1,314,568.9	1,170,567.1	1,077,906.0	1,157,735.2	
남미	칠레	218,537.6	252,252.0	267,122.3	278,384.3	260,541.6	243,919.1	250,440.1	277,045.0	
유럽	영국	2,475,244.3	2,659,310.1	2,704,887.7	2,786,022.9	3,063,803.2	2,928,591.0	2,694,283.2	2,666,318.1	
	덴마크	321,995.3	344,003.1	327,148.9	343,584.4	352,993.6	302,673.1	313,115.9	329,417.1	
	아이슬란드	13,683.7	15,158.5	14,724.1	16,033.5	17,758.1	17,389.1	20,618.4	24,488.2	
	노르웨이	428,757.0	498,283.4	509,506.3	522,761.5	498,410.1	385,801.6	368,827.1	398,394.0	
	스페인	1,422,108.2	1,480,710.5	1,324,744.3	1,355,142.6	1,371,222.7	1,195,600.0	1,232,913.0	1,312,551.7	
	포르투갈	238,113.0	245,118.0	216,224.2	226,433.9	229,902.0	199,394.1	206,426.2	221,357.9	
	프랑스	2,645,187.9	2,865,157.5	2,683,671.7	2,811,876.9	2,855,964.5	2,439,188.6	2,472,964.3	2,592,689.5	
	아일랜드	222,365.5	237,783.5	224,986.6	238,611.4	258,816.1	291,617.1	300,727.4	335,663.1	
	벨기에	481,420.9	523,330.4	496,152.9	521,791.0	535,390.2	462,335.6	476,224.1	503,788.8	
	독일	3,399,667.8	3,749,315.0	3,527,143.2	3,733,804.6	3,889,093.1	3,361,901.7	3,469,145.0	3,665,804.1	
	그리스	299,653.7	288,174.9	245,656.6	239,930.2	237,345.3	196,670.4	195,355.1	203,588.4	
	스웨덴	495,328.6	572,744.0	550,927.0	584,637.8	580,249.3	503,650.6	515,744.4	540,545.2	
	스위스	583,783.0	699,579.6	668,043.6	688,504.2	709,182.6	679,832.3	671,309.2	679,950.5	
	오스트리아	392,275.1	431,685.2	409,401.8	430,191.0	442,584.8	381,971.1	395,496.2	418,316.2	
	네덜란드	847,380.9	905,270.6	838,923.3	877,172.8	892,168.0	765,572.8	784,060.4	833,869.6	
	룩셈부르크	53,264.4	60,083.3	56,674.7	61,756.9	66,191.9	57,767.7	60,732.7	64,181.9	
	이탈리아	2,136,100.0	2,294,994.3	2,086,957.7	2,141,924.1	2,162,009.6	1,836,637.7	1,877,071.7	1,961,796.2	
	핀란드	249,424.3	275,604.4	258,290.1	271,362.4	274,862.8	234,534.4	240,771.4	255,122.5	
	체코	207,477.9	227,948.3	207,376.4	209,402.4	207,818.3	186,829.9	195,090.3	215,913.5	
	헝가리	131,135.6	141,109.6	128,153.7	135,409.0	140,558.8	124,529.7	127,507.5	141,510.6	
	폴란드	479,321.5	528,823.7	500,354.4	524,231.6	545,381.9	477,581.4	472,039.1	526,376.2	
	슬로바키아	90,272.0	99,127.2	94,411.2	98,752.0	101,306.0	88,492.7	89,701.5	95,482.0	
	슬로베니아	48,208.2	51,583.9	46,577.8	48,415.7	49,997.2	43,107.5	44,681.9	48,561.7	
	에스토니아	19,693.6	23,422.2	23,191.4	25,278.6	26,809.1	23,058.1	24,012.8	26,859.1	
	라트비아	23,803.9	28,490.7	28,176.6	30,272.6	31,424.6	27,100.9	27,753.0	30,273.0	
	리투아니아	37,034.5	43,466.1	42,842.5	46,442.1	48,526.0	41,409.0	43,051.2	47,750.9	
	오세아니아	호주	1,299,463.1	1,546,688.9	1,590,707.6	1,543,216.3	1,464,444.5	1,247,634.4	1,311,038.3	1,417,795.4
	니아	뉴질랜드	146,619.1	168,510.2	176,248.0	190,845.9	200,921.9	177,467.5	188,223.7	188,223.7

<부록 3-2> 연도별 OECD 회원국 건설산업 GDP

(단위 : 백만 US 달러)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아시아	한국	52,479.4	54,766.8	55,994.9	62,588.0	68,700.3	71,762.1	78,886.9	89,520.9	
	일본	273,227.8	301,894.5	306,870.0	274,389.3	268,728.7	242,572.9	275,031.7	277,592.7	
	터키	47,044.9	59,712.9	65,385.9	76,641.9	75,691.8	70,080.4	73,957.9	72,932.0	
	이스라엘	11,182.2	13,609.0	13,787.0	16,115.5	17,039.4	15,979.3	17,337.9	19,935.6	
북미	미국	524,029.8	523,230.2	552,146.8	586,179.4	634,951.0	693,348.4	743,884.5	779,727.3	
	캐나다	112,061.5	123,017.4	135,044.8	138,147.6	135,384.8	116,753.7	108,642.4	108,642.4	
	멕시코	81,143.9	91,500.2	92,616.7	92,827.8	94,536.4	84,597.1	78,354.7	84,847.2	
남미	칠레	13,079.9	14,820.1	17,346.0	18,162.3	16,504.1	16,049.1	17,021.5	17,839.6	
유럽	영국	124,537.3	134,820.5	138,785.9	144,781.5	162,804.3	162,234.7	146,199.0	146,479.3	
	덴마크	12,267.5	13,742.9	12,866.7	13,471.8	13,990.1	13,026.2	14,798.6	15,893.3	
	아이슬란드	549.6	577.1	587.2	680.3	850.1	845.9	1,261.7	1,607.7	
	노르웨이	20,381.8	24,112.1	26,270.2	26,998.3	26,576.3	21,803.1	21,689.4	23,442.1	
	스페인	116,079.8	102,388.1	80,560.1	71,450.1	70,797.1	62,620.9	65,721.3	71,381.2	
	포르투갈	12,229.7	11,782.0	9,210.1	8,987.5	8,366.9	7,091.4	7,220.8	7,754.5	
	프랑스	143,328.5	155,389.5	140,842.4	148,652.3	146,289.2	119,698.7	119,946.2	129,760.8	
	아일랜드	3,034.1	2,224.4	3,503.8	4,715.2	5,984.8	5,634.5	6,579.1	8,485.1	
	벨기에	23,491.8	26,246.7	24,217.9	24,853.7	25,252.1	21,406.9	21,993.2	22,922.0	
	독일	132,473.6	147,508.3	141,830.4	149,049.4	158,866.1	138,415.1	146,713.4	155,621.5	
	그리스	11,782.6	8,783.1	7,479.0	6,242.9	5,025.9	3,676.7	4,255.5	4,179.2	
	스웨덴	24,443.3	29,212.7	28,833.6	30,271.7	30,819.2	27,571.6	28,731.9	31,968.9	
	스위스	28,191.4	34,666.9	33,422.3	34,785.6	36,459.5	36,053.1	35,481.0	35,872.0	
	오스트리아	22,701.0	24,326.9	23,162.5	24,630.8	25,186.6	21,274.0	22,087.2	24,081.3	
	네덜란드	40,018.1	41,471.9	35,015.6	34,042.3	34,384.3	29,284.5	31,201.4	33,856.5	
	룩셈부르크	2,559.6	2,956.1	2,612.9	2,827.0	3,335.5	2,852.3	3,038.5	3,220.7	
	이탈리아	108,112.7	114,999.9	98,301.5	94,751.9	87,231.9	71,699.7	72,420.5	74,655.0	
	핀란드	14,223.6	15,556.5	15,026.9	15,495.2	15,248.5	13,202.1	14,522.6	15,684.5	
	체코	12,885.2	12,698.6	10,911.1	10,775.3	10,339.8	9,441.9	9,617.0	10,322.3	
	헝가리	4,649.4	4,867.8	4,166.3	4,619.4	4,973.6	4,424.7	3,882.0	5,152.0	
	폴란드	35,800.7	40,587.6	35,295.7	34,395.5	37,939.0	33,819.1	29,058.7	32,466.6	
	슬로바키아	7,061.6	7,840.2	7,593.1	6,699.5	7,249.8	6,252.2	6,200.9	7,106.5	
	슬로베니아	2,665.1	2,632.9	2,338.1	2,201.9	2,460.8	2,006.3	2,010.6	2,275.4	
	에스토니아	994.5	1,404.1	1,483.2	1,545.4	1,433.5	1,218.8	1,359.8	1,569.4	
	라트비아	1,036.6	1,551.6	1,627.5	1,765.0	1,878.8	1,545.9	1,314.2	1,556.2	
	리투아니아	1,939.1	2,540.4	2,355.2	2,801.2	3,236.0	2,744.4	2,584.6	2,870.0	
	오세아니아	호주	96,271.2	120,207.8	127,766.5	125,103.9	119,411.7	98,665.7	99,284.6	108,577.2
	니아	뉴질랜드	7,583.8	8,600.0	9,439.5	10,257.4	11,566.8	10,647.3	11,738.7	13,173.1

<부록 3-3> 연도별 OECD 회원국 건설산업 GDP 비중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아시아	한국	4.6%	4.4%	4.4%	4.6%	4.6%	4.9%	5.3%	5.5%	
	일본	4.8%	4.9%	4.9%	5.3%	5.5%	5.5%	5.6%	5.7%	
	터키	6.1%	7.2%	7.5%	8.1%	8.1%	8.2%	8.6%	8.6%	
	이스라엘	4.8%	5.2%	5.4%	5.5%	5.5%	5.3%	5.4%	5.6%	
북미	미국	3.5%	3.4%	3.4%	3.5%	3.6%	3.8%	4.0%	4.0%	
	캐나다	6.9%	6.9%	7.4%	7.5%	7.5%	7.5%	7.1%	6.6%	
	멕시코	7.7%	7.8%	7.7%	7.3%	7.2%	7.2%	7.3%	7.3%	
남미	칠레	6.0%	5.9%	6.5%	6.5%	6.3%	6.6%	6.8%	6.4%	
유럽	영국	5.0%	5.1%	5.1%	5.2%	5.3%	5.5%	5.4%	5.5%	
	덴마크	3.8%	4.0%	3.9%	3.9%	4.0%	4.3%	4.7%	4.8%	
	아이슬란드	4.0%	3.8%	4.0%	4.2%	4.8%	4.9%	6.1%	6.6%	
	노르웨이	4.8%	4.8%	5.2%	5.2%	5.3%	5.7%	5.9%	5.9%	
	스페인	8.2%	6.9%	6.1%	5.3%	5.2%	5.2%	5.3%	5.4%	
	포르투갈	5.1%	4.8%	4.3%	4.0%	3.6%	3.6%	3.5%	3.5%	
	프랑스	5.4%	5.4%	5.2%	5.3%	5.1%	4.9%	4.9%	5.0%	
	아일랜드	1.4%	0.9%	1.6%	2.0%	2.3%	1.9%	2.2%	2.5%	
	벨기에	4.9%	5.0%	4.9%	4.8%	4.7%	4.6%	4.6%	4.5%	
	독일	3.9%	3.9%	4.0%	4.0%	4.1%	4.1%	4.2%	4.2%	
	그리스	3.9%	3.0%	3.0%	2.6%	2.1%	1.9%	2.2%	2.1%	
	스웨덴	4.9%	5.1%	5.2%	5.2%	5.3%	5.5%	5.6%	5.9%	
	스위스	4.8%	5.0%	5.0%	5.1%	5.1%	5.3%	5.3%	5.3%	
	오스트리아	5.8%	5.6%	5.7%	5.7%	5.7%	5.6%	5.6%	5.8%	
	네덜란드	4.7%	4.6%	4.2%	3.9%	3.9%	3.8%	4.0%	4.1%	
	룩셈부르크	4.8%	4.9%	4.6%	4.6%	5.0%	4.9%	5.0%	5.0%	
	이탈리아	5.1%	5.0%	4.7%	4.4%	4.0%	3.9%	3.9%	3.8%	
	핀란드	5.7%	5.6%	5.8%	5.7%	5.5%	5.6%	6.0%	6.1%	
	체코	6.2%	5.6%	5.3%	5.1%	5.0%	5.1%	4.9%	4.8%	
	헝가리	3.5%	3.4%	3.3%	3.4%	3.5%	3.6%	3.0%	3.6%	
	폴란드	7.5%	7.7%	7.1%	6.6%	7.0%	7.1%	6.2%	6.2%	
	슬로바키아	7.8%	7.9%	8.0%	6.8%	7.2%	7.1%	6.9%	7.4%	
	슬로베니아	5.5%	5.1%	5.0%	4.5%	4.9%	4.7%	4.5%	4.7%	
	에스토니아	5.0%	6.0%	6.4%	6.1%	5.3%	5.3%	5.7%	5.8%	
	라트비아	4.4%	5.4%	5.8%	5.8%	6.0%	5.7%	4.7%	5.1%	
	리투아니아	5.2%	5.8%	5.5%	6.0%	6.7%	6.6%	6.0%	6.0%	
	오세아니아	호주	7.4%	7.8%	8.0%	8.1%	8.2%	7.9%	7.6%	7.7%
	니아	뉴질랜드	5.2%	5.1%	5.4%	5.4%	5.8%	6.0%	6.2%	7.0%

<부록 4-1> 연도별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아시아	한국	4.64	4.60	4.54	4.31	3.83	3.65	3.67	3.61	
	일본	1.90	1.63	1.74	1.63	1.66	1.52	1.44	1.50	
	터키	6.39	7.05	3.00	5.34	6.28	4.71	5.17	-	
	이스라엘	-	-	1.85	-	1.75	1.51	1.56	1.31	
북미	미국	3.37	3.36	3.25	3.19	3.30	3.25	3.43	3.36	
	캐나다	6.88	6.13	6.41	5.85	5.89	5.40	5.67	5.84	
	멕시코	2.48	2.44	2.30	2.08	2.01	1.96	1.90	1.86	
남미	칠레	-	-	-	5.65	4.81	4.99	4.91	4.04	
유럽	영국	0.59	0.66	0.54	0.90	0.78	0.83	0.80	0.88	
	덴마크	1.52	1.63	1.75	1.45	1.40	1.02	1.20	0.99	
	아이슬란드	-	-	-	-	-	-	-	-	
	노르웨이	1.84	2.13	1.43	1.84	2.32	1.51	1.71	1.66	
	스페인	1.81	1.98	1.70	1.58	1.61	1.93	1.61	1.68	
	포르투갈	4.16	4.05	3.72	3.61	3.56	3.54	3.00	2.94	
	프랑스	2.09	2.17	2.23	2.14	2.23	2.25	2.24	2.18	
	아일랜드	2.18	2.60	2.29	2.06	2.36	2.38	2.02	1.87	
	벨기에	1.65	1.66	1.08	1.46	1.14	1.41	1.40	1.27	
	독일	1.49	1.31	1.32	1.18	1.32	1.19	1.09	1.03	
	그리스	0.73	0.91	0.70	0.63	0.79	0.78	0.90	0.85	
	스웨덴	1.19	1.25	0.97	0.74	0.84	0.70	0.75	0.88	
	스위스	2.16	1.30	1.49	1.75	1.66	1.17	1.72	0.80	
	오스트리아	4.53	2.89	3.53	3.48	3.06	3.23	2.58	2.25	
	네덜란드	0.95	0.58	0.42	0.51	0.55	0.42	0.43	0.50	
	룩셈부르크	6.82	4.91	5.93	2.52	4.08	5.06	8.46	3.69	
	이탈리아	3.19	2.75	2.68	2.33	2.34	2.42	2.11	2.10	
	핀란드	1.51	1.33	1.45	0.90	1.43	1.44	1.43	0.93	
	체코	2.48	3.08	2.31	2.29	2.37	2.62	2.06	1.82	
	헝가리	2.57	2.15	1.70	1.41	1.98	2.04	1.91	1.81	
	폴란드	2.88	2.60	2.24	1.78	1.66	1.89	1.50	1.64	
	슬로바키아	2.07	1.64	2.28	2.36	1.69	2.27	1.81	1.70	
	슬로베니아	2.48	2.03	2.38	2.21	2.73	2.51	1.53	1.67	
	에스토니아	2.99	3.15	2.28	3.22	2.56	2.65	4.03	1.21	
	라트비아	2.94	3.94	4.00	3.47	4.63	2.90	4.26	2.35	
	리투아니아	4.01	4.07	4.55	4.49	4.17	3.37	3.23	2.44	
	오세아니아	호주	2.03	2.00	2.05	1.77	1.70	1.79	1.52	1.55
	니아	뉴질랜드	-	6.14	3.11	3.18	2.82	2.50	3.04	3.08

<부록 4-2> 연도별 OECD 회원국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아시아	한국	29.86	30.47	25.65	28.99	23.73	23.57	26.70	25.45	
	일본	7.23	6.81	7.30	6.85	7.44	6.51	5.94	6.49	
	터키	33.17	34.05	14.98	29.27	26.27	24.86	25.01	-	
	이스라엘	-	-	21.05	-	18.13	19.55	19.35	14.36	
북미	미국	8.35	8.15	8.85	8.61	8.84	9.28	9.50	9.03	
	캐나다	27.99	21.37	23.24	23.34	23.79	19.02	20.80	21.77	
	멕시코	6.44	6.86	6.59	6.73	5.99	5.88	5.07	4.37	
남미	칠레	-	-	-	15.20	11.89	10.39	11.61	8.73	
유럽	영국	2.26	2.41	1.99	2.36	2.28	2.15	1.96	2.31	
	덴마크	5.06	5.00	3.18	1.89	2.45	3.64	1.91	2.98	
	아이슬란드	-	-	-	-	-	-	-	-	
	노르웨이	5.00	5.79	5.15	5.03	5.45	2.91	3.88	3.29	
	스페인	6.06	7.55	5.86	5.64	5.94	6.33	4.56	6.47	
	포르투갈	14.35	13.48	16.03	14.58	15.58	17.33	12.76	13.64	
	프랑스	5.95	6.88	6.65	7.46	7.35	7.01	6.53	6.03	
	아일랜드	5.00	5.68	8.43	11.63	6.38	9.17	7.56	3.10	
	벨기에	6.81	5.62	4.31	6.06	3.69	4.33	4.78	3.77	
	독일	3.36	4.35	3.70	2.98	3.62	3.27	2.65	3.14	
	그리스	4.06	6.50	5.47	4.94	4.61	6.90	6.12	4.70	
	스웨덴	4.64	3.24	2.21	1.58	3.47	1.60	2.74	2.05	
	스위스	6.91	3.83	7.61	6.06	7.19	4.00	9.24	4.50	
	오스트리아	6.27	2.82	8.42	6.59	4.20	3.45	4.57	6.73	
	네덜란드	3.32	1.84	1.59	1.69	1.26	1.24	1.01	0.98	
	룩셈부르크	14.29	14.29	13.33	7.14	18.18	13.33	40.00	7.14	
	이탈리아	9.69	7.98	6.47	6.50	7.08	9.06	8.19	6.29	
	핀란드	4.07	2.27	5.14	2.27	5.33	1.79	5.06	1.07	
	체코	5.81	6.73	5.18	5.00	6.76	7.32	4.92	4.85	
	헝가리	9.52	6.92	7.44	7.32	7.36	8.82	5.76	7.26	
	폴란드	9.07	7.74	6.54	6.00	4.63	5.72	4.25	4.74	
	슬로바키아	1.16	1.24	5.39	3.00	3.14	5.14	2.18	3.69	
	슬로베니아	20.69	9.26	12.73	9.26	13.46	13.21	0.00	7.55	
	에스토니아	8.33	6.78	5.17	10.53	8.47	4.84	13.79	1.75	
	라트비아	8.62	16.39	17.74	4.48	6.85	2.78	7.58	7.94	
	리투아니아	6.90	15.29	17.78	17.17	12.12	13.33	7.69	4.04	
	오세아니아	호주	4.40	4.04	3.05	2.18	3.10	3.30	3.30	2.64
	니아	뉴질랜드	-	4.65	5.85	4.49	3.02	0.90	3.06	4.12

**<부록 4-3> 연도별 OECD 회원국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차이**

(단위 : 배)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아시아	한국	6.44	6.62	5.65	6.73	6.19	6.46	7.28	7.06
	일본	3.81	4.18	4.19	4.20	4.48	4.29	4.14	4.33
	터키	5.19	4.83	5.00	5.48	4.18	5.28	4.84	-
	이스라엘	-	-	11.37	-	10.37	12.92	12.44	10.95
북미	미국	2.48	2.43	2.72	2.70	2.68	2.86	2.77	2.69
	캐나다	4.07	3.49	3.63	3.99	4.04	3.52	3.67	3.72
	멕시코	2.59	2.82	2.86	3.23	2.99	3.00	2.67	2.36
남미	칠레	-	-	-	2.69	2.48	2.08	2.37	2.16
유럽	영국	3.82	3.63	3.66	2.61	2.93	2.58	2.46	2.64
	덴마크	3.34	3.07	1.82	1.30	1.75	3.57	1.60	2.99
	아이슬란드	-	-	-	-	-	-	-	-
	노르웨이	2.72	2.72	3.60	2.72	2.35	1.92	2.28	1.97
	스페인	3.36	3.81	3.45	3.58	3.68	3.29	2.83	3.84
	포르투갈	3.44	3.33	4.31	4.04	4.38	4.90	4.26	4.63
	프랑스	2.85	3.17	2.98	3.48	3.29	3.11	2.92	2.77
	아일랜드	2.29	2.19	3.69	5.63	2.70	3.85	3.75	1.66
	벨기에	4.13	3.38	3.98	4.16	3.23	3.08	3.42	2.97
	독일	2.25	3.32	2.80	2.53	2.74	2.75	2.43	3.04
	그리스	5.57	7.13	7.78	7.89	5.82	8.89	6.82	5.51
	스웨덴	3.88	2.58	2.29	2.12	4.14	2.27	3.64	2.34
	스위스	3.19	2.94	5.10	3.46	4.34	3.42	5.39	5.64
	오스트리아	1.38	0.98	2.39	1.89	1.37	1.07	1.77	2.98
	네덜란드	3.48	3.18	3.78	3.34	2.30	2.95	2.35	1.96
	룩셈부르크	2.10	2.91	2.25	2.83	4.45	2.64	4.73	1.94
	이탈리아	3.04	2.91	2.42	2.79	3.02	3.75	3.88	2.99
	핀란드	2.69	1.70	3.55	2.54	3.72	1.24	3.54	1.15
	체코	2.34	2.19	2.24	2.18	2.85	2.80	2.39	2.66
	헝가리	3.70	3.21	4.38	5.18	3.73	4.32	3.02	4.01
	폴란드	3.15	2.98	2.92	3.37	2.79	3.02	2.83	2.88
슬로바키아	0.56	0.76	2.37	1.27	1.85	2.27	1.21	2.17	
슬로베니아	8.33	4.56	5.35	4.19	4.94	5.27	0.00	4.52	
에스토니아	2.78	2.15	2.27	3.27	3.31	1.82	3.42	1.45	
라트비아	2.93	4.16	4.44	1.29	1.48	0.96	1.78	3.38	
리투아니아	1.72	3.76	3.91	3.83	2.91	3.96	2.38	1.66	
오세아니아	호주	2.17	2.02	1.49	1.24	1.82	1.85	2.17	1.70
뉴질랜드	-	0.76	1.88	1.41	1.07	0.36	1.00	1.33	

<부록 5-1> 연도별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단위 : 명/백만 US 달러)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아시아	한국	9.74	9.01	8.87	7.95	6.68	6.52	6.46	5.94
	일본	2.10	1.66	1.76	2.00	2.18	2.21	1.89	2.01
	터키	18.71	20.42	8.51	14.33	17.44	14.58	16.28	-
	이스라엘	-	-	2.41	-	2.00	1.83	1.82	1.42
북미	미국	3.13	3.02	2.86	2.73	2.75	2.65	2.77	2.64
	캐나다	6.28	5.14	5.34	4.88	5.09	5.47	5.92	5.76
	멕시코	10.83	9.72	9.34	8.03	7.54	8.47	9.10	8.39
남미	칠레	-	-	-	16.31	15.05	16.97	16.45	12.53
유럽	영국	0.69	0.73	0.60	0.97	0.78	0.89	0.94	1.05
	덴마크	1.27	1.28	1.44	1.14	1.08	0.93	1.09	0.85
	아이슬란드	-	-	-	-	-	-	-	-
	노르웨이	1.07	1.08	0.73	0.92	1.22	1.04	1.22	1.10
	스페인	2.38	2.47	2.26	1.99	2.04	2.88	2.40	2.42
	포르투갈	8.57	7.83	7.82	7.07	6.96	8.07	6.69	6.32
	프랑스	2.03	1.95	2.15	1.97	2.06	2.44	2.41	2.26
	아일랜드	1.89	2.06	1.91	1.68	1.82	1.68	1.43	1.22
	벨기에	1.54	1.43	0.99	1.26	0.97	1.38	1.34	1.17
	독일	1.67	1.35	1.46	1.25	1.36	1.42	1.30	1.17
	그리스	1.07	1.28	1.06	0.92	1.18	1.42	1.69	1.57
	스웨덴	1.09	1.01	0.82	0.60	0.69	0.68	0.72	0.81
	스위스	1.56	0.80	0.97	1.12	1.04	0.78	1.18	0.54
	오스트리아	4.64	2.71	3.52	3.32	2.85	3.51	2.76	2.29
	네덜란드	0.93	0.53	0.42	0.48	0.50	0.46	0.46	0.52
	룩셈부르크	2.82	1.83	2.47	0.97	1.51	2.25	3.62	1.56
	이탈리아	3.36	2.71	2.89	2.41	2.41	2.96	2.56	2.47
	핀란드	1.48	1.20	1.39	0.81	1.27	1.49	1.45	0.90
	체코	5.83	6.58	5.45	5.40	5.68	7.07	5.43	4.40
	헝가리	7.32	5.74	5.07	4.06	5.76	6.91	6.51	5.65
	폴란드	9.30	7.64	7.00	5.28	4.82	6.37	5.15	5.13
	슬로바키아	5.32	3.83	5.61	5.57	3.95	6.22	5.02	4.50
	슬로베니아	4.98	3.68	4.72	4.13	5.00	5.34	3.13	3.29
	에스토니아	8.63	8.11	6.04	7.91	5.97	7.37	10.83	2.98
	라트비아	10.50	11.93	12.42	10.24	13.05	9.59	13.69	6.94
	리투아니아	13.50	11.73	13.54	12.49	11.33	10.87	10.22	6.91
	오세아니아	호주	1.72	1.45	1.46	1.31	1.35	1.69	1.39
니아	뉴질랜드	-	8.07	3.91	3.77	3.24	3.32	3.88	4.14

<부록 5-2> 연도별 OECD 회원국 건설산업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단위 : 명/백만 US 달러)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아시아	한국	100.61	98.60	82.33	82.44	63.17	60.90	63.26	56.52	
	일본	13.34	11.33	11.96	12.46	14.03	13.48	10.69	11.64	
	터키	100.97	95.46	39.15	67.98	66.32	67.64	67.20	-	
	이스라엘	-	-	23.21	-	18.19	21.90	20.76	14.05	
북미	미국	15.30	14.93	15.38	14.60	14.69	14.21	13.90	12.99	
	캐나다	20.70	14.96	15.62	16.00	17.14	15.93	18.59	-	
	멕시코	28.59	27.43	25.81	26.07	23.59	27.54	27.44	22.04	
남미	칠레	-	-	-	57.81	49.08	46.73	50.52	35.31	
유럽	영국	4.01	3.93	3.10	3.52	3.13	2.96	3.08	3.69	
	덴마크	6.52	5.82	3.89	2.23	2.86	4.61	2.03	3.15	
	아이슬란드	-	-	-	-	-	-	-	-	
	노르웨이	4.42	4.56	3.81	3.70	4.14	2.75	3.69	2.99	
	스페인	8.61	10.35	8.44	8.12	8.33	10.86	7.46	10.23	
	포르투갈	54.78	48.38	59.72	46.73	51.39	67.69	51.24	54.16	
	프랑스	7.88	8.37	8.80	8.95	8.75	9.94	9.25	8.09	
	아일랜드	16.48	22.48	19.98	21.21	10.03	17.75	13.68	4.71	
	벨기에	9.36	7.24	5.78	8.05	4.75	6.54	7.27	5.24	
	독일	6.42	7.59	6.84	5.37	6.23	6.43	4.98	5.72	
	그리스	11.03	18.22	14.71	12.81	13.93	27.20	21.15	16.75	
	스웨덴	5.73	3.42	2.43	1.65	3.57	1.81	3.13	2.19	
	스위스	6.74	3.17	6.58	5.17	5.76	3.33	7.89	3.90	
	오스트리아	9.25	4.11	13.38	9.74	5.96	5.64	7.24	9.55	
	네덜란드	3.75	1.93	2.00	2.06	1.45	1.71	1.28	1.18	
	룩셈부르크	7.81	6.77	7.65	3.54	6.00	7.01	19.75	3.10	
	이탈리아	16.93	12.43	11.19	10.66	12.04	18.55	15.88	11.92	
	핀란드	4.92	2.57	5.99	2.58	5.90	2.27	6.20	1.28	
	체코	20.95	22.84	20.16	19.49	27.08	30.71	19.76	18.41	
	헝가리	55.92	36.98	43.20	38.97	38.20	54.24	41.22	42.70	
	폴란드	31.84	24.39	23.23	20.64	14.50	20.40	17.89	17.86	
	슬로바키아	4.25	3.83	17.12	10.45	9.66	17.59	8.06	12.66	
	슬로베니아	45.03	18.99	29.94	22.71	28.45	34.89	0.00	17.58	
	에스토니아	40.22	28.49	20.23	38.82	34.88	24.61	58.83	6.37	
	라트비아	48.23	64.45	67.59	17.00	26.61	12.94	38.05	32.13	
	리투아니아	30.94	51.17	67.93	60.69	37.08	51.01	30.95	13.94	
	오세아니아	호주	4.57	3.41	2.35	1.76	2.68	3.45	3.53	2.76
	니아	뉴질랜드	-	9.30	10.59	7.80	5.19	1.88	5.96	7.59

**<부록 5-3> 연도별 OECD 회원국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GDP 100만 달러당
사고사망자 수 차이**

(단위 : 배)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아시아	한국	10.33	10.94	9.28	10.37	9.45	9.35	9.79	9.52	
	일본	6.36	6.81	6.79	6.24	6.44	6.09	5.67	5.79	
	터키	5.40	4.67	4.60	4.74	3.80	4.64	4.13	-	
	이스라엘	-	-	9.63	-	9.08	11.94	11.42	9.92	
북미	미국	4.89	4.94	5.38	5.35	5.34	5.35	5.01	4.92	
	캐나다	3.29	2.91	2.92	3.28	3.37	2.91	3.14	-	
	멕시코	2.64	2.82	2.76	3.24	3.13	3.25	3.01	2.63	
남미	칠레	-	-	-	3.54	3.26	2.75	3.07	2.82	
유럽	영국	5.78	5.39	5.21	3.62	4.02	3.33	3.29	3.51	
	덴마크	5.12	4.55	2.70	1.96	2.66	4.98	1.87	3.70	
	아이슬란드	-	-	-	-	-	-	-	-	
	노르웨이	4.12	4.21	5.24	4.03	3.38	2.65	3.02	2.70	
	스페인	3.62	4.20	3.74	4.07	4.08	3.77	3.11	4.23	
	포르투갈	6.39	6.18	7.64	6.61	7.38	8.38	7.66	8.56	
	프랑스	3.88	4.29	4.10	4.55	4.24	4.08	3.85	3.59	
	아일랜드	8.72	10.91	10.45	12.65	5.52	10.56	9.57	3.86	
	벨기에	6.09	5.05	5.85	6.36	4.89	4.72	5.41	4.47	
	독일	3.85	5.61	4.67	4.30	4.60	4.53	3.84	4.88	
	그리스	10.33	14.19	13.90	13.98	11.81	19.10	12.52	10.66	
	스웨덴	5.25	3.38	2.97	2.76	5.18	2.69	4.37	2.69	
	스위스	4.32	3.96	6.77	4.63	5.52	4.27	6.71	7.17	
	오스트리아	1.99	1.52	3.81	2.93	2.09	1.61	2.63	4.16	
	네덜란드	4.02	3.64	4.79	4.29	2.88	3.73	2.79	2.29	
	룩셈부르크	2.77	3.70	3.10	3.64	3.97	3.12	5.45	1.99	
	이탈리아	5.04	4.60	3.87	4.42	4.99	6.27	6.20	4.83	
	핀란드	3.32	2.15	4.30	3.18	4.64	1.52	4.26	1.41	
	체코	3.59	3.47	3.70	3.61	4.77	4.35	3.64	4.18	
	헝가리	7.64	6.44	8.52	9.59	6.63	7.85	6.33	7.55	
	폴란드	3.42	3.19	3.32	3.91	3.01	3.21	3.48	3.48	
	슬로바키아	0.80	1.00	3.05	1.88	2.45	2.83	1.61	2.81	
	슬로베니아	9.04	5.16	6.34	5.50	5.69	6.54	0.00	5.34	
	에스토니아	4.66	3.51	3.35	4.91	5.84	3.34	5.43	2.14	
	라트비아	4.59	5.40	5.44	1.66	2.04	1.35	2.78	4.63	
	리투아니아	2.29	4.36	5.02	4.86	3.27	4.69	3.03	2.02	
	오세아니아	호주	2.66	2.36	1.61	1.34	1.99	2.04	2.54	2.06
		뉴질랜드	-	1.15	2.71	2.07	1.60	0.57	1.54	1.83

<부록 6-1> 연도별 OECD 회원국 전체 산업 근로자 1인당 GDP

(단위 : 1천 US 달러/명)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아시아	한국	47.60	51.10	51.23	54.18	57.32	55.99	56.80	60.76	
	일본	90.51	97.91	98.93	81.69	76.13	68.57	76.14	74.53	
	터키	34.16	34.55	35.21	37.25	36.03	32.30	31.74	30.24	
	이스라엘	-	-	76.84	85.09	87.30	82.50	85.58	92.62	
북미	미국	107.81	111.12	113.69	116.62	119.76	122.41	123.53	127.08	
	캐나다	109.48	119.34	119.95	119.67	115.69	98.63	95.76	101.37	
	멕시코	22.93	25.04	24.66	25.89	26.60	23.13	20.89	22.12	
남미	칠레	-	-	-	34.62	31.94	29.43	29.82	32.23	
유럽	영국	84.99	90.82	91.39	93.01	99.89	93.89	85.19	83.42	
	덴마크	118.99	127.27	121.66	127.82	130.06	109.98	110.25	116.98	
	아이슬란드	-	-	-	-	-	-	-	-	
	노르웨이	171.43	196.48	197.10	200.91	189.73	146.08	139.81	150.68	
	스페인	75.95	80.38	75.13	79.07	79.06	66.92	67.22	69.72	
	포르투갈	48.61	51.71	47.55	51.13	51.09	43.83	44.83	46.53	
	프랑스	102.80	111.23	104.00	109.05	108.28	92.31	93.02	96.45	
	아일랜드	115.45	125.94	119.67	123.12	130.12	141.77	141.05	152.99	
	벨기에	107.24	116.06	109.67	115.19	117.82	101.57	103.82	108.62	
	독일	89.48	96.66	90.15	94.45	97.54	83.61	84.07	87.98	
	그리스	68.26	71.08	66.48	68.30	67.12	54.46	53.17	54.25	
	스웨덴	109.49	123.81	118.30	124.26	121.59	104.12	105.04	107.64	
	스위스	138.73	162.77	153.54	156.73	158.69	149.81	145.81	146.64	
	오스트리아	97.65	106.54	100.25	104.80	107.61	92.09	93.72	98.20	
	네덜란드	102.22	109.19	100.53	105.87	108.33	92.03	93.04	96.91	
	룩셈부르크	242.11	268.23	240.15	259.48	270.17	224.78	233.59	236.83	
	이탈리아	94.82	101.56	92.48	96.52	97.04	81.76	82.48	85.21	
	핀란드	101.93	111.40	104.02	110.44	112.33	96.24	98.35	103.16	
	체코	42.47	46.78	42.41	42.41	41.78	37.05	37.96	41.35	
	헝가리	35.14	37.54	33.49	34.78	34.27	29.58	29.30	32.01	
	폴란드	30.98	33.98	32.09	33.67	34.39	29.69	29.14	32.05	
	슬로바키아	38.96	42.82	40.54	42.40	42.87	36.51	36.00	37.72	
	슬로베니아	49.91	55.11	50.41	53.44	54.52	47.01	48.83	50.64	
	에스토니아	34.67	38.84	37.71	40.71	42.89	35.97	37.23	40.76	
	라트비아	27.97	33.05	32.17	33.86	35.51	30.25	31.08	33.82	
	리투아니아	29.68	34.66	33.58	35.92	36.79	31.02	31.63	35.24	
	오세아니아	호주	118.23	138.34	140.47	134.86	126.67	105.66	109.26	115.49
	니아	뉴질랜드	67.26	76.08	79.53	84.37	87.17	75.29	78.43	74.43

<부록 6-2> 연도별 OECD 회원국 건설산업 근로자 1인당 GDP

(단위 : 1천 US 달러/명)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아시아	한국	29.68	30.91	31.16	35.16	37.56	38.71	42.21	45.03
	일본	54.21	60.14	61.01	54.99	53.00	48.32	55.56	55.74
	터키	32.85	35.67	38.26	43.06	39.61	36.75	37.22	34.78
	이스라엘	-	-	90.70	97.67	99.65	89.27	93.21	102.23
북미	미국	54.55	54.58	57.56	58.99	60.16	65.32	68.33	69.53
	캐나다	135.18	142.88	148.73	145.88	138.86	119.38	111.89	-
	멕시코	22.53	25.00	25.54	25.80	25.39	21.36	18.48	19.85
남미	칠레	-	-	-	26.28	24.24	22.23	22.97	24.71
유럽	영국	56.20	61.23	64.34	67.12	72.81	72.62	63.73	62.71
	덴마크	77.64	85.89	81.95	84.73	85.83	78.95	94.26	94.60
	아이슬란드	-	-	-	-	-	-	-	-
	노르웨이	113.23	126.91	135.41	135.67	131.57	105.84	105.29	110.06
	스페인	70.31	72.93	69.39	69.44	71.30	58.31	61.19	63.28
	포르투갈	26.19	27.85	26.85	31.21	30.31	25.60	24.90	25.18
	프랑스	75.44	82.26	75.52	83.42	84.03	70.54	70.60	74.58
	아일랜드	30.34	25.28	42.21	54.83	63.67	51.69	55.29	65.78
	벨기에	72.73	77.65	74.52	75.31	77.70	66.28	65.65	72.08
	독일	52.36	57.24	54.05	55.51	58.15	50.81	53.18	54.85
	그리스	36.82	35.70	37.21	38.54	33.06	25.36	28.95	28.05
	스웨덴	80.94	94.54	90.96	95.49	97.22	88.09	87.60	93.48
	스위스	102.51	120.79	115.65	117.12	124.86	120.18	117.10	115.34
	오스트리아	67.76	68.72	62.94	67.67	70.55	61.13	63.11	70.41
	네덜란드	88.54	95.34	79.40	82.43	86.39	72.67	78.40	82.78
	룩셈부르크	182.83	211.15	174.20	201.93	303.23	190.15	202.56	230.05
	이탈리아	57.23	64.21	57.82	61.01	58.78	48.84	51.58	52.72
	핀란드	82.70	88.39	85.87	88.04	90.23	78.58	81.59	83.87
	체코	27.71	29.46	25.67	25.66	24.98	23.84	24.91	26.33
	헝가리	17.03	18.72	17.22	18.78	19.28	16.27	13.96	17.00
	폴란드	28.48	31.73	28.17	29.05	31.96	28.02	23.76	26.55
	슬로바키아	27.37	32.53	31.51	28.75	32.51	29.22	27.08	29.12
	슬로베니아	45.95	48.76	42.51	40.78	47.32	37.85	39.42	42.93
	에스토니아	20.72	23.80	25.57	27.11	24.30	19.66	23.45	27.53
	라트비아	17.87	25.44	26.25	26.34	25.74	21.47	19.91	24.70
	리투아니아	22.29	29.89	26.17	28.29	32.69	26.14	24.85	28.99
	오세아니아	호주	96.37	118.55	129.98	123.99	115.60	95.70	93.58
니아	뉴질랜드	42.37	50.00	55.20	57.63	58.12	47.75	51.26	54.21

<부록 6-3> 연도별 OECD 회원국 전체 산업과 건설산업 근로자 1인당 GDP 차이

(단위 : 배)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아시아	한국	1.60	1.65	1.64	1.54	1.53	1.45	1.35	1.35	
	일본	1.67	1.63	1.62	1.49	1.44	1.42	1.37	1.34	
	터키	1.04	0.97	0.92	0.87	0.91	0.88	0.85	0.87	
	이스라엘	-	-	0.85	0.87	0.88	0.92	0.92	0.91	
북미	미국	1.98	2.04	1.98	1.98	1.99	1.87	1.81	1.83	
	캐나다	0.81	0.84	0.81	0.82	0.83	0.83	0.86	-	
	멕시코	1.02	1.00	0.97	1.00	1.05	1.08	1.13	1.11	
남미	칠레	-	-	-	1.32	1.32	1.32	1.30	1.30	
유럽	영국	1.51	1.48	1.42	1.39	1.37	1.29	1.34	1.33	
	덴마크	1.53	1.48	1.48	1.51	1.52	1.39	1.17	1.24	
	아이슬란드	-	-	-	-	-	-	-	-	
	노르웨이	1.51	1.55	1.46	1.48	1.44	1.38	1.33	1.37	
	스페인	1.08	1.10	1.08	1.14	1.11	1.15	1.10	1.10	
	포르투갈	1.86	1.86	1.77	1.64	1.69	1.71	1.80	1.85	
	프랑스	1.36	1.35	1.38	1.31	1.29	1.31	1.32	1.29	
	아일랜드	3.81	4.98	2.83	2.25	2.04	2.74	2.55	2.33	
	벨기에	1.47	1.49	1.47	1.53	1.52	1.53	1.58	1.51	
	독일	1.71	1.69	1.67	1.70	1.68	1.65	1.58	1.60	
	그리스	1.85	1.99	1.79	1.77	2.03	2.15	1.84	1.93	
	스웨덴	1.35	1.31	1.30	1.30	1.25	1.18	1.20	1.15	
	스위스	1.35	1.35	1.33	1.34	1.27	1.25	1.25	1.27	
	오스트리아	1.44	1.55	1.59	1.55	1.53	1.51	1.49	1.39	
	네덜란드	1.15	1.15	1.27	1.28	1.25	1.27	1.19	1.17	
	룩셈부르크	1.32	1.27	1.38	1.29	0.89	1.18	1.15	1.03	
	이탈리아	1.66	1.58	1.60	1.58	1.65	1.67	1.60	1.62	
	핀란드	1.23	1.26	1.21	1.25	1.24	1.22	1.21	1.23	
	체코	1.53	1.59	1.65	1.65	1.67	1.55	1.52	1.57	
	헝가리	2.06	2.01	1.95	1.85	1.78	1.82	2.10	1.88	
	폴란드	1.09	1.07	1.14	1.16	1.08	1.06	1.23	1.21	
	슬로바키아	1.42	1.32	1.29	1.47	1.32	1.25	1.33	1.30	
	슬로베니아	1.09	1.13	1.19	1.31	1.15	1.24	1.24	1.18	
	에스토니아	1.67	1.63	1.47	1.50	1.77	1.83	1.59	1.48	
	라트비아	1.57	1.30	1.23	1.29	1.38	1.41	1.56	1.37	
	리투아니아	1.33	1.16	1.28	1.27	1.13	1.19	1.27	1.22	
	오세아니아	호주	1.23	1.17	1.08	1.09	1.10	1.10	1.17	1.21
	니아	뉴질랜드	1.59	1.52	1.44	1.46	1.50	1.58	1.53	1.37

참고문헌

국내 문헌

고용노동부(2019), 2018년 산업재해현황분석.
통계청,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OECD).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OECD).

해외 문헌 및 온라인 자료

OECD Statistics : <https://stats.oecd.org/>
ILO Statistics : <https://www.ilo.org/global/lang-en/index.htm>
ILO, Employment by sex and economic activity
Japa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ssociation(JISHA)
Statistics Bureau of Japan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Associ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Boards of Canada(AWCBC)
Statistics Canada, Employment by industry
Government of Mexico
Superintendency of Social Security(SUSESO) in Chile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s(INE)-Chile
Safety Work Australia
Worksafe in New Zealand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 Employment in New Zealand

Abstract

Korea has achieved one of the highest economic growth in the world during a short period of time. However, as a side effect of the compressed growth, the facts related to industrial safety are mostly negative, especially in construction industry. In this study, the various data including the number of fatalities among OECD countries were compared to analyze the current safety status of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Main findings are as followings.

First, the number of fatalities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was 506 in 2017, the second highest among 35 OECD member countries. Compared the 2010, the number has decreased by 4.2%, but it was about 1.6%p lower than the OECD average, 5.8%. Second, the number of employment was about 2 millions in 2017, the 7th largest among 36 OECD member countries. Compared the 2010, the number has increased by 12.4%, about two times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6.3%.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s GDP was about 24,429.7 billion U.S dollars in 2017, the 8th highest among OECD members. Compared to 2010, the GDP has increased by 70.6%(5th), showing about 4.7 times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14.9%.

Fourth, the number of fatalities per 100,000 workers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was 25.45 in 2017, the highest among OECD members. Compared the 2010, the rate has decreased by 14.8%, showing 3.4%p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11.4%. Fifth, the number of fatalities per million dollars of GDP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was 56.52 in 2017, the second highest among OECD members. Compared the 2010, the rate has decreased by 43.8%, showing 25.7%p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18.1%.

This study showed that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has improved in a more positive direction than the OECD average in three aspects : economy(GDP), employment (number of workers), safety(number of fatalities per 100,000 workers).

○ 저자 소개

최수영(sooyoung.choe@cerik.re.kr)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美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석사(건설관리 전공)

美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박사(건설관리 전공)

(現)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경영연구실 연구위원